

청 소 년 의 통 일 의 식

— 제6회 통일에 관한 작품현상모집 당선작품 —

국 토 통 일 원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응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머 리 말

국토통일원에서는 청소년들의 통일·안보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통일에 관한 작품」을 현상모집하고 있다.

올해들어 여섯번째를 맞이한 이행사에 있어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열성어린 참여로 무려 1만여편의 주옥 같은 글들이 응모되어 전에 없던 대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학생 여러분의 작품은 소속학교에서 엄선하여 추천된 것이었으므로 모두 우수하였으며 이가운데서 또 우수한 작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심사위원 여러분이 신중을 기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따른 고충도 자못 컸던 것이다.

모든 작품들이 한결 같이 조국의 승공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최근의 동남아 사태에 따른 교훈, 반공정신 강화 총화단결 총력안보태세에 대한 절규가 그 어느때보다 충만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국가관이 무엇보다 확립되어 있음을 역력히 엿볼 수 있었다.

작품의 내용들이 몸소 생활속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바라는 의식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보면 우리 조국의 앞날을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다. 이러한 소망도 우리의 애국심과 끈기있는 노력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통일의 길이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라 해서 포기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소원을 기필코 성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통일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집단은 무력 적화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간첩을 남파시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뿐만 아니라 무력남침 준비까지 갖추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남 무력 적화통일야욕도 우리의 투철한 승공정신과 총화단결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었다면 감히 넘나 볼 수 없는 것이다.

제 27주년 국군의 날 유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각하께서 「자주국방, 자립경제, 반공조직과 훈련, 이것이 우리의 국력입니다. 힘입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도 북한공산집단의 무력도발을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다.

해마다 있는 이 「통일에 관한 작품현상모집」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자기의 생활속에서 내면화된 일들을 글로 써서 많이 응모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심사를 맡아주신 한국 문인협회와 아동문학가 윤석중선생님, 어효선선생님, 김요섭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차 례

심사평 (초등부 글짓기)	윤 석 중 ... (4)
초등부 < 최 우수 작 >	
보리이삭 줍는 기쁨	김 경 회 ... (5)
< 우 수 작 >	
통일로를 달리며	승 춘 실 ... (8)
마음은 하나로	곽 노 선 ... (11)
한줌의 흙	이 선 주 ... (14)
개미의 단결	강 은 영 ... (18)
엄마의 소원	박 회 숙 ... (20)
< 가 작 >	
북한에서 오신 할아버지	강 민 선 ... (24)
성철아, 통일을 하자	고 동 섭 ... (27)
골짜기에 흐르는 물	김 은 희 ... (30)
토끼반도의 슬픔	김 지 현 ... (33)
통일로의 소망	최 윤 선 ... (36)
심사평 (중등부 글짓기)	
중등부 < 최 우수 작 >	
국 토 통 일	주 효 숙 ... (41)
< 우 수 작 >	
모 래 알	송 병 수 ... (45)
이 소리를	김 경 은 ... (49)
육탄 8 용사의 전적지를 행군하고 나서	김 석 찬 ... (54)

영희아버지	김 명 애 ... (59)
멀공정신과 우리의 마음가짐	김 해 경 ... (63)
〈가 작〉	
해 뜨는 나라	박 정 숙 ... (66)
우리의 자세	김 계 화 ... (70)
멀공과 평화통일	정 기 보 ... (74)
방위성금	채 금 자 ... (80)
총력안보 및 학생의 자세	강 경 숙 ... (85)
십자병 (고등부 글짓기)	김 요 섭 ... (92)
고등부 〈최 우수 작〉	
흐르는 피	서 영 식 ... (93)
〈우 수 작〉	
담배가게 할아버지	김 효 신 ... (100)
두마리의 얼룩말	김 영 태 ... (111)
태 권 도	이 정 연 ... (119)
그 토요일 오후	이 희 천 ... (123)
반공과 학생의 자세	고 은 지 ... (132)
〈가 작〉	
그 날	이 하 영 ... (140)
영아의 슬픔	박 순 이 ... (148)
어 피 니	이 은 옥 ... (153)
섬 물	박 종 재 ... (162)
은빛 목걸이	이 흥 근 ... (168)

♣ 초등부 글짓기 ♣

〈최우수작〉

○보리이삭 줍는 기쁨.....김 경 희

〈우 수 작〉

○통일로를 달리며.....승 춘 실

○마음은 하나로.....곽 노 선

○한줌의 흙.....이 선 주

○개미의 단결.....강 은 영

○엄마의 소원.....박 회 숙

〈가 작〉

○북한에서 오신 할아버지.....장 민 선

○성철아, 통일을 하자.....고 동 섭

○골짜기에 흐르는 물.....김 은 희

○토끼반도의 슬픔.....김 지 현

○통일로의 소망.....최 윤 선



심 사 평

윤 석 중
(새싹회회장)

승공·평화통일, 유신정신, 총력안보, 북한의 대남도발..... 이러한 벽찬 일들을 어린이들이 글로 엮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어른들의 소리를 기억을 더듬어 그대로 옮겨 놓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일은 웅변대회 같은 데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어른이 써준대로, 손짓 발짓을 해 가며 열을 올려 떠드는 수가 있지만 생김생김과 목소리만 빼면 어른과 다를 바가 없어서 땀을 흘리며 열변을 토하는 어린 그가 애처롭게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떠드는 이야기나, 붓으로 적어 놓은 글을 통해서 얼마나 어린다운 생각이며 어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남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가려내는데 심사위원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남은 30편을 거듭 슈아내어 한 편의 최우수작과 각각 5편의 우수작과 가작을 뽑았다. 비록 어른한테 들었거나 라디오·텔레비전·신문 잡지같은 데에서 들은 이야기라도 잘 새겨서 내 소리, 내 생각, 내 뜻을 삼은 글들을 만나게 될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두더지같은 공산당 놈들이 땅굴을 파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약에, 뜻밖에도 우리 발밑에서 공산군이 총을 들고 불쑥 나타난다면 어쩔 것인가? 다행히도 우리 국군 아저씨들이 발견하였으니까 말이지 큰일날뻔 하지 않았는가... 으뜸 자리를 차지한 어린이글의 한 대목이다. 어린이다운면서도 어른들 까지도 실감이 나게 해준다. 어른이 대 준 100원의 방위성금을 낸 뒤, 자기 스스로 보리 이삭을 주워 모아 팔아서 생긴 370원에서 60원을 주고 공책 두권을 사고 나머지 310원을 방위성금으로 바쳤을 때, 반 아이들이 '와아!' 하고 환성을 지른 대목에 이르러서는, 잠깐 어른들에게까지 큰 깨우침을 줄 것이다.

우수작 첫자리의 '통일로를 달리면서'는 수학 여행 버스 안에서 어린이끼리 주머니를 털어 모은 4,670원의 방위성금, 앞에서 그들이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 초등부 최우수작 *

보리이삭 줍는 기쁨

김 경 희

(전남 광주 대성 4-5)

햇빛이 눈부신 오월 어느날 이었다.

반공도덕 시간이기 때문에 바른생활책을 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책은 그냥 놔 두고 바르게 앉으라고 하셨다.

나는 속으로 옛날 이야기라도 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선생님 입하고 눈만 보고 있는데 4월 30일 월남이 공산군에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 는 것이었다.

우리 국군아저씨들이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목숨까지 바친 곳인데 어처구니없이 망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도덕시간에 월남을 돕는 국군아저씨를 공부하면서 다리도 놓아 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도 고쳐 준 따이한의 국군 아저씨들이 돌아오고 나서 월남이 이렇게 빨리 망해버리다니.....

월남이 망한 까닭은 군인이나 무기 물자가 부족하여 진 것이 아니고 베트남의 속임수에 빠진 국민들이 뭉치지 못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떠들다가 몽땅 망해버렸다고 한다.

월남에서 피난민들이 자기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 부산에 피난을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통일을 못하고 있는 이때 북괴 김일성이 남침해 와서 지금의 월남처럼 된다면 정말로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

월남이 공산군에게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산당을 무찌르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도 없고 목숨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고 우리 동포라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6.25 때 그 지긋지긋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 놓았으면서 또 전쟁을 이르기려고 하고 땅굴을 파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으니 그 지독한 놈은 병도 안 걸리는지 모르겠다.

두더지같은 공산당 놈들이 땅굴을 파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약에 뜻밖에도 우리 발밑에서 공산군이 총을 들고 불쑥 나타난다면 어쩔 것인가? 다행히도 우리 국군 아저씨들이 발견하였으니까 말이지 큰일 날뻔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사람이면서도 한번 공산당 물이 들고 빨갱이가 되기만 하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못살게 구는 이리들.

북괴는 지금 월남이 공산군에게 망하니까 덩실덩실 미쳐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일성은 전쟁을 이르킬 구실만 찾고 남침해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유다 평화다 말만 많이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고 싶다. 살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무찔러야 하고 국민총화로 멸공통일을 해야만 하겠다.

라디오나 신문을 보면 어린이 어른 할것 없이 공산당을 몰아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방위성금을 내고 있다.

나는 방위성금을 내고 싶어서 아버지께 말씀 드렸더니 100원을 주셔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다.

선생님께서서는 내가 방위성금을 낸다고 했더니 100원이 모이고 또 모

이때 총도 사고 비행기도 사게 될 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날 우리는 공산군을 무찌르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시면서 칭찬 해 주셨다. 나는 칭찬을 받고 속으로 기뻐했다.

집에 가서 또 돈 100원만 주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한 번 냈으니까 그만 내도 된다고 하시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이 대문 밖에 나와서 혼자 서 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지게에 보리를 배어 지고 가는 것을 보자 '옳지 됐다' 하는 생각이 얼른 떠올랐다.

나는 집에 뛰어가서 그릇을 가지고 보리를 베고 난 밭으로 갔다.

이곳 저곳에 보리 이삭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한개 한개 정성껏 주워 모았다. 해질때까지 주으니까 그릇에 거의 하나가 차서 집에 돌아왔다. 다음날은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다.

어머니께 부탁드려 낱알로 만들었더니 보리가 3 되하고도 더 많이 되었다. 앞에 있는 곡식 가게에 가지고 갔더니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370원을 손에 쥐어 주셨다.

나는 정말 기뻐했다.

내 힘으로 방위성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나는 60원 주고 공책 두권을 사고 나머지 310원을 방위성금으로 냈다. 선생님께서는

“경희 너는 100원 냈는데 왜 또 가져 왔지?”

하고 물으셨다.

나는 이삭, 줍기를 해서 번 돈 이라고 말 하니까 반 아이들은 모두들 “와아!” 하고 놀란 얼굴들이었다.

선생님께서도 정말 뜻밖에 일이라고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

내가 땀 흘려가며 주는 보리이삭이 돈이 되고 다시 총이나 비행기가 되어 공산군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기쁘다.

만약에 보리알 한 알 한 알이 총알이 되어 개미떼처럼 쳐들어오는 공산군을 거꾸러 뜨린다면 얼마나 신 날까?

나는 어린이 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적은 힘이라도 보태어서 내 마음은 흐뭇하다.

* 초등부 우수작 *

통일로를 달리며

승 춘 실
(충북 청주 운호6-1)



지난 5월 수학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버스는 곧게 펼쳐진 통일로에 들어섰습니다.
차창에서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조금전까지도 노래
소리로 꽉 차있던 차 안은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
다. 아이들도 차가 점점 북쪽으로 가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하고 떨리
는 모양입니다.

순간 차창 밖을 내다보다 나는 <철도 중단점>이라는 갈판에 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철도와 동강난 화차를 보고 우리들이 이곳 통일로

까지만 아니고 저 기차로 신의주까지 수학여행을 갔으면 얼마나 좋을
까! …… 하는 아쉬움에 안보일 때 까지 몇번이고 뒤를 돌아다 보았
습니다.

좌우로 준비하게 서 있는 가로수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나
무릎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시끄럽던 차 안이 엄
숙해졌습니다.

드디어 빠스가 <입진각>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 같았으면 서로 앞을 다투어 내리는데 오늘따라 그런 모습
은 보이지 않았읍니다.

이때 흰 연기와 함께 <평>하는 대포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나는 몸을 움찔 하였으나 우리 국군아저씨들이 연습으로 쏘는
대포소리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라 앉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앞에 남북을 가로지른 철조망을 보자 다시 몸에 소름이
끼쳤으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전쟁의 무서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것 같기도 했고 영화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와서보니 휴전선 근
방에 온 느낌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의 기쁨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북쪽으로 떠가는 흰
구름을 바라다 보니 내 머리속에는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들과 같이 수학여행을 다닐까? 아니
강제 노동일이나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과 같이 티없이 자랄 나이에 노동과 훈련으로 나날을 보낸다
는 생각을 하니 분함이 솟구쳐 올랐읍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악독한 공산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고
굶주림속에서 전쟁준비만을 하는 우리 동포들을 자유의 품안으로 안기
게 했으면 또 통일의 열차를 타고 금강산 백두산까지 갈 수 있었으

면.....,

하고 생각하니 이마에서는 어느새 땀방울이 솟고 두 주먹이 저절로 붙끈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곳에서 밤낮없이 나라를 지키시는 군인 아저씨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며 버스에 다시 타고 통일로를 되돌아오는 도중 여러 아이들은 하나같이 차창 밖만 내다 볼 뿐 울매와는 달리 말도 노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언제나 좋은 의견을 잘 내세우는 정희가

“우리 용돈에서 조금씩 절약하여 방위성금을 내자”

고 말을 하자 우리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찬성 찬성”

하며 너도 나도 자기 성의껏 돈을 내었습니다.

나도 적은 돈이지만 100원을 방위성금에 선뜻 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4,670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총알 한개라도 사는데 보탬이 되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버스는 점점 세계 달렸습니다. 우리들은 모두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 초등부 우수작 *

마음은 하나로

곽 노 선

(충남 조치원 대동 6-2)

지난 토요일의 일이었다.

공부가 다 끝나 동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어항에는 새끼를 밴 어미붕어가 물위에 떠 있었다.

“웬일이지?”

나는 깜짝 놀라 붕어를 만져보니 아직 죽지 않아 살려고 바둥거렸다. 어항의 물은 오랫동안 갈아 주지 않아서 더러웠고 붕어의 먹이인 물벼룩도 없었다.

나는 어항의 물을 갈아 주고 연못에 있는 물벼룩도 잡아다 넣어 주었다.

새끼를 밴 어미붕어는 물벼룩을 먹고 다시 활발하게 돌아 다녔다.

나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 때 보살펴 준 보람이 있어 그 붕어는 잘 자랐다.

한 달이 지난 아침.

교실에 들어가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동무들이 나를 보고

“노선아, 붕어의 새끼가 탄생했어. 알이 들 밑에 있었나봐.”

하고 소리쳤다. 나는

“그러니, 참 기쁘다.”

하고 말하며 속으로도

“내가 보살피 준 보람이 있구나”

하고 기뻐했다.

어항속의 붕어들은 나와 우리반 전체 동무들에게 사랑을 독차지 하였다. 공부 시간이 끝날 때마다 평화로운 어항속을 신기한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반의 사랑을 받던 붕어들이 다른반으로 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음날에 1반과 3반 선생님이 오셔서

“붕어를 2마리만 주세요. 어항은 있지만 붕어가 없어서 아이들을 보고 사오라고 했는데 안사오는군요. 또 붕어가 새끼를 낳테지요”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반 선생님은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반 어항속은 4마리의 새끼가 없어지고 어미붕어와 새끼붕어 1마리만이 남게 되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보고 새끼들의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라고 하셨다.

나는 4마리의 새끼가 없어져 서운했지만 보람을 느끼며 관찰하였다.

새끼붕어는 처음에는 활발하더니 돌아다니지 않는 어미붕어를 보고는 새끼붕어도 돌아 다니지 않게 되었다.

1반과 3반에 있는 붕어들을 보니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것이 엄마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께

“선생님. 1반과 3반에 있는 붕어들을 우리반에 갖다 놓아야 되겠어요. 엄마붕어를 찾는 것 같아 가여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서는

“노선아, 준 것을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니.”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께

“아니어요 선생님, 그 붕어들이 우리 한반도가 갈려져 있는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그제야 승낙을 하시고 이유는 나보고 말씀드리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1반과 3반선생님께

“미안하지만 새끼붕어를 돌려 주셔야 겠어요. 이유는 노선이가 말씀드린대요.”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1반과 3반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토요일에 죽으려던 어미붕어를 살려 보람을 느끼고 새끼가 탄생되어 더욱 큰 보람을 느끼며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없어진 후로 어미붕어는 돌아다니지 않고 새끼붕어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엄마를 찾는것 같아 가없어요.”

하고 말씀드리니 1반과 3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붕어를 다시 돌려 주셨다.

이제 우리반 어항속은 세갈래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 우리반 전체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우리 한반도도 어항이 갈라졌던듯이 두갈래로 갈라져 있다. 부모는 북에 자식은 남에 서로가 다른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북괴는 그것마저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한반도가 통일될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비록 땅은 두 갈래로 갈라졌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통하고 있다.

편지를 못낸다 해도 만나보지 못한다해도 오직 마음만은 하나…….

* 초등부 우수작 *

한 줌의 흙

이 선 주

(전북 전주 6-4)

이른 아침이었다.

햇살이 꽃밭에 가득히 비치고 장미 꽃이 아침 이슬을 받아 더욱 싱싱해 보였다.

빨간 철쭉꽃도 다른 날 보다 한결 예쁘게 차리고 나를 반기는 것 같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현충일인 오늘 아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 온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복장으로 차린 다음 다가산으로 갔다.

다가산의 충혼탑에 가는 길에는 향나무와 소나무들이 어젯 밤의 이슬을 맞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서너 사람씩 짝을 지어 다가산으로 가는 모습이 오늘은 무척 거룩하게 보였다. 나도 처음 참석하는 추도식이라서 마음이 두근거리기 까지 하였다.

산 위에 오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모두들 6.25 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같이 엄숙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나도 그 사람들 틈에 끼니 어쩐지 우울해 졌다.

6.25 때의 비극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학교에서 6.25의 이야기

도 많이 듣고 아버지한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때의 비극을 대강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먼저 충혼탑 앞에 내가 손수 만든 꽃 다발을 헌화하고 옷깃을 여민뒤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치신 분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고마움과 은혜에 마음 속 깊이 감사하면서 목념을 올렸다.

추도식이 끝난 뒤 아이들이 놀고 가자는 것도 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자는 것도 모두 뿌리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왜냐면 오늘은 현충일이지 노는 날이 아니라는 생각이 번득 떠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서는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마당에 흙을 쌓놓고 개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어,

“아버지! 이 흙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하고 여쭙 봤더니,

“응, 벌써 왔니? 땅굴을 막으려고 그런단다.”

하고 계속 흙을 주브르고 계셨다.

나는 땅굴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버지, 땅굴 이라니요?”

“글쎄, 쥐들이 어찌 구멍을 내고 다니는지, 꼭 북한 김일성과 똑같지 뭐니.”

나는 그제야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 수 있었다.

“참, 그런데 충혼탑에는 어른들 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왔어요.”

“옳아! 어른들은 죽군묘지에 가셨을 거다. 그 놈의 김일성이 때문

에…….

하시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 보시면서 무슨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다.

그 때 마침 부엌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인상을 찌푸리고 나오시면서 부엌을 쥐가 파 놓았다고 걱정을 하셨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부엌에도 땅굴이 있나?”

하시는데 말씀에 어머니와 나는 모두 웃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흙판에 흙을 담아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오래 전부터 흙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한줌 한줌이 자꾸 자꾸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곳 뿐만 아니라 부엌전체가 아주 보기 흉하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져 나가더니 지금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갔구나.”

하고 말씀하시자 아버지께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야.”

하시면서 흙을 한 줌 부엌에 바르셨다.

“나라하고 부엌하고 같아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자 아버지께서는

“흙 한 줌, 한 줌이 모여서 새 부엌이 되고 땅굴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반공정신으로 총화 단결하면 북괴 땅굴도 공산 침략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야.”

하시면서 계속 흙을 바르셨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한 줌의 흙을 온 국민으로, 우리 집을

우리 나라로 생각해 보고 흙이 뭉치는데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겨레는 멸공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개미도 뭉치면 살은 썰기라도 이길수 있다’는 속담이 생각났다.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이 한 줌의 흙과 같이 멸공 정신으로 굳게 뭉치면 어떠한 복귀 도발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말끔히 단장된 부엌으로 벌써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손을 씻고 나서 책상 위에 앉았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인가, 또 국민들은 어떻게 이 일을 막아 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 초등부 우수작 *

개미의 단결

강 은 영

(전북 고창5-4)



지난 토요일 나는 모밥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이 일하고 계시는 논에 갔습니다.

모밥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부르니까, 잠시 후 아버지와 아저씨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이 모밥을 맛있게 잡수시고 계시는데 나는 논둑에 앉아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개미떼와 큰 개미떼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보았으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흥미로워 갔습니다.

아마, 식량을 가지고 하는 싸움인 것 같았어요. 작은 개미들과 큰 개미들은 아주 맹렬히 싸웠어요.

그렇지만 조그만 개미떼는 힘이 좀 부족했던지 차차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작은 개미의 지원병이 왔습니다.

또 맹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개미가 하나 둘 식량을 두고 달아 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느낀점이 많았어요.

“아무리 작은 곤충이지만 단결만 하면 이길수 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이것은 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는 방위성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위성금만 내라고 하면

짱그러던 내 얼굴 그렇지만 개미들의 단결하는 것을 보고 방위성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즈음 북괴는 땅굴을 파고 군사기지를 옮기는 등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북괴의 전쟁도발을 막으려면 방위성금을 많이 내고 온 국민이 열공정신으로 단결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낸 방위성금이 모두 모여지면 우리나라는 북괴도발을 막을 수 있는 최신형 무기, 군함, 비행기 등 많은 무기를 만들어 북괴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방위성금을 내지 않는 친구들에게 개미의 이야기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이야기하며 온 국민이 단결 할 것을 '전교 웅변대회'에서 호소했더니 많은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학교는 물론 천 국민이 낸 돈은 우리의 튼튼한 힘이 되어 북괴 김일성을 무찌르고 통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마음 굳게 다짐하며 오늘도 마루 밑에 있는 빈병과 고철 그리고 휴지를 모읍니다.

더럽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내 작은 힘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참는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개미의 교훈은 오늘도 나를 용기있는 어린이로 만듭니다.

* 초등부 우수작 *

엄마의 소원

박 회 숙

(전북 전주 완산6-6)



“희숙아, 이거 우리 외삼촌이 사준 거야”

하며 희전이는 빨간 만년필을 나에게 자랑하셨습니다.

나는 부러웠습니다.

나에게 그런 만년필을 사 줄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일기를 쓰다가 어머니께

“엄마, 왜 우리는 외가집이 없어요. 희전이는 외삼촌이 사주었다면서 빨간 만년필을 자랑하던데……”

“글쎄 말이다”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손을 멈추시더니 한숨을 푹 내 쉬었습니다.

“엄마 자세히 이야기 좀 해줘요. 응 어떻게 엄마만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러니까 내가 꼭 너만이나 했을 때다. 12살이었으니까, 벌써 30년이 되는구나. 우리는 강원도 철원에서 누구 못지 않게 부자로 잘 살았었다.”

“그럼, 지금 우리 같이 보리밥도 안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겠네요?”

“원, 자식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단다. 공산당 2명이 총을 메고 찾아와 너의 할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갔지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공산당이란 말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 날 밤이었단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너의 할아버지를 반장이 업고 왔더라.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말씀도 못 하셨단다.”

말씀을 하시는 엄마의 눈엔 눈물이 가득히 고여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 뒤, 할아버지께서는 영영 일어나시지를 못하셨단다. 공산당은 우리의 논과 밭을 다 빼앗고 집마저 빼앗아가고 말았다. 그래도 부족하여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집 식구들을 반동 분자라고 못 살게 굴면서 그렇게 잘 생기고 똑똑했던 너의 큰 외삼촌을 반항한다고 우리 집 식구가 모두 보는 앞에서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달려드는 너의 작은 외삼촌마저 데리고 가버렸단다.”

엄마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 내렸읍니다.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단다. 갑자기 요란스러운 총소리가 탕탕탕 하고 들려 왔다. 6.25 사변이 일어난 것이다. 공산당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있는 대로 빼앗아 갔다. 사람들은 공산군이 유우엔군한테 쫓기어 도망 오고 있다고 수근수근 야단이 었다. 얼마 뒤 유우엔군이 공산군을 추격하면서 올라 왔다. 우리는 모두가 합성을 지르며 환영하였단다.”

가슴 조이며 어머니 말씀을 들던 나는 박수를 쳤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난민들 틈에 끼어, 너의 외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내려 오는데 갑자기 공산군 비행기가 나타나 ‘쿵’하고 폭탄을 터치는 바람에 너의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단다.”

어머니께서는 치마끝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으로 남으로 내려와 이곳 저곳으로 돌아 다니다가 결국은 너의 아버지를 만나 이곳에서 살게되었단다. 공산군에게 끌려간 너의 외삼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의 외할아버지의 산소는 누가 보살펴 줄 사람도 없는데, 한번 가보고 싶구나! 언제나 그 날이 올려는지?”

왜 어머니께서 가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고 노래를 부르셨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우스가 나왔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 공산당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 오기 위한 땅굴을 발견 했다는 뉴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워, 땅굴!”

하시며 눈을 크게 뜨시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놈들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두더지같이 땅속으로 쳐들어 올려고 하는구나!”

하시며 혀끝을 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몇개가 더 있을 것이라니 걱

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북괴놈들이 우리 집 방밑까지 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구나.”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방 방밑에서 공산당놈들이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금방 공산당이 방들을 들고 나타날 것만 같아요.”

그러자 엄마도 몸을 부르르 떨시며

“철천지 원수, 북한 공산당놈들만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슴은 떨리고 뛰었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공산당, 무장공비 말만 하여도 치를 떠셨는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소원을 이루고 외삼촌과 외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힘센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힘이 세다면 김일성이가 쳐들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보다 힘센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방위성금을 내기 위해 학용품을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어머니의 소원을 하루 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봅니다.

* 초등부 가작 *

북한에서 오신 할아버지

강 민 선

(서울 용산 6-6)

어느날 겨울아침 버스를 타려고 육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육교위에는 차디찬 겨울바람이 내 귀를 아프게하고 가방을 든 손도 시리어 왔습니다.

역 앞 계단으로 내려가니 계단 끝마다 눈이 녹지 않고 얼음으로 변해 미끄러웠습니다.

계단 제일 아랫쪽에 내려왔을때 나는 때묻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말 없이 손을 흔들며 고개를 숙이고 차거운 육교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장 한쪽 모퉁이 판자집에 외롭게 살아가시는 불쌍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좌석 버스를 타는 대신에 도시형 버스를 타면 하루에 10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나는 불쌍한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날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날도 나는 바지 호주머니속에서 10원짜리 동전을 꺼내 추위에 언 할아버지 손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께서 내가 보지않게 고개를 돌려 웃으셨거나 아니 아니면 눈물을 삼켰거나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니다. 그 날은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는 열음만 놓아있고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육교를 내려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니다. '엄마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엿습니니다.

'이제 오니? 줍지?'

'네. 엄마 나 짜장면 사줘요. 배가 무척 고파요'

하며 졸랐습니니다.

엄마는 시장가는 길이라고 하시며 나를 중국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니다.

엄마는 우동, 나는 짜장면을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니다.

그때 옆에 앉았던 어떤 아저씨 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서 육교 할아버지라는 말이 들렸습니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 듣는 것은 잘못이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니다.

그 할아버지는 북한에 두고온 자식들과 손자들을 그니워 하시다가 정신병이 났엿답니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그만 가엿게도 머리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미쳐버렸다고 했습니니다.

길을 지나시다가도 중학교 오빠들이나 언니들을 보면 영식아! 금순아! 하고 불러대고 한답니니다. 아마 할아버지 손자 이름인것 같다고 하엿습니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먹고 있던 짜장면을 할아버지께 갖다드리고 싶엿습니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엄마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짜장면 사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니다.

엄마는 이제

“민선이도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을 다하다니...”

하시며 이백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할아버지께 짜장면을 사드릴 것을 생각하니 그날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육교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점심 잡수세요”

하고 돈을 내 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시며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짜장면 잡수러 가세요.”

하자 일어서서 육교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나는 어제 엄마와 갔던 그 중국집에 할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짜장면을 드시면서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남북통일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순야」는 여름방학에 수영도 하고 곤충채집도 한다고 하시며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기다리세요. 걱정마세요. 꼭 그날이 올 거예요. 할아버지가 밤낮 그리워 하시는 손자 자식들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날이 꼭 올거예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암 통일외 날이 와야지. 이 땅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자유대란이 승리하는 그날이.....”

하시며 또 눈에 눈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나는 그 쓸쓸하고 외로우신 할아버지 아마에
주름살이 찌질, 아니 온 국민이 웃으며 금강산에 놀러갈 통일의 그날
이 오게 해 달라고 두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 초등부 가작 *

성철아, 통일을 하자

고 동 섭

(충북 청주 용담 6-1)

성철아,

너는 오늘도 백두산 근처의 어느 낯선 소나무에 기대
어 서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지.

정든 고향 옛집이 그리워 눈물 흘리고 있겠지.

할아버지께서 심은 마당 가의 커다란 향나무, 계절따라 갖가지 꽃들
이 피어나는 뜰 앞의 화단, 그리고 내가 뛰놀던 집 뒤의 언덕,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서 보고파서 울고 있을 너의 모습이 눈 앞에 선
하게 떠 오른다.

성철아,

너와 함께 고향을 떠난 철이네와 인숙이네는 어떻게들 지내고 있느냐?
유월달 진진 해에 배가 고파 누런 얼굴을 하고 쭉뚱리를 찾아

해메는 인숙이의 얼굴이 떠올라 나도 울었다.

성철아,

그곳 북한 땅에서는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노력동원을 하고 또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는데 한낮에도 늑대소리가 들린다는 백두산 끝짜기, 독사들이 우글댄다는 무성한 풀밭에서 몸이나 다치지 않았는지 근심이다.

성철아,

나는 오늘, 아버지를 따라 낚시터에 다녀왔다.

나는 물고기는 낚을 줄 모르지만 시원한 고속도로를 차로, 달려가서 송아지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잔디밭에 누워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기분때문에 공일날이면 곧 찰 아버지를 따라 나선단다.

돌아올 때에는 외삼촌 댁에 들러서 딸기랑 토마토를 실컷 먹고 온다. 우리 외삼촌 댁은 엄마가 시집 오실 때만 해도 무척이나 가난했었다.

그런데 온 마을이 누에치기와 고추재배를 시작하면서 부터 차츰 부자가 되어 지금은 빨간 함석지붕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서고 부엌에 수도꼭지까지 있게 됐다.

모두 합쳐서 30 집도 안되는 조그만 농촌마을이 밤이면 오색 전등으로 꽃밭처럼 곱게 보인단다.

엄마가 맥주 두병을 들고 외가에 가면 통일쌀 한 가마니씩을 차 뒤에 싣고 돌아오시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거야.

성철아,

너의 고향 집은 모란봉이 보이는 평양시 평천구역 봉내동이었지,

너의 할아버지가 부끄럽히 일을 하여 농토를 좀 마련하였고 너의

아버지가 조그만 상점을 경영하였다하여 자본주의자라고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너의 식구들이 쫓겨나니 정말로 공산당은 무섭고 또 무섭구나.

그런식으로 쫓아낸다면 남한 땅에 사는 사람치고 쫓겨나지 않을 집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산당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믿으면 반동분자라고 잡아 가고 오직 김일성이만을 믿게 하여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니 정말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미친 공산당은 소련과 중공에서 많은 빚을 져가며 비행기와 탱크를 사들이고 가난한 국민을 들볶아서 땅굴을 파게 하고 어린이와 노인들 까지 군사훈련을 시켜서 전쟁준비만 하고 있으니 결국 그들이 나라를 또 다시 피바다로 만들고 6.25 와 같은 잣더미로 만들 속셈이 아니겠느냐?

성철아,

우리 전쟁을 반대하자.

김 일성이의 전쟁계획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때려부수자.

바보 김 일성이는 월남과 라오스의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도 혹시나 그렇게 되거나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성철아, 그것은 절대로 헛된 꿈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성철아,

너는 강원도 평창 땅에서 죽은 이 승복 어린이의 최후의 말을 알고 있겠지. 성철아 공산당을 미워하는 너희들이 북한 땅에 살고 있고 이 승복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이 이 나라에 자라고 있으니 머지 않아 공산당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성철아, 우리 통일을 하자.

나는 도덕책 20과 '이사가던 날'에서 너의 얘기를 읽고 그 날 밤 잠을 못 이루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의 옛집을 찾아주고 싶구나.

성철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우리 힘을 합쳐서 공산당을 이 땅에서 몰아 내자.

그리고 평화통일 이룩하여 금수강산 삼천리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 가자. 너의 옛집을 찾는 날 서로 웃으며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만 줄인다.

* 초등부 가작 *

골짜기에 흐르는 물

김 은 희

(서울 성신부속5-2)

언제 부터 이 곳에 골짜기가 생겼을까?

끊일 듯 이어지는 골짜기의 물을 보며 나는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은 6.25 ! 25주년.

새삼 무엇인가 뭉클해지는 것이 자꾸 넓은 곳을 향해서 가고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나 컷가에서나 떠나지 않는 것은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6.25 의 이야기 입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미아리 고개는 한 많은 사연이 서린 곳이다란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산주의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이다. 잔인하고 악랄하고…… 그때 엄마는 미아리 고개를 거쳐 끌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 보지 못했단다. 손발이 묶이고 손톱사이에 바늘이 끼여진채……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들! 거기에 애타게 울부짖는 가족들의 애절한 소리가 더 한층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단다.”

어머니께서는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짧은 이야기속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들면 바라다 보이는 저 고갯길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니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펜스레 화도 나고 기운도 났습니다.

나는 다시 6.25 이야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중공군이 밭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꿈속에서 피신을 하라는 명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급히 온 가족과 함께 잠깐 피신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와보니 그 곳에는 커다란 폭탄이 떨어져 집의 흔적은 찾아볼 수조차 없으셨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몇번이고 그 곳을 돌아다 보시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평장히 안타깝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멀리서 들리는 동네 꼬마들의 6.25 노래 소리에 새힘이 솟았습니다.

이때 문득 생각 나는 것이 안창호 선생님의 힘에 관한 말씀이셨

읍니다.

힘은 기르면 생기고,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는 것 입니다.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골짜기의 물에 손을 씻으며 나의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골짜기의 물이 용솟음쳐 북녘 땅을 휩쓸고 시원스럽게 쏟아질 듯 했습니다.

온갖 시련을, 온갖 더러움을 다 거두어 가지고

나는 통일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을 좀 더 참되고 성실하게 꾸며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집안일에서부터 학교일, 마을일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라도 정성이 가득차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 길만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며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나는 골짜기의 물을 따라 내려오며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나의 마음과 몸이 성장하고 있음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 초등부 감상 *

토끼반도의 슬픔

김 지 현

(서울 청량6-10)

얼마전 부산항에 나라 잃은 설움을 온 몸 가득히 지니고 온 월남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나라 잃은 설움을 잘 모르지만 월남인들의 한없이 슬픈 광경을 볼때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며 절대 우리나라 자유대만을 저렇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 잘못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곳 우방에 온 불쌍한 월남인들.

그 반면, 내 나라 내 집 내 이불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잠자고 생활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니 나라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께서 일본의 통치밑에 있을 때 피까지 흘리시며 조국광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가로 우리는 지금 선조들의 피로 붉게 물들여진 이 땅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 못난 북한 공산당 놈들은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될 것으로 인해 이 기회에 우리나라를 빼앗으려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 곡곡에서 부흥의 노래 소리가 들리고 언제 어디를 가봐도 총화단결의 외침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저도 인도차이나 반도가 왜 전쟁에 참패 하였는지 그 대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국민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국가와 민족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유 우방국에서 도와주는 무기를 자기의 적인 공산당에게 팔고 돈을 받아서 자기 가족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다 합니다.

그 예로 미국 병사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륙하려고 할때 크메르 사람이 10만 달러를 주겠으니 자기를 도망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만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원 이라는 큰 돈입니다.

싸움에만 충실하는 병사라면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공산당 놈들은 이렇게 썩어빠진 크메르와 우리를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한 공산당 들에게 이기려면 아빠는 직장에서 엄마는 가정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한장의 종이, 한방울의 물, 손가락 만한 몽당연필이라도 살려쓰는 어린이가 되어야 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무나도 눈부신 발전으로 머지 않아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박 대통령 각하께서 실시하신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는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도박과 술타령만 하던 농어촌도 부패보다는 전진하기 위하여 한발 한발 나가며 밝은 미래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서독을 보십시오.

제 2차 대전때 참패한 뒤 국민들이 모두 한테 뭉쳐 지금은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잘사는 나라가 되니 동독은 싸울 생각은 커녕 창피해서 국경에 담을 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위해 힘써야 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 사람의 영도자를 따라 뭉쳐야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뭉치려 하는 때에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도망해야 안전할까? 하고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쟁이 난다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6.25 때의 공산당의 악독 무모한 짓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떳떳한 국민으로 며칠전 방위성금도 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온 국민이 방위성금을 내야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산당 놈들은 굶주린 늑대 처럼 으르렁 대고 있을 겁니다.

잘못 판단하여 쳐들어 온다면 요 기회다 하고 무찔러서 통일 시키고 남침 야욕을 들어내면 국민의 총화 단결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서독과 동독처럼 만들어 버리면 자연히 통일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멸공'이란 표어 아래 허리가 잘리워 슬퍼서 울고 있는 토끼 반도에 하루 빨리 자유의 꽃을 피워 활짝 웃는 토끼반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 초등부 가작 *

통일로의 소망

최 윤 선

(경북 경북사대부속 6 - 1)

햇볕이 화사한 꽃밭에선 해바라기가 방긋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저 북녘땅에서 허타를 굽히시며 일하고 계실 아저씨의 모습이 뭉게
구름 사이에 아물아물 떠오르는군요.

어젠 아저씨 생일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젠 부모님두 동생두 모두 울며 아저씨가 안계
신 쓸쓸한 방안에서 할머니와 케이크를 자르며 아저씨를 생각했답니다.

6.25 !

25년이 지난 지금 아저씨의 주름살도 많이 늘으셨겠죠.

전 아저씨의 얼굴도 모르고 다만 초상화와 사진, 그리고 부모님의 말
씀속에 잘때 마다 제맘속에 아저씨의 모습을 그려 보았어요.

어머니께선 그때 그 비참한 전쟁을 원망하시면서

“아유! 어서 통일로가 뚫려선 우리가족이 웃으며 금강산을 오르내리
며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휴……”

하시며 웃고름으로 눈물을 닦으신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우리가 슬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새마을 유신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굳게 굳게 뭉쳐나간다면
붉은 저 마수의 손은 꼭 푸른 태극기의 물결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아침,

마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를 보고 한 마리를 밟아보았더니
아 글썽 개미들이 모두 물러들어 그 다친 개미를 끌고 집으로 달려가
고 또 어떤 개미는 먹이도 구해오고 뜨거운 피약벌 아래서도 지친
몸을 이끌며 열심히 협동하고 일하는 모습을 볼때, 훨씬 훌륭한 지혜
와 환경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죽이고 싸우
고.....

조그마한 개미앞에서 우리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요. 얼마전 신문을 보니 미국에선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난다면 적극적
으로 도운다는 기사를 읽고

‘아무리 미국이라도 믿을 수 없어. 몇달전 월남사태..... 이제 월남
이라는 나라는..... 학교서 사회 공부시간에도 지도를 보니 ‘월남’
이라고 써여져 있는 푸른 글씨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구나
아! 그렇다. 우리 국토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지. 저 김일성에게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결의가 가슴속엔 울려요.

그리고 보니 수많은 북괴의 만행이 머리를 스칩니다.

틈틈이 무장간첩을 보내고.....

비행기를 납치하고..... 그들이 인간이라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숨진 어린 소년의 울부짖음도,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부모님의
웃자락을 잡아들며 배를 움켜 쥐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저씨!

전 우리 동포 모두가 태극기 앞에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글썽일 날
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랍니다.

저 3.8 선이 머지않아 뚫리고 웃으며 웃으며 이야기할 때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발돋움하는 우리 동포의 땀과 피가 짝 짝 평화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아저씨!

6.25 가 원망스럽고 북괴 김일성이 원망스러워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
겠어요.

그저 그저 입술만 꼬옥 깨물고 빌 뿐이랍니다.

저 통일로는 약속하고 있어요

동포 모두 모두 통일로에 서서 손잡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자유대한의
품 안에서 번영을 이룰 동포의 숙원을 이룰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이 한 소녀, 아니 5천만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꼭, 꼭……

♣ 중등부 글짓기 ♣

〈최우수작〉

○ 국토통일.....주 호 숙

〈우수작〉

○ 모래알.....송 병 수

○ 이 소리를.....김 경 은

○ 육탄 8용사의 전적지를 행군하고나서.....김 석 찬

○ 영화 아버지.....김 명 애

○ 멀공정신과 우리의 마음가짐.....김 혜 경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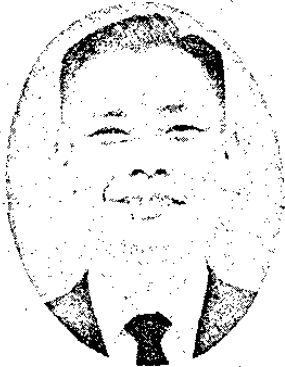
○ 해뜨는 나라.....박 정 숙

○ 우리의 자세.....김 계 화

○ 멀공과 평화통일.....정 기 보

○ 방위성금.....채 금 자

○ 총력안보 및 학생의 자세.....강 경 숙



심 사 평

어 호 선
(아동문학가)

예선된 33편을 분석해 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들은 이야기, 둘째 최근의 동남아 사태 비판, 셋째 반공정신 강화, 넷째 단결력 호소, 다섯째 멸공 다짐 등으로 되어 있다. 문체에 있어서는 슬회·논문·편지 등의 형식으로 나뉜다.

어떤 내용을 어떤 문체로 다루든, 일상 생활 경험을 통한 보고 듣고 느낀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의가 미흡했다.

양단된 국토에서 남침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그려 내기에 앞서, 울분 같은 흥분 상태에 빠진 것을 짐작케 한다.

그래서 주제가 흐려지기도 하고 구성이 산만하기도 하고 감정이 격하여 웅변조로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 중에 주효숙양의 <국토 통일>은 흥분하거나 격하지 않고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동남아 사태의 교훈과 대남 도발 행위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를 비판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라디오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알게 되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문장화할 적에는 체계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자기 나름의 정치관 같은 것이 서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글이 주위 모은 정치 상식 같은 인상을 주는데 비해 이 글은 매우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나름의 안보관 같은 것을 내세운 것이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게 한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저만 아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높은 자리에서 호소하는 자세보다는 자기의 일상 생활을 솔직하게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은 이번에만 한한 것은 아니다.

중등부 최우수작

국 토 통 일

주 호 숙

(서울 창덕여중 2-14)

얼마전에 열췌 신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다.

만화를 보려던 내게 첫눈에 들어온 것이 수레와 같은
기차에 딱딱따닥 엮붙어 매달린 피난민들이었다.

웬지 사탕 하나에 우르르 모여 옥신각신하는 듯한 재미
미를 연상시키는 사진이었다.



또 빼만 남은채 커다란 손잡을 입에 문 아이들, 놀랄만치 비참한 모
습들이었다.

나는 언젠가 전쟁이 나면 참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공부도 안하고 죽지 않으려고 피난다니는 것이 묘한 스릴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나라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볼때 어쩐지
가슴이 섬뜩해움을 느낀다. 다같은 인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면 상대방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잔인성과 자기만이라도 살아남으려는 삶에 대한 애착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동남아의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분단된 조국에 한층
더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크메르 루즈에 의해 론놀정권이 물러나고 크메르가 공산화된 사태나

월남이 월맹에 항복하고 수많은 피난민과 사상자를 속출하게 된 사태는 공산권과 대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 실로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위 17°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월남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후 계속해서 월맹의 위협을 받아왔고 국민들은 전쟁의 포성 속에서 시달려왔던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 원조와 군사력 보장이나 다른 우방의 군사적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능과 국민의 총화 부족으로 공산군에게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뼈아픈 사태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동남아시아에서 자기나라의 안보는 그나라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는 매우 실리적이며 냉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급한 사태에 처했을때 우리의 우방이 반드시 우리를 돕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 없으며, 거기에 의존하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겠다. 더구나 국제정세가 냉전체제에서 해빙 무우드를 타고 다극화 되어가자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중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가 자유중국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공과 수교하고 있는 것을 볼때 더욱더 "자국의 안보는 자국의 힘으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국내외적 정세속에서 과연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것일까?

8.15 해방과 동시에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3.8 선을 경계로 분단된 우리국토는 6.25 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피로 물들여져야 했고 중진국의 위치에 올라선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구석구석 스며든 것이다.

몇해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경제성장으로써 남과 북이 겨루어 보자고 제의 하셨다 한다.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국제정세와 발맞추어 군사적 대결은 가능한 한 피해 보자는 것이다.

그 첫 단계로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찾기운동'을 내걸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악이용하고 있으며,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땅굴을 판다거나 공비를 남파하는 등의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군사적 대결에 의한 통일이란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원치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서로가 피를 흘려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괴의 무력 남침야욕도 우리의 강력한 안보태세와 멸공의 정신 앞에 서는 위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군사력이 막강하고 현대식 무기의 정비 이전에 그러한 정신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국토통일은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경제적 문화의 성장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 그것은 우리가 36년간의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세계정세에 밀려, 해방이 된것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구사회가 긴세월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과 같이 많은 시련후에 스스로가 이를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결코 안이하게 강대국의 힘을 빌어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정부가 무능했던 월남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전체가 총화단결하여 전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한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술한 사회의 부조리와 비행이 없어지고 좀더 명랑하고 믿을 수 있는 풍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부패의 무력도발이라는 것도 우리사회가 불안정하며 부패할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부조리가 제거되고 진실된 분위기속에서 서로가 단결할 수 있고 더욱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한핏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이요,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닌 아름다운 백의민족이 서로를 희생시켜야 하는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전 세계가 자원난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전쟁을 하고있고 경제적으로 약하면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항상 강대국의 이용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의 국토통일은 한층 더 시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좀더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물론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국가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각국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없이 우리만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치를 잘 깨달아야 하겠다. 국민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한 책임감을 다할때 그것이 커다란 통일 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나라야 어찌되건 자기만 살기위해 위장이민, 재산도피등을 일삼는 반사회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버려야 하겠다.

또한 우리와는 전혀 풍토가 다른 서구사회의 풍조를 그대로 모방하는 퇴폐풍조는 사라져야 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시대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고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 서로의 단점을 충족시켜 줄 그것, 누구나 소원이라고 애타게 부르는 그것인 우리의 국토통일은 먼 산위의 뜬 구름을 잡는 식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중등부 우수작 *

모 래 알

송 병 수

(충남 대전 한밭중2-3)

우리 민족을 가리켜 다른 민족들은 흔히 모래알 민족이란 말을 쓴다.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잘 표현 했다고 한 까닭과 그들이 표현한 뜻에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들이 생각한 모래알 민족이란 우리 민족이 단결력이 없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내가 모래알 민족이라고 한 이유는 이것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 우리 민족 개개인은 무척 똑똑하고 슬기롭다. 이것은 다른 민족도 인정해 준 바이다.

그러나, 모래알은 서로 붙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단결력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 민족이 우리 보고 모래알 민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모래알도 서로 붙을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은 시멘트가 있어서 모래알을 잘 배합하여 붙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 민족도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 본 전제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위기다. 왜냐면 우리 민족의 옛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아무리 어지러웠어도 큰 위기를 맞으면 서로 단결하여 그 위기에 대처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첫째 이유로 위기를 들었다.

둘째는, 훌륭한 지도자다.

그러나 이 지도자의 조건은 훌륭히 해결 됐다고 본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각하께서는 10월 유신을 펴서 새로운 유신 헌법을 만드시고 또한 새마을 운동을 해서 농촌도 도시 못지않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셨다.

나는 이상의 두가지를 시멘트에 비교해서 설명했다.

우리는 옛날의 모래알이 아니다.

이름은 옛날과 같은 모래알이지만 몇십배 몇백배 단단한 새로운 모래알이 된 것이다. 지금부터 10여일 전으로 기억한다.

친구들과 놀다가 조금 늦게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가보니 형은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니 6시 40여 분, 옷을 벗고 텔레비전앞에 앉았다. 앉아서 조금 텔레비전을 보려니까 벌써 7시 뉴우스 시간이다. 나는

“에이, 재미 없는 거구나! 텔레비전을 꺼야겠군.”

막 텔레비전을 끄려는데 형이

“끄지마! 어쩌면 중요한 내용이 있을거야”

나는 형의 말을 듣고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뉴스 내용중 가장 재미있게 듣고 또 감명깊게 본 장면은 쫄기
내용의 장면이었다. 손에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고래 고래 소리치며
외치는 분노의 함성, 증오의 함성, 좀 더 감정이 격한 사람은 서슴치
않고 손가락을 자른다.

저 피 피 피!

저 애국심에 불타있는 한 민족의 피!

내마음이 자꾸 들떠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 지는것을 도저히 억제
할 수 없었다.

아! 내 이 조그만 가슴에도 이처럼 애국심이 있었던가 애국심이...

.....

저 모래알들의 함성이 컷전을 때린다.

“병수야. 어때 바로 남들이 단결할 줄 모른다고 비웃던 모래알들의
함성이란다.”

형의 얼굴에도 흥분한듯 홍조가 띠다.

뉴스가 끝나고서도 나는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민족의 믿음직함,
우리 모래알들의 함성이 컷전을 울리는 것을 느꼈다.

“병수야 어때 감명 깊었지?”

언제 오셨는지 삼촌이 나에게 묻는다.

나는 가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래알민족이 저렇게 단결할 때도 다 있군. 하하하.”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신 삼촌은 조금 사이를 띄었다가 정색을 하시며

“우리 민족이 이처럼 굳게 단결한 예는 극히 드물단다. 병수야 너 이번 우리 민족 단결의 가장 큰 목표가 뭇인지 아니?”

나는 잠시 생각을 했으나 떠오르지가 않았다. 그때 형은 “멸공통일”이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때 나의 머리를 스쳐가는 한 영상이 있었다. 며칠전에 선생님께서 멸공이라고 쓴 종이를 주시면서 가슴에 달라고 하신것, 이제는 학교에 까지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불길이 퍼진 것이다.

“병수야 너 무엇을 생각하니?”

형의 물음에 나는 깊은 감동에서 빠져 나왔다.

“공산당을 몰아내고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해 단결하면 일본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삼촌, 이 멸공통일의 불길은 계속 되나요?”

나는 이렇게 삼촌에게 질문했다.

“그럼 우리 민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제 까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단다.”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번에야말로 우리 모래알 민족의 저력이 나타나겠지.”

그렇다.

멸공통일의 불길은 올랐다.

단결할 줄 모른다는 우리 모래알 민족의 가슴 가슴 속에………….

우리 모래알 민족은 훌륭한 시멘트를 얻은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와 나라의 가장 큰 위기………….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한 우리 모래알 민족은 기여코 멸공

통일을 이룩하고 말 것이다.

별공통일을

* 중등부 우수작 *

이 소 리 를

김 경 은

(서울 정신여중3)

창 밖에서는 보슬비가 내린다.

흐린 날씨다.

전철을 타고 하여튼 오래 달린것 같다.

오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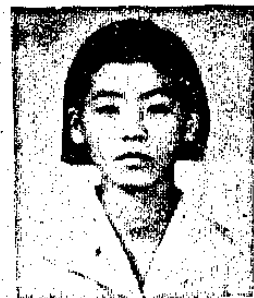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멀리 나온 것이다.

전철을 내려 15분 가량 걸었다. 걷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항상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다.

먼저 원호 교회로 들어갔다. 목사님의 주의말씀을 듣고 10명씩 짝을 지어 한 총씩 말기로 했다.

병실이 있는 건물로 가는동안 그 재깘대던 많은 얘기들이 사라지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다. 침대에 누어있는 환자들.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링겔 주사를 맞으며 힘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우린 명랑하게 말씀드렸다.

*안녕하세요? 정신 여중에서 위문왔어요. 노래. 무용 준비했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아저씨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곤 기뻐하며 휠체어에 타셨다.

내가 맡은 한 아저씨 두 다리가 없다. 휠체어를 밀기에 열심인 나를 도우시려 바퀴를 손으로 돌리신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밀수 있어요.”

아저씨는 그제야 손을 바퀴에서 떼시고 말씀하셨다.

“멀리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지?”

“전철도 타 보고 좋은 경험 하는 걸요.”

아저씨는 월남에서 부상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신다.

교회에 아저씨를 모시고, 친구들이 모셔온 많은 아저씨들을 본 나는 놀라움과 눈물이 남을, 견딜수가 없었다. 6.25 때 부상을 입고 내내 이곳에 계시야 하는 아저씨, 월남전에서 복부 관통을 했다는 아저씨, 눈을 잃은 아저씨……, 원호 병원은 너무나 많은 아저씨들로 꽉 차있었다.

내일 모레는 25돐 맞는 6월 25일, 6.25. 이 많은 희생을 눈앞에 보면서 난 두 손을 꼭 잡았다.

‘전 나이가 어려 25년전 그 전쟁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는 따위의 말이 감히 나올수 없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뜨거운 눈물이 솟는 것이다.

거리를 걸으면 유난히 눈에 띄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곳에 한 번이라도 와 보았을까?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선두에 나섰던 많은 사람의 신음 소리가 오늘도 끊임없는데 방위성금을 낸다. 반공 웅변을 한다. 쫓기 대회를 한다.

행사는 많지만 진정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일까? 화려한

번화가를 칭 바지에 장발을 하고 나다닐 수 있을까? 공산당의 만행에

감상적으로 눈물이나 흘리고 흥분에 떨며 소리나 지를 수 있을까?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향수에 젖어 있어야 할까?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전철 속엔 사람이 조금 많은 편이다. 대학교 뺏지를 외젓하게 단 서너사람이 떠들어 댈다. 교련복을 입은 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회꼇한 머리의 아저씨가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열심히 들여다 보신다. 어느 아주머니가 꼬덕꼬덕 즐고 있다.

난 이 여러가지 형태를 보면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다.

“여보세요. 원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구석에서 떠들어 대는 대학생들. 데모는 도대체 왜 했는가?

어른들의 각성을 요구하면서 왜 자기 자신들은 각성하지 못하는가?

북한 땅 저곳은 4살난 꼬마마저 총을 잡았는데 우리의 땅에서 어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동대문, 남대문시장 구석구석 외래품이 나돌고 그것을 샀려고 부인들은 한나절 집을 비우고 여고생들은 교련을 하면서 얼굴이 탄다고 말이 많고... 얼굴이 있는 후에 나라가 있고, 외래품이 있는 후에 국가가 있는 것일까? 어리석은 어린애의 물음이라고 탓하기 전에 어른들은 대답을 행동으로 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질문을 '어린애들이...'로 마무리 지으려 하시는 어른들에게 정말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다. 청바지의 긴 머리 친구들에게 정말 이유를 듣고 싶다.

36년간 압박에서 애써 되찾은 이땅. 전쟁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겨우 찾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할 일을 찾아야 하고 또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오빠, 어머니에게 들은 옛 이야기, 거짓말같은 사실, 피로 물들었던 한강, 강 기슭의 입자없는 손, 입자없는 팔, 다리들. 우리들은 얘기를 듣고 비명을 울리며 얼굴을 감싸쥐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오빠들은 아가, 이렇게 슬펐단다 로 끝나야 하는 것일까? ... 그러나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다. 재잘대던 여학교 교실도, 우지끈 툅툅하던 남학교 교정도, 타이프 소리 요란하던 사무실도 크락손소리 요란했던 거리도 싸이렌 소리에 엄숙해지고 조용해진다. 2번째 싸이렌이 울리고 공습 경보라는 것발이 올라가면 더욱 진지해진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 보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

우린 우리 나름대로 성실히 걸은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조금씩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게을리 걸기도 하였지만 새마을의 새로운 노래와 함께 농촌과 도시의 서먹서먹한 벽은 무너져 버렸다.

유신을 부르짖는 우렁찬 목소리아래 정치인도 시민도 모두 모였다.

우리는 자꾸만 쌓는 중이다. 튼튼한 자유 민주주의의 탑을. 바다 건너 먼 나라를 의지하지도 않고 이웃 나라의 힘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밝고, 높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우리의 믿음직스런 이 흙을 밟고 서서는 열심히 뛰고 달릴 것이다,

월남? 베트남?, 우린 보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 땅에서 절대로 없을 것이다. 떠나려는 남의 배를 아귀 다툼하여 타려누 비극도, 순식간에 아이 셋을 바

다로 떨어뜨린 어머니의 슬픔도, 맑은 눈동자 또르르 굴리며 나
라를 뺏긴일도 모르는 천진스런 슬픈 현실도.

아, 어느 새 구름이 걷혔다. 이 부푼 희망을 품은 소녀의 머리에
떨어지던 비도 그쳤다. 병실의 까운을 입은 아저씨들이 보인다.

“통일만 된다면! ……” 의 간절한 모든이들의 소원, 그 아저씨들의
소원. 곧 이루어지리라.

“통일이 됐다”의 소리와 함께 아저씨들의 웃는 얼굴이 보인다.

팔은 없어도, 다리는 없어도, 세상을 보지는 못해도 아저씨들은 막
기뻐하실 거다. 모든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원호 병원으로 달려 가리라.

그 커다란 염원을 위해 오늘 하루도 아! 시작이다.

조국이 있고 내가 있고, 조국이 있고 내가 있고…….

이 말을 꼭꼭 씹어 되새기며

* 중등부 우수작 *

육탄 8용사의 전적지를 행군하고 나서

김 석 찬

(강원 홍천 두촌중 3-1)

뽕오얀 안개가 자욱한 속에 붉은빛 아침해가 등실 솟
아 오른다.



오늘은 우리학교의 전력증강의 하나인 행군의 날이다.

다시는 6.25 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서 저마다 열공정신을 다짐하는 뜻에서 한사람의 결석도 없이 전원
행군대열로 들어섰다.

행군 코오스는 저 유명한 육탄 8 용사의 전적지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말고개로 왕복 24 km이다.

지금부터 25년전 북파는 미명을 기해 이곳 말고개까지 탱크를 앞
세우고 물밀듯이 남침하였다 한다.

이때 육탄 8 용사들은 안타까움과 분통이 터져 육탄으로 굴러오는
적의 탱크에 기어올라 차례 차례로 적의 탱크를 부수고 전원 전사했
다 한다.

나는 묵묵히 이길을 걸으며 바로 25년전 38선이 지척인 이 길로
적의 탱크가 쇠사슬 자국을 남기고 지나 갔을걸 생각하니 어쩐지 가
슴속에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다시는 이길을 붉은 이리같은 공산 도배들이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
고 굳게 다짐하며 씩씩하게 앞으로 앞으로 걸어갔다.

행군을 함으로써 체력이 단련될 뿐만 아니라 반공 정신이 양양되며
단결력과 투지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남녀 학생 400명은 길 양쪽으로 대열을 지어 호각소리에 발
을 맞추어 씩씩하게 걸어나갔다.

하늘 위에서는 새들도 우리의 행군을 축복해 주는 듯이 지저귀며
날고 있다.

환갑이 얼마 남지 않으신 교장 선생님께서도 뚱뚱한 몸에 비해 학
생들 보다 질세라 부지런히 걷고 계셨다.

휴식도 없는 강행군에 햇볕은 사정없이 불벌처럼 쬐고 온몸은 어느

땀 땀에 흠뻑 배어 옷은 물결레처럼 되었다.

길옆의 가로수들도 잎이 상심하게 기운을 자랑하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시간의 강행군으로 목적지인 말고개에 이르렀다.

문득 옆을 보니 급우의 상기된 얼굴과 땀에 젖은 복장의 차림새가 능름한 국군 용사처럼 보였다.

바로 우리가 닿은 이 고개에서 육탄 8용사 들이 맨 몸을 날려 육중한 탱크 위로 폭탄을 던지고 장렬히 전사하였으니

아! 장하다. 대한의 남아요 그 의기가!

나는 그 당시의 광경을 생각해 보며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 오고 콧등이 시큰해 움을 느낄 수 있었다.

풍우 25년의 세월속에 아직 육탄 8용사의 전적비가 없었다니 나는 영령들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금년에 강원도에서는 이곳에 전적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껍이나 다행이다.

누구나 이 길을 지나치는 사람이면 그 날의 광경을 생각하고 옷깃을 여미고 묵상에 잠기겠지.....

잠시 휴식후에 이곳이 고향이시고 공산당의 만행을 지켜보신 반공당 당 홍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

우리들 모두는 공산당의 잔악상을 듣고 몸서리 쳐지며 치를 부르르 떨었다.

발아래 굽어보니 절벽 공산군 탱크를 굴러내린 낭떠러지 밑에는 푸르른 북한강의 불굽이가 그 날의 일을 증명하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때도 저 북한강은 말없이 민족의 불행한 한토막의 비극을 삼킨채

도도히 흐르고 있었겠지.

그러나 북한강은 38선 접경으로 인해서 역사의 증인으로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날의 악몽을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라고 여울물 소리는 슬피 울고 있구나!

다음은 영어과 목 선생님으로부터 반공 강연을 들었다.

목 선생님의 형은 6.25 당시 꽃다운 나이인 열입곱의 중학생으로 학도병으로 자원하여 펜을 쥐고 대신 총을 잡아 군번없는 용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산화 하셨다 한다.

뿐만 아니라 목 선생님 숙부님 역시 학도병이 되어 호국의 이슬로 사라 졌다며 말끝을 흐리시고 목이 메어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눈시울을 적시고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끈 쥐어 졌다.

나는 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학도 호국 영령들이 피를 흘리며 쓸어쳐 갔던가를!

마지막 숨을 거두며 본 조국의 푸른 하늘과 생각나는 부모와 정든 학교의 선생님과 급우의 얼굴!

지금 만일 또다시 복피가 남침 한다면 우리 모두는 비장한 각오로 적의 탱크라도 기어올라 배려 부수고야 말리라고 크게 다짐하였다.

전날 우리의 선배들이 죽임으로 지키던 마음과 자세로!

오후엔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나뭇잎들도 축 늘어졌다.

오늘이 6월 20일, 6.25 사변 발발 25돐이 되자면 아직 닷새가 더 있어야 한다.

북괴는 6.25 남침 음모를 숨기기 위해 철저히 위장 하였다.

이것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였고 위장 평화 속에는 전쟁의 두 잇발이 숨겨진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전선은 결국 적화통일 밖에는 없다.

어떤 감언 이설도 받아 들일 수 없고 오직 공산당과는 힘은 힘으로 대결하는 수밖에 이길 길은 없다.

그러자면 우리 국민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국력을 기르고 그에 못지 않게 국력을 기르고 그에 못지않게 국력을 조직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이가 진정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주창하신, 전쟁준비를 접어 치우고 민족의 양심으로 돌아가 남북 평화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오후 2시 행군에 참가한 학생들은 묵묵히 되돌아오면서 육탄 8용사의 호국 정신을 가슴에 아로 새겼다.

지난 6월 25일도 이처럼 농촌은 평화에 고요가 깃들였으리라. 온 산 온 들은 푸르름에 덮였고 동방에 의지국을 자랑하던 우리 배달 민족은 풍년가를 부르며 모내기에 한창 바빴으리라.

평화의 나라 대한 민족을 침범한 북한 공산당은 마땅히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단일 민족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으로는 김일성의 살인마 행각을 민족의 이름으로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호국영령 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가셨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그분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땅위에 찬란히 반짝이는 못별들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다시는 이 땅위에 김일성의 남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나는 오늘 24 km의 행군을 하면서 내가 흘린 조금의 땀이 반공정신을 양양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생각하며 학교에 귀교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다시 한번 멸공 통일외 다짐을 새롭게 하였다.

우리는 한 사람의 낙오병 없이 더구나 여학생까지 24 km의 강행군을 하고 나니 원기 왕성해 지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이번 행군에서 우리의 멸공정신과 반공행열이 끝없이 이어지고 꺼짐이 없이 온 국민이 굳게 뭉쳐 죽을 각오로 내 조상이 묻힌 이 강토, 내가 나서 자라 묻힐 이 강토, 내 후손들이 억만년 번영할 이 땅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사수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호국을 위해 먼저 가신 육탄 8용사의 거룩한 죽음은 영원히 역사에 사는 길임을 명심한다.

“조국이여! 겨레여! 내 젊음을 받으소서”

외치며 먼저가신 호국 용사의 길을 힘차게 힘차게 나아 가련다.

* 중등부 우수작 *

영희 아버지

김 명 애
(강원 홍천여중 1)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 뒷집에 영희라는 아이네가 이사를 왔다. 서울에서 살다 왔다는데 그의 아버지는 두 눈을 잃어서 늘 짙은 검은색 안경을 쓰고 계셨다.

새로 이사를 와서 늘 혼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서먹서먹 해 하는 것이었다.

그런 그 아이가 나는 바보 처럼 생각 되었다.

그러한, 그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비교 하여 보았다.

'그아버지에 그딸.

나는 신기한 것이라도 찾아낸 듯이 혼자 웃었다.

그후부터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병신의 딸이라고 놀려댔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눈먼 병신이라고 여러 친구들에게 퍼친 것도 아마 나 때문이었을 게다.

그 아이는 무척 친구를 갖고 싶어 하였지만 병신의 딸이라고, 아이들은 같이 놀려하지 않았다.

바로 앞뒷집에 사는 나와 친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거들며 보지도 않았다.

어머니께서 집에 계실 때 그 아이가 놀러오면 하는 수 없이



" 들어와. "

하고 같이 놀아 주는 체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 너희 집에 가. 너희 아버지는 병신이지. 너희 아버지와 같이 놀렴. "

하며 그 아이를 몰아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훌쩍거리며 돌아서 가곤 하였다.

어느 때는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시고

" 그 아이가 왔더니 어디 갔니? 같이 잘 놀아야지. 그 아이의 아버지는 6.25 때 공산당과 싸우시다가 두 눈을 잃으셨단다. 겨레와 나라 위해 두 눈을 바치신거야.

그러한 분을 도와 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야 해. "

하셨다. 나는 잘 놀아 주는 데도 그냥 가더라고 저짓말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6.25를 며칠 앞두고 텔레비전에서 6.2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흥미없는 프로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리려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께서

" 그냥 나뉘요. 6.25에 대하여 나오는데 훌륭한 반공 교육이 될 터이니 잘보고 들어뉘요.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될 거야요. "

하시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무심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오셔서 실제 6.25 때 겪은 이야기를 하셨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공산군과 대항하여 용감히 싸우시다가 자기와 가장 친한 아저씨께서 적의 탄에 맞아 싸움터에서 돌아가시었다 한다.

그러하여, 친구의 몫까지 싸우겠다고 목숨을 내걸고 대원들이 굳게 단결하여 용감하게 싸워 고지를 점령 하였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 모두 6.25의 그 교훈을 잘 알고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오지않고 공산군이 우리를 알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력을 기릅시다.

그리고, 6.25때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때서야 6.25와 같은 크나큰 민족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하지, 하며 용감하게 싸우시던 영희 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머리속에 그려보며

'떨공 또 떨공.'

하고 작은 가슴에 다짐해 보았다.

내가 그 아이를 알보고 놀리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훌륭하였는가 새삼 느껴졌다.

나는 영희네 집으로 갔다. 영희의 아버지도 계셨다. 그 아이는 내가 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나는 조용하게 다정한 말로

"영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 하였어. 6.25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훌륭하셨다는 것을 새삼 느꼈단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말하니까 그 아이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고 말끝을 맺지 못하며 볼 위로 두줄기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께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하니까 아저씨께서는

“아니다, 괜찮아. 학생은 이 나라의 기둥으로서 25년 전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위에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이 나라의 일꾼이 되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날, 나와 영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자고 무언의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나와 그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듯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쳐부수자. 북피군! 이룩
하자. 유신과업!”

하고 합창을 하듯이 외쳤다.

* 중등부 우수작 *

멸공정신과 우리의 마음가짐

김 혜 경

(경북 영덕 남정중 1-3)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셔서 그 날따라 저녁이 좀 늦었다. 배가 고파 빨리 밥을 먹자고 졸랐는데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곧 아버지가 오실꺼야. 응? 조금만 참으면 돼."



하시며 연방 마당쪽을 보시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좀 늦은 저녁이라 난 정신없이 밥을 퍼 먹고 너무 먹어 썩썩거리며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잠이 소르르 올려는데 갑자기

"야! 또 큰일났네"

하시며 무엇이 갑자기 '딱' 하는 소리 같더니 라디오의 소리가 더 커졌다.

"북한 피뢰 집단이 땅굴을, 많은 간첩과 휴전선 근방에는 완전무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피뢰 집단은 온갖 수단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는 라디오 소리에 나도 잠이 싹 깼다.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땅굴은 무슨 재주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나 마나 뭐 뻔한 사실이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많은 사

람을 동원 시켜서 땅 밑으로 두더지 같이 기계를 이용해서 땅을 파 헤치면서 남으로 남으로 파 내려 왔는지 뭐 "

라고 말하니까 동생이

"엄마 전쟁이 나면 어때?"

라고 물었다.

동생의 말에 내가

"야, 이 바보야 넌 전쟁이 나면 어떤지 그것도 모르니?"

하고선

"전쟁이 나면 사람이 많이 죽고 집에서조차 살수없고 엄마 아버지도 잃게 돼. 이런 것이 바로 전쟁이야 이젠 알겠니?"

했다.

동생이

"그럼 우리는 막 도망쳐야 하고 어머니를 꼭 잡고 다녀야 하겠지?" 해서

"다 도망만 가 버리면 우리나라 누가 지키고....."

나도 모르게 학교서 시간마다 선생님이 하시는

"나라없는 설움" "민족없는 슬픔"

이 얼마나 큰 지 모른다는 말씀이 생각 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밤이 이슥해서야 잠을 잤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은 모두 군데군데 모여서 땅굴 이야기 때문에 야단들어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이 땅굴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다. 수업시간 같으면 장난치고 주의 깊게 듣지 않던 애들도 어쩔 일인지 그 얘기엔 하나같이 모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 * * * *

그리고 며칠 후

학교 운동장에서 뿔공 쥘기 대회가 열렸다. 수 많이 모인 인파들 속에 나도 끼어 있었고 전교생이 전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었다.

3학년 언니가 구령대 위에 올라서서 북한 공산당의 옳지 못한 행위를 타도 할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뜨거운 열기가 흥분을 몰고 왔다.

나도 모르게 구호문을 따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이 때의 우리나라에는 어느 곳 할곳없이 방방곡곡에서 쥘기 대회가 열렸다.

나는 서울에서 열리는 쥘기 대회를 들으니 6.25 때 다리를 잃은 군인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다리는 비록 끊어져 나가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입과 손이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 할 시는 이 몸으로라도 전쟁터에 나가 기어서라도 나가서 손에 총을 들고 북한 피퇴군과 싸우겠다."

하셨다.

이 얼마나 가슴을 저미게 하는 훌륭한 말씀인가.

이 군인 아저씨의 말씀은 전파를 통해 방방곡곡 어디에 들리지 않았던 곳은 없으리라.

들으시는 분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듣고 계실까를 생각해 봤다.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북한도 우리 동포인데 어찌하여 한 겨레가 서로 원수여야 하는 전가!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군인 아저씨와 같은 나라를 위한 마음,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를 본받아야 한다. 쥘기 대회때의 나의 흥분이 결코 헛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명랑하고, 밝은 국가가 되도록 힘쓰자는 뜻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너도 나도 총력안보의 태세와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 중등부 가작 *

해 뜨는 나라

박 정 숙

(부산 동래여중 3)



"야. 너거편 빨갱이 해. 우리편 국군 하께."

"싫어 임마 너거가 공산군해. 왜 우리보고 나쁜놈 하라는 거야."

"괜찮어, 이걸 장난인데 뭐. 그러니까 너거가 해."

"싫어. 우리보고 공산군 하라면 우리 인제부터 너네

들 하고 안 놀아. 애들아, 우리편은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하고 횡하니 가버린다.

말을 시작한 애만 점연적어서, 뒷통수만 굽적 거리다가 그 애도 만 애들의 눈총을 받으며 어디론가 가버린다.

아마도 만 애를 포섭(?) 하러 가는 거겠지.

오랜만에 학교를 일찍 파한 토요일 오후 집 앞 골목에서 본 광경이다.

이제, 예닐곱살 밖에 안된 애들이었다.

그때는 그냥 어린애들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다.

이런 광경은 조그만 어린애들이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별로 어렴잖게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 시간에 크메르 사태에 대한 말이 나왔다.

또 잇달아 월남전 상황, 크메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무슨 숙청 사업이 전개 중이라니, 또 월남 난민들을 수송하는 배가 길질을 잃고 있다느니, 하는등의.....

그러자 문득 낮에 보았던 일이 생각났다.

물론 어린애들의 전쟁놀이가 어제 오늘에 시작된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뭔가 석연치 않았다.

우리는 어릴때는 공산군을 미워하며 가끔씩은 머슴애들의 전쟁놀이에 끼어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애들이 정말 공산당의 나쁜점을 알고서 그러는 걸까?

그 중의 어느 한 아이를 잡고

"어째서 공산군이 나쁘니?"

하고 물으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내 추측이긴 하지만 열에 아홉은

"6.25사변을 일으켜서 우리를 못살게 굴었으니까"

하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그게 틀린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무턱대고 공산군은 나쁘다 나쁘다 하는 것만 어

른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려준다.

25년 전의 그때의 이야기를 마치 지금의 일인양 신나게 들려준다.

그들이 그 참혹한 전화 속에서 살아 남은게 무슨 큰 위대한 업적이
라도 되는 양.

마치 저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될 수 없다.

저들은 온 힘을 전쟁의 준비로 기울이며 전쟁, 적화 이외에는 아무것
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것도 옛날처럼 무조건 무턱대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로써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저들은 인도차이나 사태에서 또 월남사태에서 자신을 갖고 한국도 문
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김 일성이 중공을 방문하고 회담을 가지는 등 우리의 자유를, 민주주
의를 점점 위협해 오고있다.

물론 우리의 우방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월남사태에서의 미
국의 그 냉정한 처분을 볼때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뭐니뭐니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 국
방만이 우리의 위치와 한반도가 안전해 질 수 있는 최대의 길이다.

요즘엔 반공 결기대회를 한다 뭐다해서 부쩍 반공 정신이 투철해지고
있다.

물론 그 정신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이 바
탕이 되어서 우리가 자랐을때 나라를 위하여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원동
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투철한 반공정신으로써 저들의 허황된 생각을

단번에 파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겠다.

지금은 1975년이지 1950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 이외에는, 우리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일을 진정으로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처많은 지난 역사를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의 군사가 겁쟁이였던 것도 아니다.

또 지역적으로 너무 불리했던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론통일'이다.

조선시대의 그 치열한 당파싸움, 서로가 죽이고 혈뜯고, 자유당 시대, 또 그 이후의 정당싸움, 부정투표, 이 모든 것,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부끄러운 과거를 거울삼아 우리의 시대에는 또 우리 후손의 시대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국론을 통일시켜야겠다. 모든 사상을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해야겠다.

우리의 현 상황을 잘 알고 모든 힘을 국방에 쏟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이며 목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뭔가 조금씩 비틀게 인식되어 있는 공산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 주어야겠다.

좀 더 자세한 지식, 정확한 지식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 주어서 자유의 소중함과 통일의 필요성을 심어 주도록 해야겠다.

우리 조국 한반도의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희망과 자산을 가지고 모든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서 동방의 해 뜨는 나라답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이 탄생되도록 하자.

* 중등부 가작 *

우 리 의 자 세

김 계 화

(충북 제천여중 2-5)



4월 29일 저녁 8시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앞에 앉았더니 안방에서 유난히 크게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침 수학 공부를 하는터라 신경질이었다. 그래서 후다닥 안방으로 갔다. 아버지께서 라디오를 듣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께

“라디오 좀 작게 틀어주세요!”

하고 말하자 아버지께서는

“쉬, 떠들지 말아라 지금 박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신다”고 하시면서 너도 이리와서 같이 듣자고 하셨다.

산 지가 15년이 넘어 고물이 다 된 우리 라디오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열심히 박 대통령 각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나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알수가 없었다.

그래서, 특별 담화가 다 끝난후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한것을 대략 간추려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잘 모르겠니? 그럼 내가 요약해서 말해주지”

하시면서 박 대통령 각하의 특별 담화 줄거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북
괴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오판을 해서 무력 남침을 해 온다면 오직
스스로 멸망하는 자멸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현대 무기로 무장한 60만 국군이 있으며 250만 향토 예비
군이 있고 반공, 멸공 정신으로 굳게 뭉친 3500만 국민이 있다.

우리는 총화로 단결하고 국론을 통일하여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
다.

자기 나라는 자기 자신이 지킨다는 결의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북괴는 인도지나 사태에 크게 고무되어 무력 남침을 하면 자기
네들도 이길 것이라고 즉, 한반도를 적화 통일 하는데 성공 할 것이라
고 믿고 있단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관,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으로
대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화요.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는 길
임을 거듭 강조하셨다.

나라를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한치의 땅도 적에게 양보해서
는 안된다.

온갖 어려움을 참고 극복해 가며 피땀흘려 건설한 이 땅!

조상의 뼈가 묻혔고 내가 자라온 곳 이기에 길이 후손에 물려줄 것
을 왜 양보하고 뺏겨야 하는가?

내나라 내고장 내산천을 내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키고 가꾸어
야만 한다 하고 이야기를 다 마치셨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방으로 와서 골똘히 생각을 해 보았

다. 월남과 크메르의 사태에 관해서.....

베트남이 공산당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이 단결되지 못한데 있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제각기 자기 고집만 부리고 서로 협조하고 협동해서 나라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산에 온 월남 피난민 중에는 돈이나 금덩이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즉,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고 보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큰 원인 일 것이다. 또, 군사 원조와 무기 같은 것들을 미국 원조에만 의존했다는 점이다. 자주 국방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월남과 크메르는 멸망하여 공산당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저들을 누가 이토록 참혹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나는, 모두가 자기 같은일에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웠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힘이 없어서였다.

모두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할것은 물론 나에 앞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소소한 개인의 이해나 감정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총화로 단결하고 총력 안보로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

일전에 이화여대 김 옥길 총장님께서도

“나라가 없어지면 진, 선, 미의 꽃을 피울 화단이 없어지며 각자의 행복의 터전이 무너지고, 자유 민주주의도 생각 할 수 없게 된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사소한 개인간의 이해를 떠나서 높은 차원의 미래를 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서 단결하면 우리의 생활이 월남의 그것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느꼈다.

월남 공산군의 침략에 자유 월남의 땅에 백기가 꽂히던 날, 그곳의 대학생들은 대한 민국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다.

“우리에겐 저 백기가 의미하는 항복뿐이다. 우리는 학교가 있으나 나갈 수 없고 가족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주 현재로서는 암담하다. 자유의 세계가 그림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월남 대학생의 말로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6.25 비극의 과오가 있습니다. 또, 다시 비참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야 없지 않을까요.

왜냐구요?

그것은 공산당 치하에서의 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야 했고 집과 재산을 빼앗겼고 파괴와 약탈과 잔악한 행위를 겪었기 때문이지요.

한국 사람은 개인 경기에서는 우승을 하는데 단체 경기를 못 한다는 말을 늘 들어 왔습니다.

개인 경기는 혼자서 하니까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단체 경기는 여러 사람이 시합을 해야 하므로 훌륭한 기술은 단합이 되지 않아서 결국 시합에 지고 만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시합을 하는데 단결이 잘 된 팀은 승리할 수 있고 단결이 안 된 팀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자유팀과 북한의 공산팀이 지금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팀은 선수들끼리 서로 싸우고 혈투하고 있습니다. 북한팀은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공을 물고 씹습니다. 자유팀은 다시금 선수들의 위치를 재정비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화이팅을 외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시합에서 지고 맙니다. 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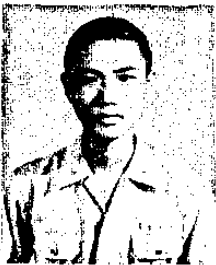
단결합시다. 그러곤 이깁시다.

* 중등부 가작 *

멸공과 평화통일

정 기 보

(경남 김해 가락중 2-A)



세계 유례없는 김일성의 전쟁위협과 협박을 받아오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 뚜렷한 목표하에서 강력한 정신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변모하고 있다. 특히 약소민족에게는 위압을 주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가 여기에 대처하고 값진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능동적 자세와 진취성을 갖는다. 또 현재보다 미래를 위주로하며 희망에 찬, 그리고 알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값진 삶을 파괴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이 곧 공산괴뢰이다.

해방후 국토분단도 억울했지만 6.25도발을 서슴치 않았고 휴전후 간첩을 남파시켜 우리의 평화통일을 방해했을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학살을 일삼았다.

이에 우리는 자비와 인도적 방법으로 대처했으며 비 인도적인 그들의 행위를 규탄 했으나 금수외도 흡사한 그들에게 우리의 규탄이 반영될 수는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 불의의 과거를 깨끗이 씻고 경제개발에 힘을 기울여 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시켰으며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역점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유선체제를 확립하여 온 국민이 이를 중심으로 총화단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 노력의 결과로 풍요한 소비생활에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세계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그러나 북괴 김일성의 허망한 남침야욕은 변함이 없으며 전 국토를 요새화하는가 하면 전 주민을 완전 무장시키고 국민학교 어린이 까지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추게 하는등 그동안 오직 남침야욕에 혈안되어 전쟁 준비에 바빴다.

그들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 북괴의 망상된 남침야욕은 노골화 되어 있는 철칙인것 같다.

그들의 전쟁준비 기간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에 힘썼으며 우리의 국력도 나날이 강성해져 세계에서든 신임받는 한국이 되었고 국토에 대한 국민

의 애착심이 강력하게 고취 되었다.

따라서 북괴는 전쟁준비를 완수하면서도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전 까지만해도 그들은 무장공비 남파등 직접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남북회담제의, 이산가족찾기등의 제의로 초조와 불안을 숨기며 우리의 국력분열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지난날의 백령도 해상침투사건, 대통령 저격사건, 땅굴사건등은 초조와 불안을 숨기려던 그들의 정체가 탄로되고 당황한 나머지 남침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일부인사들과 대학생들까지 포섭하여 간첩행위를 하게하는등 악랄한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다.

이에 우리는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신체제를 확립하고 국민의 굳건한 총화단결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비굴한 행위에 조금도 굴하지않는 각오를 삼천오백만의 가슴 가슴마다 깊이깊이 다짐하게 되었으며 멸공의식은 더욱 고취되어 갔다.

한때 일부 인사들은 급박하고 긴장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을 늘어 놓았으며 국민총화를 분열하려는 선동적인 행위를 한때도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은 풍요한 물자와 풍요한 소비생활에 행동 구애됨이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감히 전쟁의 비극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국가발전에 많은 폐단을 끼친 적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공동의 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처하는것이 급박한 과제임을 깨달았으며 국민총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유속에서 국가를 아꼈을 알게 되었으며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없이 민족이나 개인이 존재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현재 인지사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 가므로해서 그들은 일종의 망상된 정복심과 착각으로 언제 어떤 악랄한 수법으로 남침을 감행할지 모른다.

백령도의 해상침투사건, 땅굴사건, 대통령 저격사건등 이 몇가지 만으로도 그들의 남침계획은 여실히 증명되고 또 이와같은 행위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손아귀에 넣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국론분열은 북괴의 남침도발을 부채질하고 스스로 전쟁의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고 아직은 이제까지의 우리 행동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기 보다,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사고방식과 인식이 좀더 아쉽다.

그리고 유신체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이를 생활화한 굳건한 우리의 각오가 요망된다.

해방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변화를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거울삼아 우리나라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머지않아 세계안의 한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도 이에맞춰 전진함과 동시에 유신체제의 확립과 생활화로 우리나라의 뚜렷한 주권과 오늘날 우리실정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세를 굳히고 민족중흥을 이룩하는 구성인이 되자.

그리고 발전도상에서 그 어느나라 못지않게 힘찬 걸음으로 전진을 재촉하자.

우리의 피와 땀이 열매를 맺을 1980년대를 구상해 보자.

백억달러 수출, 천달러 국민소득, 곳곳마다 들어선 굵직한 굴뚝, 솟아나는 연기, 밝은 문화시설, 실업자없는 사회, 부정, 부패없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살아서 맛보는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나 복귀가 도사리고 있는한 행복된 문화생활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것을 빼앗길 수 없다. 아니,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그렇듯 우리 인간 사회에도 끊임없이 이어오는 뒷사람이 있다.

앞대가 가면 뒷 세대가 뒤를 잇는다. 많은 새로운 세대가 뒤를 이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대에 값진 삶을 물려주자.

이를 위해서 조직화된 국력, 전 국민의 총화단결, 유신체제의 확립등 복귀 전쟁도발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의 능동적 자세와 진취성이 현실에 긴요함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 나아가자.

또한 이것만이 제 2의 6.25를 막는 유일한 비결일 것이다.

보다 앞찬신념으로 학생은 학원에서 사회인은 직장에서 보다 강력하고 단결된 힘으로 기술을 연마해 나가자.

멸공! 다시한번 되새기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자.

오직 유신체제를 위시한 국민총화만이 우리의 뜻이요 길이리라.

내일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주관을 함양한 개성을 성장시키고 국력배양의 의의를 깊이 되새기며 이에 만전을 기하자.

이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행복된 미래를 기약함을 다시한번 생각해야겠다.

행복된 미래를 향해 걸음을 재촉 하면서 광활한 대계를 펼쳐보자.

일면국방, 일면근로의 정신으로 보다 강력하게 유신체제를 추진하고 온 국력을 한데 모아 국방에 임하고 대계를 힘껏 펼쳐보자.

그리하여 북괴와 애국 동포들이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로 조국통일을 바라고 원하도록 힘껏 노력하자.

* 중등부 가작 *

방 위 성 금

채 금 자
(전북 완주 구이중3)

월요일.

조희 시간이었다.

내 짝궁이,

“애, 이것 좀 봐! 오월 한 달 동안에 방위 성금이 무려 팔십일억
원 하구두 사천만원이나 모였대!”

“뭐! 어 정말? 어디 어디?”

순식간에 나의 주위에 수런 수런 왁자하드니 와아! 하고 학우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안보 자료는 한번 두번 학우
들의 손을 거치는 동안 그만 절레 조각이 되어 버리고 학우들의 얼굴
은 하나같이 얼굴엔 싱글 빙글 웃음 꽃이 피면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더니 교실은 순식간에 정말 접시라도 깨지는 듯 서울 동
대문 시장 만큼이나 소란해져 버렸다.

“조용히, 조용히 해!”

실장의 목센 소리가 질그릇이라도 깨지듯 날카롭게 교실을 울린다.

그래도 여학생들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웃고 떠들고 야단이다.

실장의 얼굴이 더욱더 홍당무가 되어 더욱 크게,

“왜 그렇게 떠들지? 조용히 할 수 없겠어?”

하고 소리치자 교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안보. 자료 좀 봐! 흥분 안 하게 생겼나”

하자 학우들도 덩달아,

“방위 성금이 무려 팔십일억원이나 모아졌다잖아”

“은 거래의 총화 단결의 결과가 아닐까?”

“그래 맞다. 실장! 우리도 방위 성금 모으자”

“그래 그래 우리도 하자, 우리도 조국 수호의 의무가 있잖아”

기상 천외의 발언들에 실장은 그만 어리벙벙.

“그런 얘기면 우리 이렇게 떠들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학급 회의를 하자”

“그래 그래 그러자”

“우리 반만 할 게 아니라 전교적으로 하자”

“그렇려면 교문 앞에 모금함을 놓으면 될거야”

“아냐 아냐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리 배기 봉사 활동을 나가서 그 수고료를 모으는 게 어때?”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회의 시작해야잖아”

이젠 오히려 남학생들이 더 극성이다.

캠페인을 벌이자는 둥 어찌자는 둥 교실은 일대 소란.

실장의 얼굴은 더욱더 빨갱게 익어가고 학우들은 방위 성금에 대한 토론에 열을 올리고, 우리의 젊은 조국은 우쭐우쭐 뽐내며 자꾸만 자꾸만 커가고 땀흘리며 싸우는 대한의 용사 국군의 사기는 하늘이라도 찌를 듯이 한없이 높아만 가는 저 일선의 고지가 더욱 찬란히 빛나는 것 같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본다.

학우들의 이 열면 성의를.

자기 자신들에게는 무척 힘겨운 일이지만 방위 성금에 대해 저렇게

흥분하고 있는 그 충렬된 얼굴 얼굴들!

순간 몽클한 가슴을 느끼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소란하지마는 우리 오십구명 학우들의 마음은 오직 조국! 조국 수호라는 그 한 곳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있는 것이라고.

피부로 느끼는 조국 수호의 필연성을 알기에, 결국 우리는 그 옛날 일제 시대때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국채 보상 운동을 벌여 금현, 철주로써 돈을 모았 듯, 이제 우리 조국 수호를 위해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앞장 서 뜨거운 조국애와 평화 통일애의 염원을 국력 배양과 튼튼한 국방력을 뒷받침하는 자주 국방의 성금 모으기 운동을 하자는 근본 정신에 만장 일치로 합의를 보았다.

그래서, 우선 그 운동의 하나로 용돈 절약과 방과 후 보리 베기 봉사 활동을 나가서 얼마간의 수고료를 받아 모으기로 하였다.

보리 베기 봉사 활동을 나가는 날!

오뉴월의 뜨거운 피약벌에 우리들은 조금은 귀찮고 고되었지만 오직 조국만을 위한다는 마음에 발걸음도 가볍게 밭으로 향했다.

한없이 푸르르기만한 유월의 하늘에 아이스크림 같은 구름의 고요한 난무가 무르익는 듯한 창공이다.

하늘도 땅도 들도 온통 푸르르기에 너와 나의 가슴마저 푸르른 용기의 조국애가 용솨음 치는가!

밭으로 향하는 이 조그마한 대군의 얼굴들이 하나같이 미소를 머금고 있는건 아마도 조국을 사랑한다는 자부심 때문이리라.

눈 속의 개구리 우는 소리에 초록 빛 통일모(髻)가 무럭무럭 커가듯 우리들(하나 하나의 가슴 속에 속속들이 스며든 통일의 염원도 춤추며 따라 커간다.

키다리 포플러 아저씨의 왈츠에 이마의 땀방울은 사그라져 가고 고
귀여운 손바닥을 찰랑찰랑 흔들며 흥을 돋궈주면 우리 조고만 병사들
은 환희에 찬 환성을 지른다.

파아랳고 노오란 들녘에 우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석양이면 우
리들은 발걸음도 가볍게 사랑의 안식처 집으로 향한다.

저마다 조국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신념을 다지며……

도시의 부녀자들이 조국을 위하겠다는 마음에 그 힘든 중노동을 해
서 방위 성금을 모았듯, 국민 학교 꼬마가 그 어릴적부터 갖고 자란
손 때 묻은 저금통을 기부했 듯이, 우리들도 오직 조국! 조국을 위
해 뼈마디 마디에 조국수호를 아로새기며 배고플 때 빵 한 개라도
안 사먹고 돈을 모아 조국 수호의 방위 성금으로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살짜리 꼬마의 그 어린 마음에도 파자 사먹고 싶은 마음을
꼬옥 참고 그 손때 묻은 동전을 모금함에 넣으며,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천여년 동안 사막을 방황하면서 조국 없는 노예 민족으로서
온갖 학대와 천시에 피 맺힌 절규로써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시온 성금을 모아 오늘의 번영을 밑받침했듯 이제 우리 백의
민족도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진 조국 수호!

조국 통일을 하나같이 염원하며 방위 성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찰그랑"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들으며 조국 부활의 꿈에 부풀었던 유대 민
족 어린 아이처럼 이제 우리도 아니 우리의 동생들까지도 통에 귀를
대고 조국 수호, 조국 통일의 꿈에 조고만 가슴은 고무풍선마냥 부풀
어 오르고 꿈에 취한 두 눈엔 백두산 천지의 푸른 물이 어리고, 금
강산 일만이천 봉이 보이며 통일을 기다리는 두 귀엔 온 겨레의 기

뽕에 겨운 만세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아!

우리는 언제나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룰까!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오천만 동포의 한 맺힌 절규는 팔십일억원이
라는 거액의 방위 성금에 고스란히 담겼다.

용사여!

대한의 피끓는 전아들이여!

사기 충천하여 용기 백배하여 일 당 백으로 싸워 이겨다오.

저 붉은 무리의 검은 야심을 깡그리 때려 뒤엎고 영원 무궁토록
축복 받은 이 땅의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온 세계에서 으뜸가고 영
원 무궁토록 굳건할 우리의 젊은 조국을 철통같이 지켜다오.

만세에 길이 빛날 조국의 평화를, 조국의 통일을 …… 우리 오천
만 온 겨레가 아끼고 아껴 모은 이 손때 묻은 방위 성금!

부디 조국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염원하며 우리 온 겨레는
고된 줄 모르고 땀흘려 기꺼이 모으고 있는 것이다.

* 중등부 가작 *

총력안보 및 학생의 자세

강 경 숙

(경기 평택 한광여중 2-5)

나는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들이 '대남공작'이니 '혁명
완수'니 하고 떠드는 것을 듣고 혼자 웃으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하늘이 내려다보고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단결되어 그것
을 용서하지 않으며 지켜보고 있는데 오직 '혁명완수'를 위해서라고
부르짖으며 북한 동포를 혹사하고 있을 그들이 또한 우습기도 하고
축은 하기도 합니다.

내가 2, 3학년때 도덕책에서 간첩의 만행에 대해선 배운듯 합니다.
간첩이 어느 강원도 산골의 집에 침범해 그 가족들을 위협할 때 아
직 철도 채 나지 않은 2학년 학생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부르
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조그만 학생을 돌로 쳐서 참혹한 죽음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공산당이 가혹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흉악한 점도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그저 무의미하게 들어 넘기는데 지
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란 아마 남의 집 물건을 잘 훔쳐가는 도둑놈 정도 되겠구나.”

나의 생각은 여기까지 밖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의 천진했고 순진했던 생각은 철들고 나서의 몇가지 사진에 의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 죽이기를 마치 짐승 죽이듯이 죽이는 그들, 모든 사람 다루기를 마치 더러운 돼지, 개 다루듯 마구 다루는 그들.

아아!

생각만 해도 몸이 바르르 떨려 옵니다.

그런 그들을 나는 어찌하여 한낱 도둑놈에다 비유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나는 저녁을 먹은 후 다 치우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아버지의 중얼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될까?”

나는 고개를 숙 뽑아 신문을 보았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제목이 한문으로 씌어 있고 그 아래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까지 남쪽과 북쪽은 이야기도 안했는데 이제는 대화도 할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고 잘하면 남북이 왕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북한을 돌아 다니며 찍은 몇가지 총천연색 사진이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신문을 반장이나 넘게 차지한 대기사 였습니다.

나는 남북이 서로 통일된다는 기쁨에, 나도 이제는 북한이 어떻고 금강산이 어떤건지 꼭 한번 가 보리라는 그러한 여러가지 생각과 기쁨에

적지 않은 흥분을 했습니다.

나는 또한 대단한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무언지 모르는 만족감에 나는 마음이 뿌듯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이야기는 거의 '남북 적십자 회담'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나도 한번 금강산 구경 해 봤으면....."

자기 소원이냐 말하듯이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자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온 식구가 평양 시내나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또 어떤 애는 자기는 남북이 통일되면 자기 또래의 소년, 소녀들을 열심히 도와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말들을 열심히 들으며 모두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이 자기들이 다른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 간판을 만드는데 불과 하였다는데에 나는 굉장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는지 정말 그때 나의 실망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국민학교 때 생각하던 그렇게 순진한 것이 공산당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뒤로 부터 그들은 내 머리속에서 증오스런 존재로 재인식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오의 눈길을 아니 보낼 수 없었으며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 육영수 여사' 바로 이 분의 돌아가심 입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던 날 오전 11시반 경에 나는 육영수 여사께서 어느 피한이 쓴 총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러셨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상처는 가벼운 정도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저 라디오의 뉴우스에 귀를 기울일뿐이었습니다.

매시간 뉴우스를 들을때마다 경상 이니 혹은 경상보다는 약간 심하다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맘이 놓였습니다. 육영수 여사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신데 대해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나는 다시 7시 30분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죽음을 알리는 분위기의 축, 처진 고요한 음악이 울려퍼졌습니다. 나의 온 신경은 귀로 나의 두 귀로 집중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뜻밖에도 육영수 여사의 사망을 알리는 소식을 들려왔고 다른 방송국도 다른 방송은 모두 중지해 버리고 오직 육영수 여사의 돌아가심에 대하여 비통해 할 뿐입니다. 나는 그때 내눈에 눈물이 핑 돌고 있음을 깨닫고 얼른 눈을 감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랑 경찰이가 보면 웃을까봐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청하려고 해보았지만 그것은 힘든 일 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귀중한 물건을 잃은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괜히 우리집안이 텅빈것만 같아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직성이 풀릴때까지 실컷 울었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맘껏 비웃으며.....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시일이 지나서 나는 또 땅굴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창 엄마, 아버지에게 애교도 부리고 싶고

멋도 한창 내고 싶을 이 어린 소년소녀들 부터 이제는 늙어서서 편안히
여생을 지내기를 원하고 계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까지 모두 총 동원
시켰을 것입니다.

혹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마약을 강제로 먹게하여 반 마약 중독상태를
만들어 놓고, 반이 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잠에 시달려서 축 늘어지게까지 만들어 놓고서.....

그래도 그들은 아마 지금도 '김 일성 수령'의 혁명완수를 위해서라
고 간판을 내걸고 그들을 부리겠지요.

그들은 악마 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불평을 잘 합니다. 모든일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품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의 소년들을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요?

총력안보는 국군이나 어른들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학생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력안보를 먼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경고하고 싶
읍니다.

"총력안보란 먼데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질
서와 공익을 지키고 책임을 다 하는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궁화 꽃은 사시사철 피어있습니다. 시들거나 치는때가 없이 항상
싱싱합니다. 이러함에 우리가 시들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썩어빠진 대남공작에 대해 우리는 투철한 정신자세로서 온 학
생들 국민들이 총력안보에 힘써야 합니다.

무궁화는 항상 피어있다는 마음가짐에 항상 싱싱한 마음 가짐을 가지
고서 말입니다.



♣ 고등부 글짓기 ♣

〈최우수작〉

○ 흐르는 피 서 영 식

〈우수작〉

○ 담배가게 할아버지 김 호 신

○ 두 마리의 얼룩말 김 영 태

○ 태권도 이 정 연

○ 그 토요일 오후 이 희 천

○ 반공과 학생의 자세 고 은 지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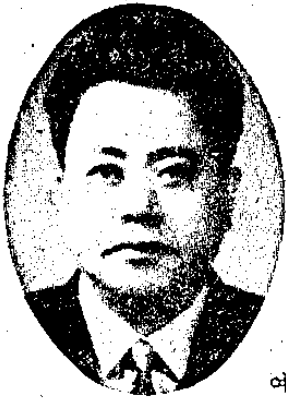
○ 그 날 이 하 영

○ 영아의 슬픔 박 순 이

○ 어머니 이 은 옥

○ 샘물 박 종 재

○ 은빛 목걸이 이 흥 근



심 사 평

김 요 섭

〈아동문학가〉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서 서로 최우수작을 겨룬 작품은 20 편이다. 전체적으로 작품내용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승공 평화통일, 총력안보를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다.

그리고 표현력의 주체인 문장력도 모두 훌륭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힘에 겨움게 문학적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도리혀 문맥이 혼란을 일으키고 자연스러움을 잃은 대목이 간간히 눈에 띈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느낀 것을 또박또박 적어나가면 훌륭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호르는 피」 서영식(서울 용산고1)의 작품은 자기 내면의 발전을 그린 글이다. 피로움속에서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는 과정은 힘차기도 하다. 더우가 자기의 내면의 힘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묘사는 눈에 선하게 그려져 있다. 한편 고교생이면 사회에 대한 인식의 눈도 뜨게 마련이다. 이러한 각도에서도 비평의 태도도 결드려 있어 작품의 무게를 더해주었다.

우수작가운데의 「담배가게 할아버지」 김효신(상명여고1)의 작품도 훌륭하다. 짙막한 단편소설을 만들듯 짜임새있는 구성과 재치있는 묘사력이 특히 돋보였다. 이 작품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저만치 놓고 그린 작품이다.

작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반짝이고 있었다.

위의 두 작품은 어른들이 읽으면 감명을 줄 작품이었다.

* 고등부 최우수작 *

흐르는 피

서 영 식

(서울 용산고 1)

오늘도 해가 떴다.

한강이 흐르고, 예외없이 아침의 버스 속은 밀고, 밟고, 아우성쳤으며, 시간표가 정해 준 대로 8시간의 수업을 마치자,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친구들과 틈에 끼어 교문을 나섰다. 언제나처럼 별 계획없는 똑같은 날이다. 집으로 가는 일만이 남았을 뿐이다.

집에 가면 어머니의 심부름, 누나의 지긋지긋한 잔소리, 동생들의 투정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또 신문을 보시며

"현 사태가 어쩌구"

하는 열변을 토하실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들어 온 말들이라, 이제는, 첫마디만 꺼내셔도, 그 다음은 줄줄이 외어버릴 정도였다.

"그때 철원 전투에서 부상만 안 입었어도, 백두산까지 가는 건데...

그리고 지금 통일! 통일! 하지 않아도 될텐데....."

하시며 마치 아버지의 부상만 아니었다면, 6.25를 통일로 이끌기라도 하셨을 것처럼, 없는 다리를 자못 자랑스럽다는듯 어루만지시며, 이야기하시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렇게 자랑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다. 어제가 일요일이라서인지, 아침에 친구들의 화제는 여느날보다 유달리 푸짐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낚시질을 다녀왔다는 동현의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나는 뒤로 슬쩍 빠져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의 풍경만 바라보아야 했다.

하지만 9년 동안이나 숙달된 일이라서, 그리 큰 충격을 받거나, 슬프지는 않았다.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놀던 건, 벌써 까마득한 추억의 일이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명랑한 축인 나이지만,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면, 교련 선생님의 질문보다도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다.

"왜 나의 아버지는 남들과 같지 못할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원망조차 포기할 만큼 지쳐진 나였다.

그러니까 3년 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친구들이 "넌 아버지와 어디 안 가니?"

하고 물어 올 때면

"우리 아버진 회사일 때문에 바빠."

하고는 얼른 다른 이야기로 방향을 돌려서, 집안 사정을 숨겨왔었다.

그런데 6월 6일, 아니 그 전날인 6월 5일,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반의 서 영식이가 상이군경 자녀로 학교에서 도와주는 원호가 죽으로 뽑혔다."

하시는 말씀에 나는 그만 눈앞에서 별똥이 번쩍이는 것만 의식했지, 어떻게 집엘 왔는지 모르게 뛰쳐와서는 목놓아 울어 버렸다.

아마 내가 이토록 슬펐던 일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것처럼 원망스러웠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늘도 집으로 향하는 나는 무서운 공포중에 걸렸다. 친구들이 내

뒤를 밟아, 숨겨 온 비밀을 알아 낼 것만 같은 것이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언덕길을 올라 집에 가야 했다. 대문앞에서도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흡사 도둑모양 행동해야 했다. 게다가 요즘 가뜰이나 불만인 것은, 어머니의 심부름이다.

비누나 치약을 사오는 일까지 나를 시킨다. 그걸 사러 시장에 갔다가, 근처에 사는 경민이를 만날까 두려운 것이다.

그 애가 집이라도 들으면, 이젠 큰일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의 이런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이 있는데도 의례껏 나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누나는 사내자식이 친구도 없이 혼자 외톨이로 다닌다. 어쩐다 하며, 특히 잔소리를 한다.

오늘도 아버지의 연설은 시작되었다.

"드디어 월남이 망했구나! 어휴! 병신, 머저리같은 놈들! 나라가 풍전동화인데도 도망갈 궁리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니....."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먹지! 너희들도 잘 들어줘라! 너희는 월남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돼! 기어히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아야 해!

영식아! 너 야구 클럽 사달라구 그랬지? 내 네가 백두산에 태극기만 꽂고 오면, 야구 클럽 담박 사주마. 너희는 꼭 애비의 다리를 보상받아야 해.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열심히 싸워 줄지 의문이구나. 나는 글썽 고지를 향해 한참 쏘다가 보니, 내 다리가 저 만큼에 떨어져 있질 않겠니? 그러곤 그냥 통일! 통일만 외치다 깨어보니 야전병원 이더구나."

"아버지는 그때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셨어요?"

나는 자못 못마땅했다.

동현의 아버지는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한강을 건너 피난했고, 누구네 아버지는 어떻게 모면했다는 말들을 들을때, 아버지는 공연히 학생의 몸으로 자원했다니, 아버지가 자꾸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너는 모르지. 할머니가 재산을 내놓지 않는다고 소련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을……. 그것두 너의 할아버지 시계 하나 때문에…….

시계와 생명을 하나로 취급하는 놈들의 행동이 나는 너무나 저주스러웠다. 그래서 나 혼자 월남하여 고학을 하다가 6.25를 맞이했다.

그때는 그저 너의 할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는데, 나중에 자유와 평화의 수호라는 거룩한 업적까지 이룬 사람중의 하나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회상에 잠기시는듯 눈을 감았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나는 왜 뗏뗏이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못할까? 아마 나는 어디가 모자란 녀석인가 보다.

동현이가. 자기 아버지는 전쟁때 피난가서 미군 물자를 빼돌려 돈을 벌었다며,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던 일을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다.

요즘 방송이나, 학교의 조회 시간에 6.25 25주년 어쩌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돌기 시작했다.

언제나 6월이 오면, 현충일과 6.25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애국자가 되고, 모두 총력안보를 외치곤 했다. 그러면서도 현충일날엔 공휴일이라고, 모두들 야외로 놀러다니기에만 바쁘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며, 비행기가 실새없이 폭격하는 그 전장 속을 뛰는 한 학도병과, 그리고 약삭빠르게 피난이나 간, 그런 사람과 누가 더 자랑스러워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으며, 누구를 위해 이겨야 했기에, 죽음을 무릅쓰

고, 밤에는 적의 머리를 만져가며 싸웠는가?

오늘은 교정에서 안보 쫓기대회가 있었다. 머리에 '별공!'이란 띠를 두른 3학년 형들, 그리고 푸레카드와 피켓을 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다. '남들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서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다.'

순간, 나의 가슴이 석유 먹인 종이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달리듯 앞으로 뛰쳐 나갔다.

"타도하자 공산당! 승공으로 조국통일!"

그리곤 두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외쳐댔다. 하나 다음 순간 앞을 보니, 동현이가 어처구니없다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는게 아닌가?

나는 갑자기 머쓱해져서 뒷쪽으로 도망이라도 치듯이 물러나왔다. 몇 년 동안이나 쌓아 온 열등의식을 너무나 갑자기 팽개쳐버린 탓일까? 시원한 기분이 아니라, 오히려 역겨움같은 감정이 더러운 수렁 속의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자 저만큼 바람에 펄럭이는 푸레카드에 커다랗게 쓰여진 '상기하자! 6.25' 어쩌고 한 말에 심한 저항을 느꼈다.

6.25를 겪은 사람은, 해가 지날수록 이를 갈며 분해 하거나, 기억에서 점차 잊어버려 갈 들 중의 하나요, 전쟁의 비극을 모르는 학생들은, 그저 24주년에서 25주년이 되었으니 또 한 해가 지났구나 하며, 무슨 당연한 이치를 바라보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만 같았다.

허다한 6.25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그때마다 공산당을 무찔러야 하며,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놈들이 또다시 재침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겠다고 생각한 학생 또한 몇이나 될까?

어떤 녀석은 그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지
는 것이 굉장했겠구나! 시체들이 길바닥에 즐비한 것을 여학생들이
보았다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나 하며 속으
로 즐거워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좋아하기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거의가 신나는 전쟁영화를 연상하며 들은건 아닐런지 ?

나 자신만 해도 그렇다. 남도 아닌 바로 아버지가 이야기하실 때
에도, 난 엉뚱한 공상에 잠기거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모조리 외
어버릴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도 머리가 파히 나쁜 편은 아니
구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자위조차 했으니 말이다.

동현의 아버지가 6.25 때 피난 가서 미군 물자를 빼들었다는 이야
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오히려 왜 남들은 전쟁을 통
해 성공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성공은 커녕 다리까지 잃으셨나? 그리
하여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기를 펴지 못하게 만드나? 이런 원망만
해왔을 뿐이었다.

사회가 6.25 참전용사라고 아버지에게 칭송의 말들을 보내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집을 무슨 암
흑의 동굴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한 내가 오늘 월기대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여, 공산당을
타도하고 승공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소리높여 외쳐댄 것은, 참으
로 회한한 일이었다.

"어쩌면 내가 그라도 용감해 질 수 있었을까?"

나를 쓴웃음을 깨물었다. 다시 한번 그리 해보라면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아니 점수가 짜기로 유명한 국어 선생님이 무조건 100 점

으로 올려 준대도, 도저히 못할 것만 같았다. 하나 차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하니, 나는 자신의 행동이 그리 역겹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큰 업적을 세우고 난 뒤의 느낌이 차츰 가슴을 채워오는 것이었다.

혹시 아버지가 다리를 잃고 병원에 누워, 무찌른 공산당의 수효를 헤아릴 때가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어찌나 나에게도 아버지의 그 붉은 피가 흐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엄숙한 기분이 되어, 6월의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를 걸어나갔다.

* 고등부 우수작 *

담배가게 할아버지

김 호 신

(서울 상명여고1-10)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큰 식료품 가게가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아이도 몇명이나 두고 장사도 꽤 잘 되는 아주 큰 가게
입니다.

그런데 그 큰 가게 옆에 우스꽝스럽게도 조그만 담배가게가 있어요.
마치 어미닭을 따라가는 애기 병아리같이 말이에요.

그래도 곧잘 손님이 끊이지 않는 그 가게 유리창 저 쪽에는 주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동네 꼬마들에게 퍽 두려운
존재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며 뛰어다니는 꼬마들에게

"요 녀석들! 시끄럽다! 어서 들어가지 못하겠니?"

하며 그중 걸음 느린 꼬마 1명을 잡아서 아프도록 꿀밤을 먹여주곤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꼬마들은 할아버지를 아주 싫어하나 봐요.

꼬마들은 할아버지께 "심술상자"라는 별명을 붙였대요.

며칠전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갔어요.

"담배 주세요"

내가 유리창에 돈을 밀어놓자 할아버지는 가끔 쓰시는 돋보기 안경너머
로 나를 유심히 보셨어요. 그러시고는

"오오냐"

하시며 보통때같은 통명스런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 아가야, 너 몇학년이나?"

하시며 도저히 할아버지 말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시지 않겠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그럼 몇살이나?"

"열 네살요"

"그래 애? 참, 너 오빠있지?"

"네"

"오빠는 몇살이나?"

"열 일곱살이에요"

"그래애애?"

담배를 사가지고 오면서 나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와 오빠를 알까 하고 생각했어요. 아마 오빠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종종 보셨나봐요.

그 후 종종 나는 담배 심부름을 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다정스럽게 말을 붙여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하고는 아주 친해졌어요. 그것이 동생에게 못마땅했나봐요.

"누나, 그 할아버지 뭐가 좋아서 그래?"

"애는, 얼마나 좋다구"

"땃! 심술상자!"

"너희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그러시는거지"

"참, 누나, 그 할아버지가 뽕기장사한테 절하는 거 알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아침때하고 저녁때 가게앞에 서서 뽕기장사가 앉아있는 그

쪽으로 두손을 합장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인다구 "

하도 이상한 말이라서 저녁때 나는 동생하고 대문을 나가봤어요.

마침 할아버지께선 가게 밖으로 나오시고 계셨어요.

"봐 절하려고 나오는 걸꺼야 "

과연 할아버지는 두손을 꼭 모으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모습이 어쩐지 껍이나 외로와 보이셨어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랫집 할머니께서 오시고 계셨어요.

"늬들 여기서 뭘 보고 있는기냐? "

이북에서 월남하셨다는 그할머니는 길은 이북사투리가 무척 재미있는 할머니입니다.

"아니, 저 담배가게 할아버님은 뭘하고 있는기야? 늬들 더것 보는구나 잉? "

우린 그만 웃고 말았어요.

"에구, 더게 무시기 덧이다? "

할머니께서는 혀를 꼰꼰 차시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가 왜 절을 하실까하고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오빠에게도 그이야기를 했더니 오빠도 이상해했읍니다.

다음날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투신다는 동생말에 나는 뛰어나갔어요. 동생 말대로 두분은 동네 개구장이 한 명을 사이에 두고 다투고 계셨어요.

"왜 어린 아이는 다투 때리는거야요? "

"왜 쓸데없는 참견이유? "

"동네 아이들을 그렇게 구박하니끼 아이들이 놀테가 어디 있겠시오? "

"놀아도 야단법석을 떠니까 그렇지 "

"도용하게 뛰노는 아이 봤시요? 쪼맨한 아이가 어떻게 덤잔을 뺏단 말이야요?"

동네에서도 이름난 두 고집통 노인은 좀체로 물려서질 않았읍니다. 그러자 식료품가게 주인아저씨가 두분을 말리셨어요.

"자. 이제 고만 하세요. 두분들"

"고만이고 요만이고 영감태기가 마구뺏이로 애들을 때리는 법이 어디있소?"

"내가 두들겨 줬나? 꿀밤만 줬지"

"꿀밤이라도 그렇디요."

"네. 두분 말씀 잘 알겠으니 이제 고만 하세요"

"아니야요. 이 영감이 애들 안때린다고 약속 할때까디 여기 있어야 갖시요"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담배가게앞 결상에 털썩 앉으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가게안으로 휙 들어가시고 아저씨는 웃으시며 그냥 들어가셨어요. 나는 할머니 곁에 앉았읍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오흠, 더 영감한테 물어보면 알게 될기야."

나는 또 우스워졌읍니다.

"그러지 마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끼린데"

"혼다라는 말은 왜 꺼내니? 내 아들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기야"

나는 그만 죄송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읍니다.

"아드님이 계세요?"

"기래. 월남할때 그만 헤어뎠어."

갑자기 문이 왈칵 열렸읍니다.

"택에 아들이 어떻게 됐다구?"

할아버지께서는 금방 다투시고는 그렇게 또 말을 거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도 다투신것은 짱그리 잊으시고 나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잃어버렸다구요. 손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하고 붙잡고 있다. 앓갓시오"

"그래 아직 행방을 모르우?"

"알면 이려고 있갓시오"

"아. 그러면 신문에 내봐요."

"신문?"

"거 이산가족 찾는거 말이오"

"그런것도 있음네까?"

"지금 당장 갑시다"

하시고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할머니를 끌고 한길로 뛰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께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다 들으시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주 불쌍한 분이다."

"왜요?"

"그분도 월남한 분이야."

"네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북에 부인을 두고 자식들을 데리고 오다가 자식들은 도중에 잃었나보더라"

"어머나!"

나는 또 한번 놀랐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신줄은 꿈에도 몰

랐으니까요.

"부인을 데리러 가려해도 이미 휴전선이 가로 막은 후였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으셨지."

나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길게 한숨쉬시는 버릇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간 많은게 아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이겠니? 이땅에 있었던 비극은 너무나 많은 슬픔을 낳았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될때 북에서는 전쟁전쟁 하면서 광분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야.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푹푹 뭉쳐야 한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말이다. 알겠니?"

나는 고개만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외로우신 분이랴 생각하니 휴전선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나는 할아버지께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냐. 어서 오너라."

"어제 할머니일 잘 되었어요?"

"응. 접수했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신문에 날거야"

하시는데 할아버지의 얼굴은 웬지 쓸쓸해 보이셨어요.

"저 할아버지"

"왜 그러니?"

"저 월남하셨다는게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흠칫 놀라셨어요.

"아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할아버지의 얼굴은 슬픈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나는 월남한 사람이라."

할아버지께서는 먼산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놈들 그놈들 때문에....."

"자식들하고 아내도 같이 가려 했지만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후에 데려갈려고 했지.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할아버지께서는 멍하니 허공에 눈을 두시고 앉아계셨습니다.

"자식놈들이 꼭 너하고 너희오빠같은 나이였지. 남매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꼬옥 내 자식 같게 느껴져서..... 그애들이 살았으면 지금쯤 장성해서 손주녀석들도 몇놈쯤 있을텐데....."

"그럼..... 죽었나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셨습니다.

"죽었어..... 딸아이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아들녀석은..... 아..... 그놈이 글썽 피난길에 굶고 지쳤는지 아침에 일어나질 않잖아. 흔들려 깨우니까 배 위에 얹혀있던 손이 툭 떨어지겠지"

나는 너무나 슬픈 사실에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이제 다 옛날얘기지. 마누라는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르지. 살아 있다면 제발 건강하게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참! 너 내가 절하는 것 봤나?"

"네? 아..... 네에 봤어요."

"허허허. 우습게 여겼을거야. 그게 마누라한테 하는 거야. 제발 잘 병없이 있어 달라구..... 따져보니까 저쪽이 북쪽이더구나"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절하던 방향엔 여전히 뽑기장사가 앉아 있었어요.

"옛날이 좋았었지..... 언제 또 고향땅을 밟을 날이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또 한대도 할아버지의 멍든 가슴엔 무슨 위로가 뒀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북쪽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옛날을 보시고 계신 것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식들 다같이 살던 그 옛날, 행복했던 때를 보고 계신 것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동생이 야단법석을 떨며 들어 왔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

"뭔데?"

"이것 이 신문에 난 사진 할아버지 아냐?"

정말 신문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크게 나 있었읍니다.

"어머나! 정말"

더욱 더 놀란 것은 그 밑에 '평생 저축해 온 3백만원을 방위성금으로 내 준 장한 할아버지'라는 말이 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3백만원!"

동생은 큰 소리로 외쳤읍니다.

"평생 저축해 온 돈을....."

나는 할아버지의 그 뜻을 알 것 같았어요.

"누나, 할아버지가 그런 분인지는 몰랐지? 이제 심술상자란 별명은 안 부를테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엄, 얼마나 좋은 할아버지신데....."

동생과 나는 신문을 가지고 할아버지 가게로 뛰어 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랫집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에그..... 다 늙은 사람이 돈을 가두고 계셔야디..... 그렇게 다 내뺨리면 어떻게 할려구 그랬시오?"

"허허..... 내가 살면 이제 몇년이나 더 살겠오? 죽기전에 내 조그만 일이라도 이뤄놓고 가야지 않겠수?"

"에구, 그래도..... 하긴 맞는 말씀이디요."

" 할아버지 ! "

" 아니, 너희들 웬일이냐? 들어서 "

" 이것 보셨어요? "

" 허허허..... 그래..... " 그것 참! 괜히 사진이 나 가지고 떠들썩하구먼 "

" 할아버지..... 정말 훌륭한 일이셔요..... "

" 허허허..... 대단치도 않은 일이다 "

그때 동네 꼬마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몰려 왔습니다.

" 오흠, 쫓아 내디 그래요? 꿀밤을 먹여 가디구서리..... "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넌지시 말하시는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 그만 두기로 했소. 저녀석들 놀메도 없는데..... "

" 이데 알았시요? 호호호 "

할머니께서는 소리높여 웃으셨습니다.

" 하긴 내별명이 심술상자라니 "

계면쩍은 듯이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저희 집에서 아랫집 할머니가 오셔서 마루에 앉아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때 대문이 왈각 열리며,

" 이..... 이봐요. 왔어요 왔어 "

하시며 담배가게 할아버지께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 오셨습니다.

" 무시기 소리야요, 갑다기 "

" 할멈..... 아들이..... 아들이 찾고 있다고..... "

" 뭐..... 뭣이요? "

할머니는 용수철에 튕긴듯이 일어나셨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 방송국이요..... 빨리 가봅시다 "

" 에그머니나..... "

할머니께서는 비틀비틀거리시며 대문을 나가셨어요.

" 할아버지 저도 갈까요? "

" 영?... 그래... 그러자... "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뒤따라 갔습니다.

방송국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수첩에 뭔가를 적기도 하면서 있었읍니다.

" 어디... 어디... 있어요? 내 아들..... "

" 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

" 할머니께서 헤어지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

" 이제 보시면 알아 보시겠읍니까? "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하고 있을때 또 한테의 기자들과 중년쯤의
아저씨 한분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계셨어요.

" 아...아니..... "

그 아저씨를 보자 할머니는 두눈을 부릅뜨고 제자리에 못 박힌듯이
우뚝 서고 말았읍니다. 그 아저씨도 할머니를 보자 그만 울음을 터뜨
리는 것이었어요.

" 어머니! "

" 종... 종식아... "

" 어머니..... "

할머니와 아저씨는 그만 부둥켜 안고 서로 폭포수같은 눈물을 쏟았읍
니다.

주위에 섰던 기자 아저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읍니다. 플래쉬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 이.....이 자식아..... "

할머니의 비녀가 땅에 굴렀습니다.

"엄니이..... 엄니이....."

아저씨는 애기같이 울었습니다.

"어디 어디 얼굴좀 보자. 에구... 이렇게 늙었구나... 잉..."

할머니께서는 흐느끼시며 아저씨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엄니가 더 늙었지요... 왜 이리 할머니가 왜빠렸지요?"

아저씨는 목이 메어 말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참 잘 됐지요?"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참 잘 됐다."

할아버지의 통방울 같은 두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고등부 우수작 *

두 마리의 얼룩말

김 영 태

(경기 평택고3)

"야! 이리로..... 빨리! 아이 참....."

학생들이 가장 즐겨워하는 축구! 축구였다.

10원짜리 하드내기전만, 저 마다 안간 힘을 쓴다. 이글이글 타는 태양빛 아래, 입에서는 열을 토한다. 모두들 한 여름 소낙비를 맞은 양 하이얀 런닝셔츠가 젖었다.

"이 - 자식아!, 나한테만 공을 주었더라도, 한 골 멋있게 넣는 거잖아! 너 혼자만 차는 거니."

"석! 정말 미안하다. 골문 앞에서 당황하다 보니까, 너를 못 봤어."

"거짓말 말아. 내가 그렇게도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못 들었어! 너 귀에다 말뚝을 박았구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따가 지게 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모두 다 너 때문이니까."

"뭐! 나 때문이라고. 지금 0대0인데 무엇이 다, 나 때문이라고..... 또 암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자식이 그래도 입만 살아서, 어휴! 이걸 그냥..... 너 미안하기는 커녕, 이제는 뻗뻗하구나, 뻗뻗해. 네 놈의 심장에는 찬 피가 흐르는 모양이로구나. 혹시..... 너의 아버지가 김 일성 아니냐?"

"뭐! 이 자식이 못하는 말이 없어. 김 일성! 그 말 취소 못

“하겠니, 못 하겠어.”

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푸르락 붉으락하는 얼굴로 경수가 말했다. 싸움은 점점 열을 더 해갔다. 따가운 폭염속에서 두입에서는 계속 뜨거운 공기를 내 뿜었다. 아이들은 싸움을 말렸다. 겨우 경수와 석의 팔을 잡아 멀리 떼어 놓았다.

“못 하겠다. 못 하겠어. 내가 공만 잡아 봐라. 너는 절대로 안 준다. 안 줘.”

두 주먹을 휘두르며 석이 말했다.

“돼, 마음대로 해봐, 나는 가만 있을까봐.”

다시 축구는 시작됐다. 모두들 열심히, 열심히…… 그러나 결국, 우리 편이 한 골을 먹었다. 우리 편도 좋은 기회야 많았지만, 경수와 석의 개인 플레이는 적의 장벽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편은 힘모아 한번 잘싸워 보자고 경수와 석을 설득시켜보았으나 도무지 말을 듣지않았다. 결국 한골을 우리 편이 진 가운데 게임이 끝났다.

상대 편은 모두 함성속에 싸여 교문 밖을 뛰어 나갔다. 우리 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향해야만 했다.

다른 아이들은 먼저 교문을 나가고, 경수, 석, 그리고 나, 우리 셋만이 함께 길을 걸게 되었다.

“자식! 모두 너 때문이다. 꼴같지도 않은게 공을 찬다고 골문앞에서 꺾죽거리는 꼴이란…… 어휴……”

잠자코, 교문을 나가나 했더니, 석이가 가슴을 ‘쿵쿵’ 치며 갑자기 말했다.

“그래, 모두 다 나 때문이지. 너는 그래서 한골도 못 넣었구나.

그렇게 많이 공을 잡았는데도 어찌서 한골도 못 넣었니? ‘똥 묻

은 개가 저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 참....."

경수의 이 말에 석이 찡금했는지 말을 더묻거렸다. 그래도 자기는 싫은지,

"거리에서 떠들지마. 부끄럽다, 부끄러워!"

하며 끝을 맺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머리위의 태양도 웃는것 같았다. '한 진흙덩아 위에서 두 마리의 조그만 동물이 아웅다웅하는 꼴'이란.....

나의 웃음소리에 들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없이 길을 걸어갔지만 두 사람의 화는 여전했다. 나는 화해시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생각에 잠겼다. 정말 여름의 태양은 너무나도 뜨거웠다. 이제는 새까만 팔쪽의 살을 아주 익히려는지.....

모두들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 빨갳다.

"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는 게 어때, 경수..... 석은....."

"마음대로 해.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흥....."

경수의 말이다.

"나도"

석은 경수를 흘겨 보며, 질세라 말을 했다. 그들은 정말로 시원했다. 모두들 나무 밑 잔디에 몸을 누였다. 눈앞에는 넘적한 푸른 잎이 늘어져 있었다.

문득 이렇게 누워 있으려니,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경수와 석에게 꼭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앞을 가렸다.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 보련?"

들은 아무말 없이 서로를 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돌아가

신 할아버지의 인자하신 얼굴을 눈앞의 넓적한 나뭇잎에 그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말만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얼룩말 두 마리는 우애가 매우 깊고, 친구를 위하는 마음씨가 어찌나 고왔던지 자기 몸을 생각하기 앞서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얼룩말이었다는구나"

경수와 석은 이 말이 꽤나 부끄러웠던지 "흠"하는 헛기침을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했다.

"결국 그 두 마리의 얼룩말은 모든 말의 부러움 속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 옛날부터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 가을이면 풍년의 노래로 파문했다는구나. 그런데 '걱정없는 집안이 없다'고 그 마을에도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는구나. 산 넘어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밤마다 넘어와 말을 한 마리씩 잡아 먹곤 했다지 뭐야. 그러나 힘을 모아 싸울려는 생각은 커녕, 집안에 들어앉아 남이야 어떻게 자기 살 궁리에 눈이 어두웠데. 결국 보다 참지 못한 두 마리의 얼룩말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두 다 힘모아, 살기좋은 이 마을을 위해 싸우기를 간청했지마는 모두들 고개를 젓더래. 결국, 모든 마을은 황폐해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두 얼룩말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기좋은 마을은 호랑이 세상이 되었더라는구나. 그러나 욕심많은 호랑이는 그 두 마리의 얼룩말까지도 잡아 먹으려 하였데"

"그녀석 욕심은 굉장하군. 꼭 경수....."

잠자코 듣고 있던 석이 불쑥 말을 꺼냈다. 그러나 끝을 맺기도 전에 경수의 입에서는 한 마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래, 호랑이가 나를 닮았다단말이지. 그래 닮았다. 닮았어."

"얘들아, 그만 뒤! 그렇게 싸우고 싶거든 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싸워.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핏대쉬인 나의 이 말에 들은 다시 잠잠해졌다.

"자 들어봐. 그 두 마리 얼룩말은 먼저 죽어간 말(馬)들과는 달리 한 얼룩말을 죽이려하면, 다른 한 얼룩말이 나타나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도저히 잡아 먹을수가 없더라. 호랑이는 여러가지 꾀를 써 보았으나, 그 두 마리의 협동과 단결앞에서는 물거품같이 깨어지고 말더라는군."

결국 욕심많은 호랑이는 수심에 잠기게 되었다는구나.

그런데 어느날 동네 건너편에 사는 한 여우가 이 말을 듣고 호랑이를 찾아 왔더라는구나. 그 여우는 그 마을에서 나는 곡식을 반만주면, 두 얼룩말을 잡아먹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기 뭐야.

가뜩이나 혈안이 되었던 호랑이는 즉석에서 허락을 내렸데.

다음날 아침 여우가 얼룩말이 사는 집에 찾아가, 한 얼룩말을 불러내어 '저 안에 있는 얼룩말이 자기만 혼자 살려고 너를 죽이려 한다' 하고 말하고 또 다른 한 말을 불러내어 그렇게 말했데. 맨 처음에는 모두 다 안 믿었지만, 하루가 지나, 이틀..... 사흘.....

결국 나중에는 싸움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구나.

그뒤, 그 두 마리는.....

참! 너희들 생각에 어떻게 되었을것 같니?"

"아...마... 모두 죽음을 당했을...걸, 틀렸어?"

"아냐, 맞았어. 한 마리도 못 살고 모두다 죽고 말았어"

"서로들 끝까지 믿고 호랑이와 싸웠더라면, 모두 다 살았을텐데, 어리석게도....."

경수는 땅에 있는 풀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후, 이 말이
꽤나 미안했던지 머리를 극적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축구할때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한걸, 경수! 용서해 주겠니?
그말 취소할께"

"아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참았더라면 되는건데, 정말 미안해"
서로들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새까만 두사람의 손은 한 덩어리가 되었
다. 그리고는 쑥스러웠던지 입가에는 웃음이 흘렀다.

"우리도 그 두 마리의 얼룩말이 되자.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서로를 믿는 그런 얼룩말이 되자. 어떤 여우가 우리를 갈라
놓으려해도 절대로 갈라치지 않는 그런 얼룩말이 되자."

젊은 기백이 철철 넘치는 경수의 말에 우리 가슴은 펜스레 부풀어
올랐다. 모두들 웃음속에 쌓여 나무 밑을 나왔다.

"아까 축구할때, 우리 편 모두가 단결만 했더라면 틀림없이 승리는
우리것이었을거야."

나의 이말에 두 사람은 머리를 꼭 숙인 채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한번 푹푹 뭉쳐보자. 바위보다도 더 단단하게
아니 무쇠보다도 더..... 그럼, 내일의 승리는 꼭 우리 것이 될거야"
경수가 다시 말했다.

"축구 뿐만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
만 한다면, 저 북한 괴뢰 김 일성이라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거야.
그 악랄한 김 일성이 휴전선에 땅굴이다 무엇이든 하며 온갖 흉
책을 다 쓰고 있지만은 우리의 총화 단결앞에서는 두손을 들고 말거
야"

다시 힘주어 나는 말했다.

"참! 그 땅굴이라고하니 생각나는게 있어. 참 무서운 놈들야. 그

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것이 있어.

바로 후방에 있는,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파고 있을지 모르는 후방의 땅굴말야.

학생들의 해이된 태도, 아버님 어머님의 들 놀이다, 산 놀이다 하는 퇴폐풍조와 낙후된 정신 자세말야.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전방 휴전선에 파놓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해. 바로 네가 말한 이야기중의 그 여우말야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여우 아니겠어?

그러면서도 국토통일..... 국토통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국토통일, 국토통일하면 저절로 국토통일이 온다고 믿는지, 정말 한심스러워 "

"너 말 참 잘했다.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야 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입안에서만 도는 총화단결이야 누군들 못하겠니. 또 이것이 몇 주전에 있었던 월남전의 패전에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의타심..... 사대주의 사상말야, 이것도 어느것 못지 않는 패전의 주요 원인이 아니겠어.

우리 모든 국민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한을 한 핏줄로 이 올때까지 단결과 총화로써, 따뜻한 피가 흐를 수 있는, 동포애가 흐를 수 있는 튼튼한 핏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겠어. 나라를 잃고 헤매야만 하는 망국민의 설움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니? "

아무 말없이 건기만 했다. 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만이 우리 귀에 들릴 뿐이었다. 문득,

"우리 셋이 아무리 단결한다고 무슨 큰힘이 되겠니. 우리 세 사람의 힘이 어떻게 김 일성의 힘을 꺾을 수 있다고 말할수 있니..... "

하며 석이 입을 열었다.

"아냐, 그것은 네가 잘못 생각한거야. 우리 세사람의 힘이 아무리 적다해도 그 적은 힘이 뭉치고 뭉치면, 모이고 모이면, '작은 한 방울의 비가 모여 큰 바닷물을 이룬다'라는 말처럼, 어느 누구도 넘볼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힘이 되는거야.

'나짚이야' 하고 뒤로 돌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분열의 분구점이 되는거야.

나 하나만이라도 먼저 단결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올거야. 결국 모든 국민이 하나처럼 단결이 되어, 모두가 바라고 있는 국토통일을 눈앞에 볼 수 있을거야."

석이 얼굴을 푹 숙인 채, 한 동안 말을 못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네 말을 들어보니, 우리 세사람의 힘도 뭉치기만 하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양 어깨가 무거워 지는걸.

제 2, 제 3의 나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나도 다른 사람들을 계몽해야겠는걸"

세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어느 한곳에 모이는것 같았다. 모두들 김 일성,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말 내일이라도 국토통일이 되는 것만 같았다. 아까만 하더라도 그렇게 따갑던 태양도, 우리들의 단결이 꽤나 겁이 나는지, 서산속으로 몸을 감추고, 분한 양 빨알간 색깔만을 뿜을 뿐이었다.

* 고등부 우수작 *

태 권 도

이 정 연

(강원 춘천여고 2)

푸르름 머금은 햇살이 살그시 다가온다.
많은 가을의 이야기를 포용한 채로.....
등나무 아래 기대어 앉은 우리들에겐 이 햇살이란 얼
마나 아늑한 것인지 모른다.
마치 가을의 향연 속에 여왕이나 된 듯한 기분을 주
기 때문이랄까? 그래서 점심시간의 뜰악은 소담스런 향
연이 더 더욱 벌어진다.



순수한 웃음과 이야기들 속에서.....

"정연아, 톱 뉴스야."

등나무 아래 기대어 앉은 나를 향해 진희가 뛰어온다.

"애 너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니?"

어설픈 자세로 내 옆에 앉으며 물어왔다.

"무슨 시간이긴, 학생이 시간표도 모르고 다니니, 체육시간이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마치자 진희가 우습다는 듯이 날 쳐다보다가

"오늘은 시간표에 변동이 있다는 사실, 체육 대신 태권도를 한다나
봐."

"뭐라구"

내가 놀란 표정을 지어 보이자

"왜 의아스럽니? 난 내가 이런 소식에는 정통파라는 거 모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다. 며칠전 창 너머로 중학교 학생들의 태권도는 보았지만 우리가 한다는 건 뜻밖의 일이다.

"애, 내가 아까 태권도 선생님을 보았는데 까불다간 꾀짝 없겠어."

진희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난 듯이 떠들어 댔다. 시작종이 날 무렵이 되자 틀악의 아이들도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한다.

진희와 나는 운동장에 모여선 아이들 틈으로 갔다. 모두들 태권도를 한다는 사실 때문인지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시작종이 나자 아이들은 4열 횡대로 늘어섰다. 잠시후 단상 위엔 체육 선생님 대신 검은 머를 두르신 태권도 선생님이 올라 오셨다.

새로운 선생님의 출현에 모두들 웅성거렸다.

"조용히 해요,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전력증강 3운동의 하나로 태권도를 여학생들도 배우기로 되었습니다.

북한의 여러분만한 학생들은 상당한 실력을 쌓아 우리와는 3:1로 대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학생이 무슨 태권도냐 하는 식의 질문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능숙한 기교가 아니라 정신 상태입니다.

그들을 이기겠다는 정신 상태는 곧 승공, 그 자체와 직결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엄숙한 선언이 끝나자 아이들은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희가 내쪽을 보곤 눈을 찌푸린다.

선생님의 기합소리에 이어 기본 동작이 시작 되었다. 아이들은 어색한 행동에 서로를 쳐다보며 웃어 댔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이 지나고 말았다.

교실로 들어오는 도중에 진희는 자기의 불만을 마구 털어놓았다.

"도대체 여학생을 기계화 하려고 그러나 봐. 여학생에게 태권도의 개입이란 여학생 이미지가 싹 달라지는데."

진희뿐만 아니었다. 아이들은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하기가 그런다고 해서 태권도를 배우지 않을리는 만무한대도 말이다. 노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주요 화제는 태권도에 있었다.

서편 하늘에 밧그스름한 노을이 깔렸을 때 진희와 나는 학교를 나왔다.

매일 버스 통학을 하는 우리는 타고 갈 버스만 생각하면 끝이 지끈지끈하다. 우리는 종종 걸음으로 버스 주차장까지 갔다. 벌써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가방이 힘에 겨운듯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다.

"쌤발 가요."

하고 외치는 차장의 목소리가 오늘은 더 차증스럽기만 들렸다. 사람들이 하나 둘 오르기 시작하고 문턱까지 꼭 들어찼을 때야 뜨기 시작했다. 다행히 자리를 잡은 우리는 무로하게 창밖만 내다보았다.

불그스레한 불빛 아래의 사람들 표정은 한결같이 무표정한 얼굴들이다.

춥점 잃은 눈과 눈, 하루종일 지친 피로가 역역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들 훈훈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 앞에 앉아있던 노인은 벌써부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한참동안 석간에 눈을 주고 있던 중년 신사가 얼굴을 돌면서 옆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왜들 이북에서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반으로 접은 신문을 보라는 듯이 들여낸다.

"글쎄 말입니다. 8월 15일 같이 뜻 깊은 날에 온 국민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나, 여하튼 북한에서 우리를 알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힘에는 힘으로 대결해야지 관용만 찾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적십자 회담도 그렇지 그게 어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순수한 적십자 회담에 정책적인 노략만 일삼고 하는 짓이라고 그때위 짓들이니, 하긴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짓을 보면 한심스러워서.....

머리를 기른다 통바지다 하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두 눈 똑바로 떠도 모자랄텐데."

신문을 들여다 보시던 옆자리의 아저씨도 분개해서 말씀을 이으셨다.

"그래도 8.15사건 이후론 정신들 좀 차린 모양이에요. 여학교에서도 태권도를 하니 말입니다.

학생들도 요새 태권도를 배우나?"

아까 신문을 보시던 중년 신사가 내게 물어왔다. 나는 그냥 웃어버렸다. 오늘 오후 수라장이 되었던 태권도 시간을 생각하고 말이다.

그리곤 죄스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한 행동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항상 안일한 생각과 자기 이익만을 아는 생활, 나태하고 무질서한 생활에 타성이 붙은 우리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그들과 대결할 수 있을까? 나는 자못 의심스럽기만 했다.

그리고는 정중한 어조로 말씀하시던 태권도 선생님의 말씀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헤이된 상태에선 도저히 대결이란 불가능할지 모른다.

나태에서 근면으로 무질서한 생활에서 질서 정연한 생활로의 탈바꿈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또한 그들을 이기겠다는 굳건한 정신, 무장이 없이는 대결이란 요원한 이야기가 아닐까?

끼-익. 차가 정거를 한다. 진희가 내팔을 툭 친다.

"애, 별 생각하니, 다 왔어."

싸늘한 밤공기가 내 몸에 와 닿는다. 흙 냄새와 함께..... 나는 커다랗게 심호흡을 했다.

* 고등부 우수작 *

그 토요일 오후

이 회 친

(충북 충북고2-3)

아까시아 꽃도 시들해질 무렵 토요일 오후.

학교가 파하자, 우리 일당 5명은 책가방을 자기 집에다 두고, 동네 뒤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위로 올랐다.

햇살은 느티나무의 잎사귀를 비집고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숲안을 감도는 푸른 바람은 풀냄새를 싣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다.

우리는, 수령 300년이나 되었다는 소나무 부근의 아늑한 잔디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풀밭에서 쾅 한마리가 푸드득 깃을 털며 날아갔다.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딩딩딩, 덩딩딩, 너와 맹세한, 반지보며, 반지같이 동그란, 너의 얼굴 그리며....."

한수가 이러한 침묵을 깨뜨리고, 기타아를 치기 시작했다.

우리 일당 들은 흥이 나서, 어깨를 흔들며,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이별 일순 없다. 화가 이 세상 끝에 있다면, 끝까지 따라 가리라. 그래도 안되면 화, 안된다, 더 가지마....."

어디선가, 삐꾸기 울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으나, 우리의 노랫 소리 때문에 이윽고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일어나, 미친 듯이 가자가자(고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수의 기타아 반주는 점점 더 템포를 빨리해 갔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춤도 더욱 더 열광적으로 고조되어 갔다.

종식은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춤을 추다가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우리는 그러한 종식을 내려다 보며, 마구 웃어댔다.

조용하던 숲속은 마치 장날 시장 처럼 떠들썩 해졌다.

종식은 다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참 동안 유희를 즐기고 있을때, 아랫쪽에서 부터 대학생인 듯한 한쌍의 남녀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더 몸을 흔들었다.

얼마후, 그들 두 남녀는 소나무를 배경으로 서서, 우리들을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바라 보았다.

"딩딩딩 딩딩딩.....?"

한수는 두눈을 지그시 감고 더욱 힘차게 기타아 줄을 내리켰다.

한참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두 남녀는 서로 뭐라고 수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갑자기 손에 불끈 힘을 주는가 하면, 잠시 눈을

감아 보기도 하고, 농구화를 벗어서 흙을 털기도 하다가 우리가 춤추기를 끝내자,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띠고,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학생 기타아 좀 쳐보게. 노래 하나 해볼까 하는데……."

남자 대학생이 한수에게 손을 내밀자 한수는 우리들의 눈치를 한번 쓱 살피더니 순순히 기타아를 건네 주었다.

남자 대학생은 기타아를 받아 들고, 여자 쪽을 바라보며 썩 한번 웃더니, 잠시후 기타아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애국가로 시작하더니, 에비군의 노래, 승공의 노래, 도란도란 피는꽃, 고향의 봄 등, 그외에 다른 시시한 노래를 쉬지 않고 불러대었다.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노래에 야유를 보내며, 콧방귀를 끼었다.

그러자, 그들 두 남녀는 다시 애국가를 끝으로, 노래를 마치고는 기타아를 한수에게 돌려주더니 "

"모두들 앉아 보게. 내 할 말이 좀 있네."

하고, 우리에게 반 명령조로 말했다.

우리는 심히 불쾌했으나,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대학생이고 보면, 불복할 수도 없고 해서 내키지 않는 마음을 억누르고 두 대학생을 중심으로 빙 둘러 앉았다.

남대생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서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고, 승공의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자네들이 코웃음을 치던데, 그 이유가 뭐가?"

남대생의 이 말에 우리들은 무어라고 대답할 수 없어, 머리만 끄으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정문이 녀석이,

"촌 노래만 부르니까 그렇죠."

하고 말했다.

“하하하! 촌노래? 그럼 자네들은 대개 무슨 노래를 부르나?”

남대생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느긋한 어조로 말했다.

“팝송이나 포크송…… 그런것 있잖아요. 대학생 이면서 그런것도 몰라요?”

한수는 대학생을 깔보는 눈으로 바라 보았다.

남대생은 여자 쪽을 흘끔 바라보고, 의미있는 웃음을 웃더니,

“큰일이야 큰일 장차 이 나라를 양 어깨에 짊어질 젊은이들이 이 모양 들이니……”

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들 나보고 같은 젊은놈 끼리 혼제는 무슨 혼제야 하고 생각 할지 모르나 잘들 들어두게.

나도 자네들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 하루 10여 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노곤하고, 배는 고프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오늘 같은 토요일 날은 한주일의 밀린 피로를 푸는 것도 좋으나 자네들은 방법이 나빠! 도대체 그게 뭐야! 무슨 짓들이난 말야!

그렇게 늘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

대학생은 좀 전의 부드러운 얼굴과는 달리 사뭇 뿔대를 올렸다.

“대학생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할게 아녀요. 대학생이란 사람들이 공부는 안하고 매일 데모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옛날 부터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고…….”

나는 어떡하든 대학생의 입을 막아 버리려고, 위와 같이 말했으나 대학생은 자세하나 흐뜨리지 않고, 다시 전과 같이 웃음을 지으며 나의

어깨를 가볍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건 자네들의 오해야. 윗물이 흐리다고 해서 꼭 아랫물이 흐려야만 된다는 법칙은 없어.

왜냐하면, 인생은 수학 공식 처럼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국민 교육 현장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라고.....

나는 이 말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이 말의 의미를 자네들이 반추하여 충분히 이해 한다고 하면 흐린 상류의 물을 과감히 제거해서 냇물 전체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돼.

발본 색원 이라고나 할까.....

요즘 일부 대학에서 데모를* 한다, 문을 닫는다 해서 떠들고 있지만, 내가 생각 하기엔 그들이 모두 이 사회를 불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몇몇, 그러니까 극 소수의 학생 들이 선동을 하니까 군중 심리에 이끌리는 것 뿐이지, 진정 우리 대학생 들이 모두 불평 분자 들만 일까?"

잠자코 듣고 있던 나는, 슬며시 아이들을 둘러 보았다.

턱을 고이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처럼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 영익. 고개를 끄덕이며, 제법 노숙해 보이는 정문.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고, 긴 한숨을 내쉬는 종식,

키타아를 잔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다리를 끼고 앉아 있는 한수.

나는 이제껏 이들이 이렇게 심각해 있는 얼굴을 일찌기 본일이 없었다.

"그건 그래요."

이제껏 침묵만 지키고 다소곳이 미소지며 앉아 있던 여대생이 입을 열었다.

"요즘, 신문이나 잡지 등에 나오는 글귀 중에, 우리 젊은이 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눈에 띄어요.

청바지에, 통키타니 해서, 어른 들은 우리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젊은이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통키타를 젊은이의 대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대생의 말이 끝나자 마자, 다시 남대생이 말을 이었다.

"무엇 보다도 우리에게서 지금 적응이 중요 한거야.

아무리 대학생 들이, 방종과 허영에 날뛰다 하더라도 자네들은 한눈 팔지 말고 각자 자기의 목표를 위해 응비의 날개를 펴야되는 거야. 나는 믿어, 우리 젊은이 들을.....

얼마전 인지 사태에 고무를 받아, 북괴 김 일성이 중공을 방문하자 박 대통령께서 긴급 조치 9호를 발표한 일이 있었지.

그러자, 우리 대학생 들은 이에 적극 참여, 휴강 중이던 대학은 일제히 문을 열고 반공 결기 대회를 개최 하고, 면학에 힘쓸 것을 다짐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젊은이 들의 저력이 얼마나 큰지를 명백히 알수 있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릴만큼 조용했다.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 숲속이 어둠 침침 했다가 다시 태양이 구름 속으로 부터 나와 밝아질때 까지도 침묵은 지속 되었다.

나는 이러한 침묵이 어쩐지 거북스러워,

"여당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야당의 말을 들으면 그것도 옳은 것 같아, 종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배님께서 이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좋은 질문이야. A의 말을 들으면 A가 옳은 것 같고, B의 말을 들으면 B가 옳은 것 같고, 하는 것은 아직 자네의 이성이 바르게 사고하고 바르게 처세 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되는 것일세. 자네 시기쯤 되면 정치나 그 밖의 사회의 것에 서서히 눈이 트여져 자기 나름대로 비판도 해보고 해서, 못마땅 할때는 무비판적으로 떠드는데 그런 행동은 절대 옳지 못한 일 일세.

"자네들 배워서 알테지만, 플라톤의 4주덕 이라는 것이 있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것 말이죠."

약삭빠른 영익이 얼른 대답했다.

"오! 아주 잘 아는군 그래.

너희들도 아다시피 4주덕의 기본 개념은 각자 자기가 맡은바 의무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지. 정치인은 정치인 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제각기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말이지.

학생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정치와 그의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것은 못돼.

물론 내 뜻이 정치나 사회의 일에 대해 아주 문외한이 되라는 것은 아냐.

자기 나름 대로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되 그것을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해 자기가 무슨 정치가나 된 것 처럼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 말일세.

이만하면 의문이 풀렸나?"

"네, 아주 잘알았습니다."

대학생의 말을 듣고 나자 나는 속이 후련해져 옴을 느꼈다.

만인이 각자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며, 산다면 이 사회는 얼마
나 강녕하겠는가?

내가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남대생은 다시 입을 열었다.

"현 시기는 여야끼리 왈가왈부 할때가 아니야. 오직, 남북 통일이
라는 우리민족의 대염원을 위해 일치 단결, 힘차게 나가야만 해.

그러나 일부 지식인 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되풀이 하는 사람
들도 있는데 이번 인지 사태를 보고는 정신들 좀 차렸겠지.

그리고..... 자주 국방의 태세를 좀더 굳건히 다져야 하겠는데 그것
은 미군이 언제 우리 한반도에서 철수할지 모르기 때문이지. 당분
간은 염려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 들은 정치나 군사적인 일은 일단 정부에 맡겨두
고, 오직 공부에만 전심 전력하여 확고한 실력을 쌓는거야.

자네들 보아하니 꽤 똑똑들 하게 생겼는데 나의 이 말을 명심하여
차후론 이러한 추태를 다시는 재연시키지 말게 알았나!"

우리는 무슨 위압감 같은 것을 느끼며 일제히 입을 모아

"네!"

하고 외쳤다.

"우리 학생 들이 지금 이 시국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한 것
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종식의 눈은 사뭇 반짝거렸다.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는 공부야 공부. 하나도 공부! 둘도 공부!
셋도 공부! 오직 이런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가야만 하고, 들

책은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말고, 자신의 이성애 입각하여 명확한 판단을 세워 아무리 거센 유혹이 손짓 한다 해도 두눈 꼭 감고 일관된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나가는 것과, 또한가지는 반공 의식을 좀더 고취 시켜야돼.

이 유순하고 소박한 국민 들에게 또다시 전날의 6.25와 같은 처참한 비극이 생겨서는 안돼.

그러니 누구 보다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반공 대열의 선두에 서서 기필코 승공 통일을 이룩 해야만 돼.

이상 3가지가 나는 현 시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본다.

자, 이제 딱딱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노래하나 부르지. 뭐가 좋을까?"

"승공의 노래!"

우리가 이렇게 외치자 두 대학생은 흐뭇한듯 서로 마주보며 만면에 기쁜 웃음을 지었다.

"딩딩딩, 덩덩딩....."

한수가 기타아로 전주곡을 넣기 시작 했다.

"찬란히 솟는 해도 하나 이듯이 조국은 하나요, 겨레도 한겨레..."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깊숙이 드리누워서 이제막 찬란한 노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모여 통일을 구가하듯.....

"승공의 굳은 신념 뜨거운 맹세로 살기 좋은 문화 낙원 이뤄 나가자.

은 누리에 휘날리는 자유의 푸른 깃발. 승공, 승공의 길로, 우리 모두 나섰다!"

* 고등부 우수작 *

반공과 학생의 자세

고 은 지

(전북 정읍여고 3-2)



어김없이 밤은 오고 또 밝아온다.

일각의 여유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자연은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아니 신비라 할 수 있을 만큼 신기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질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치 않고 대자연은 포용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포용성과는 달리 아름다운 이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가 있으니 바로 공산당들이라 하겠다.

닐쎬 6.25가 일어난지 25주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십년이 두번을 지나고 세번째가 가까워 오는데 북한 공산당들은 아직도 침략군성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나는 전에는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했었다. 아니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

전쟁의 비참함을 들으면서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보냐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하지만 작년에 '증언'이라는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그때 까지만 해도 전쟁에 대해서 심각

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하여 주면 과장으로 생각하여 왔던 나는 새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겨우 15, 16세 정도 밖에 안되는 철부지 소년에게 까지 총을 들고 동족의 가슴에 겨누게 하는 비극, 시체를 넘고 넘어 총을 맞고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

실사 동족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죽일수 있을까. 개나 돼지에게도 것처럼 잔인하게 대하지는 못할진데 한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의 가슴에 피로 물들여야 하는 그들의 잔혹성앞에 몸서리 쳐졌다.

언젠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와 이야기 도중에 6.25 때의 이야기가 나왔다.

피뢰군들이 후퇴할때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도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라고 한다음에 그 속에 엎드리라고 해 놓고서 흙을 뿌린 다음 대창으로 썰러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였단다.

또한 어느 동네에서는 과수원 밑에 굉장히 큰 방공호를 파놓고 숨어 있었는데 어린이가 방공호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발각이 나서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여서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아 몇백명을 한꺼번에 죽여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언 다른나라의 무서운 소설책을 읽는 것 같아서 믿기지 않았다.

다행히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아주머니는 가족들의 시체를 찾으려고 시체와 시체 사이를 무서운 줄도 모르고 헤매었다.

수많은 애국지사 와 학생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버린 뼈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린 나 자신이 무척 부끄러워졌다.

공산당이 나쁘다.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사실은 대한국민이라면 세살 먹은 애기라도 대답할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반공 운운...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성조차도 없는 것이다.

허나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의 행위는 모든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반 국민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도 없지 않음을 볼때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월남, 크메르가 이미 공산화 되어 버렸고 라오스도 거의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동정으로 그칠일은 아닌것 같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서 미리 예방을 하여야 겠다. 결코 월남, 크메르가 그것으로만 끝나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 나라들이 공산화 되어 버린 것은 공산당들에 비해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나라안에서의 부조리 현상 때문이다.

부패할대로 부패한 정치에다 국군 장성들의 부정, 미국의 원조를 무척 많이 받았지만 그 원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쓴것이 아니라 몇몇 수뇌들의 사복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를 신임하지 않고 오래 끌어온 전쟁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던 것이다.

전쟁은 어느 것보다 정신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군인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인사나 재벌들은 도피행각을 차리니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북괴들은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한지가 오래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작년의 천인공노할 공산당들의 만행 또한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 즉 땅굴사건과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을 우리는 체험했다.

가장 존엄하고 신성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8.15경축식장에서의 돌발사건을 볼때에 북한 공산당들의 잔인성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항상 존경해 오던 고 육 영수 여사를 서거케 한 사건. 하늘도 땅도 모든 사람 삼천리 방방곡곡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몸서리 쳐지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게 엄연한 북괴들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만고의 역적 문 세광.

북괴, 그러나 우리는 분노하고 있을때 만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모든 군사시설, 비행장, 무기공장 등등은 지하로 이미 들어가 버렸고 또한 남쪽으로 남쪽으로 땅굴을 파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 400m로 파 내려 오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허나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정부에서 땅굴을 발견하였으니 망정이지...

허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굴이 약 10여개로 추측된다하니.....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구실을 하지 못해서 인지 두더지가 되어 버린 북한 공산당들.

지금 어느 곳에서 인간 두더지들이 땅을 파고 있는지 모른다.

허나, 북괴들이 아무리 날뛰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행동하기에 따라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를 살펴볼때 우리 민족은 타민족에게 항상 많은 침입을 받아왔다.

그때 마다 우리 민족들은 이에 맞써서 대항해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일치되었을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도자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지도자가 좋은 전략을 내놓아야 그 밑의 사람들의 호응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대첩등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부녀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적들과 맞써 싸우고 이겼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적을 이기려면 먼저 내적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을 국민총화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선조들이 시련을 극복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여 나가려면 길은 오로지 하나 뿐이다.

단결로 국민 총화를 이룩하는것. 그것만이 자주 국방의 길이며 평화통일의 길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국제 정세, 실리 외교만을 추구하는 이때 우리는 어느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우리 국민 국민 각자가 좀 더 노력하여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신념속에서 자주 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겠다.

요즈음 우리 정부에서는 부조리를 추방하는 부정 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여 많은 부조리를 추방 시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무척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하여 신문지상이나 라디오에서 발표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다. 많은 달러를 외국에 도출시키고 외국에 도피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상류층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박모씨 처럼 벡타이 까지도 외제를 구입하고 많은 거액을 향락에 허비해 버리는 비 국민적 행동을 하여 나라를 좀먹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끝까지 서울을 사수하시겠다는 굳은 결의를 말씀하시기 까지 하셨는데 국민된 도리로써 과연 그러한 행동이 어찌 나올수 있느냐하는 의아심과 함께 분노마저 치밀어 올라온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이기적인 사고 방식속에서 살게 될때 국민 총화는 물론 영망이 되어 버리고 좋아할 사람이라곤 딱 한 사람 밖에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북괴 괴수 김일성이다.

나라가 있고 자기가 있지 자기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라는 말은 아니다.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다. 항상 정신 무장을 철저히 하여서 조금도 헛점을 보이지 않는 길이 바람직한 길인 것이다.

김 일성이가 중공을 방문하고 뒤이어 소련을 방문하려다가 입국을 거절 당하였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적화 통일이라는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도 역시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도산 안 창호 선생님이 민족의 자본은 힘이라 하였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힘을 기르려면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느 누구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 뿐이다.

우리가 노력하는데서 외국의 원조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미국 또는 자유우방국가에서 도와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그릇된 사고 방식이라 하겠다.

미국에서 한반도 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긴 하지만 역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미국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네, 얼마

를 원조해 주네 하지만 그들은 역시 미국인이지 한민족은 아닌 것이다.

갈수록 긴장의 고도는 더해지고 있다.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김 일성은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얼마전 까지만 해도 학원 사태가 무척 복잡했었다. 연일 데모다 휴강이다 하여 학업에 정진하여 진리 탐구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였었지만 다행히도 자각하여 총화로 다져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안보 쫓기 대회를 하고 굳은 결의를 다시 재확인하고 방위 성금을 거두어 들고 있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연일 학업을 전폐하고 군사훈련만을 강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른 어느 때 보다는 우리는 자기의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길이다.

항상 근검 절약하는 생활 속에서 반공 정신을 생활속에 투착시켜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잘 따라가며 우리는 학생이니까 무관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이것은 매우 그릇된 생각이다.

달마다 하고 있는 민방공훈련, 6월부터 민방위훈련이라고 명명 했지만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애국의 길이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나서의 자기의 생명을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무척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자기의 생명의 고귀함을 모르는 사람이 타인의 존엄성을 알리가 없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있다. 이 학도 호국단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학도 호국단을 통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이제는 반공하는 자세에서 멸공하는 자세로 바뀔 때가 온 것 같다.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공산당을 몰아내어 버려 자유와 평화만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공산당치하에서 신음하고 자유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장발족이니 허피족이니 하고 다니고 유원지어나 놀러 다니며 데모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신중히 우리가 처해 있는 시국을 깨달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며 멸공의 정신 속에서 학업을 충실히 하여야겠다.

고등부 가작

그 날

이 하 영

(강원 강릉상고2-1)

긴 세월 동안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그토록 피를 흘리던 월남이, 백기를 들어, 대지와 함께 피어 오르는 봄을 잔직했던 우리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비참했던 지난 봄.

그날 아침, 나는 어수선한 교실의 분위기를 맛 보아야 했다.

무슨 동요인지 어수선 속에서도 괜하게 엄숙해진 급우들을 보며, 난 자리에 앉자마자 책을 열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속을 마구 뒤흔드는 수많은 일들이며, 특히 월남 민족의 처절함이 목을 메이게 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왜 한 핏줄의 민족끼리 서로 시기하며 견제해야 하는가? 서로 웃으며 오손도손 정을 나눌 수도 있건만 서로를 저주하며 총과 칼을 닦아야 하는 그 처절한 한민족은 그 누구의 노여움으로 이루어진 비극이란 말인가?'

나는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이때, 누가 나의 등에 손을 얹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민규였다. 민규는 웃으며 내 옆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

" 뭘 생각하니? "

민규는 내가 보던 책을 가져다 훑어보며 말했다.

" 응?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

난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떠엄떠엄 얼버무려 버리려 했다.

그러나 민규는 눈치 채 듯,

" 큰일이지? 아시아 정세..... "

하곤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난 민규의 그 한마디가 무척이나 시원스러웠다. 난 누군가와 그 초조스러운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 놓고 싶었던 것이었다.

난 먼저 민규를 보며 입을 열었다.

" 김일성은 매우 흥분 해 있을거야. 무척이나 기운이 생기고 자신을 갖게 되겠지? "

그럼 그 우왕스러운 머리엔 어떤 생각이 번지게 될까?

남침?

그가 자주 떠드는 속전속결이란 숙어를 실제 시도하려고 덤빌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니? "

민규의 얼굴에도 심각함이 여실히 나타났다. 나와 민규는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공부만 해야 할때가 아니라고 봐. 내 나라가 존재 해야 공부가 있고 자유가 있을게 아니니? "

이런 급박한 국가의 위급은 우리들, 이만큼이나 성장 해 있는 우리 자신들이 처리 해야 하는거야. "

난 재빨리 반문했다.

" 우리가 뭘, 어떻게? "

민규는 난처 한 듯 책으로 시선을 묻는다. 내가 말을 이었다.

"맞어. 우리는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거야."

민규와 나의 시선은 마주쳤다. 우리는 뭘 해야하나? 점점 초조스러워져 가는 이 사태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 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우리학교 학생만이라도 이 위급한 사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교련학습 강화를 주장해 보자."

내가 말하자 민규는 조용히 눈을 껌뻑거리 보더니,

"맞어, 사실을 생각해 봐. 한창 힘이 넘쳐 흐르는 우리뿐인 지금 총사격 실력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가 아니야?"

그런가 하면 북한의 우리 또래는 완전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지 않아? 우선 우리학교만이라도 교련교육을 강화할 수 없나를 말씀 드려보자. 그럼 자연히 전국적으로 교련교육 강화가 실행되게 될게 아니야? 해야 할 교련교육 강화니까."

하며 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주시한다.

나의 얼굴엔 미소가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민규도 웃고 있었다.

"그래. 오늘 방과후에 김선생님께 가서 말씀 드려보자."

나의 말이었다.

* * * * *

요란스러운 벨이 교정에 울려 퍼지자 민규와 난 재빨리 교실을 빠져 나와 교무실로 향했다.

생각 했던대로 선생님께선 안 계셨다. 또 학교 뒷산을 오르고 계시리라. 둘은 험레벌떡 학교 뒷산을 향했다. 무엇이 그토록 바빴는지 모른다.

우리는 훈훈히 밀리어 오는 봄의 훈풍을 안으며 마구 달렸다.

가끔 스치는 진달래 향기는 부푼 마음을 조용히 감싸 주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민규도 역시…… 크게 통쾌하게 들은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

언덕 평지다. 선생님께서 이곳까지 가끔 나오시는 것을 보았기에 이곳까지만 오면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 했으나 선생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가파른 산을 기듯이 오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이곳까진 오솔길이 나 있으나 이곳부터는 길이 없는 그냥 가파른 산인 것이다.

숨이 콧속 막히어 왔으나 시가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란 참으로 장관이었다. 우뚝 솟은 몇개의 큰 건물에 웅기종기 모인 조그마한 누구들인가의 보금자리가 숨을 죽이고 질서 정연히 나열 되어 있는 것이다.

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랐을때 옷에 땀이 축축이 배어 버렸다. 예상했던 대로 저쪽 바위 위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김선생님이었다.

선생님께선 복덕을 향하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김선생님은 6.25 참전 용사로서 파편이 아직 몸 속에 박혀 있다 하지만, 그 누구 못지않는 과거의 용사다운 강한 체력을 과시하는 선생님이시다.

우리는 조용히 선생님 곁으로 다가갔다. 과연 무슨말로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으나 민규가 용기를 낸 듯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듯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는 선생님의 이마엔 땀방울이 축축히 맺혀 있음으로 보아 올라오신지 얼마 안됨을 알 수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의 땀을 비벼내며 미소를 지으려 하신다.

"아니, 너희들 여기까지 웬일이냐?"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선생님께선 바위 모서리에 앉으신다. 민규가 나선다.

"선생님, 말씀 드릴것이 있어서요."

이말에 선생님께선 뒤를 재빨리 돌아다 보시며 우리의 얼굴을 번갈아 살핀다.

"왜 그러니? 무슨일이라도 났니?"

"아뇨."

민규는 부정하며 나란히 선생님 옆자리를 택해 앉는다. 나도 그옆에 앉았다.

"너희들도 이 산에 잘 오르느냐?"

"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 와 본지는 오래 됐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런데 웬일이지? 너희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한데....."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지금 국가의 위태로움을 너무나 잘 아는 저희들이기에 몇가지 말씀 드리려고 선생님을 여기까지 찾아 왔어요."

내가 숨을 틀리려는데 민규가 재빨리 이어 받는다.

"우리의 교련교육은 현 우리의 처지를 보아 매우 미약하다고 봅니다.

언제 밀고 내려 올 지 모르는 북괴는 우리들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저희 학교만이라도 교련교육을 강화해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통일하여 평화로운 삶을 펼칠 때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잃은 나라는 어떻게 찾죠?

나라 잃은 슬픔으로 통곡 뿐,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학교만이라도 교련교육을 강화해요.

전국 각 타학교도 우리의 정신에 호응하여 모두 열렬히 반공에 참여할 겁니다. ”

선생님께서 휘날리어 오는 봄바람을 맛 보려는 듯이 크게 심호흡을 하시곤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기시며 입을 여신다.

“좋은 정신들이다. 능히 괴뢰군들을 이길 수 있어.

맞다. 봉산군은 너희들이 막아야 한다.

국군은 천선에서 싸우는 것이 전사의 의무지. 그러나 괴뢰군을 봐라 모두 비겁한 녀석들이고, 능청스러운 녀석들이다. 그놈들은 틀림없이 양민을 상대로 후방으로 침투 할거다. 너희들 힘이 필요 해. 그런 조잡스러운 악을 막을 사람은 너희들 뿐이다.

그래서 교련교육을 시작했고 또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헤쳐 겨우 체제를 잡았지 않았느냐. 물론 귀찮을 너희들일 것이다.

낭만에 젖어 들어야 할 시기, 청춘의 너희들에게 총을 주며 총검술을 시키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이 조금이나마 안정되는 듯 싶다고 안심을 하다 보면 국가도 잃어버리고 마는 불상사가 안일어 나리라고 그 누가 장담 하겠느냐?

너희 들이나마 자진 교련교육을 주장해 나올 만큼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쁜 한편 또 고맙다. ”

“선생님, 저희들도 교련교육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귀찮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한들의 힘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학생들 모두가 뭉치다면 김일성도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 할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

나의 말이었다. 선생님께서 말을 받으신다.

"알겠다. 교련교육 강화는 곧 추진 될 것이다. 나라에선 너희들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보존을 계획 한다.

그러나 많은 교련교육을 받는다고 꼭 우리가 힘을 기를 수 있는건 아니야. 그 이전에 우선 공산당을 이기겠다는 투철한 정신만 너희들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고 있다면 교련교육이 필요치 않을수도 있어. 교련교육은 다름아닌 정신, 수업하는 너희들의 정신에 의해 성과가 결정 되는거야.

무슨일이라도 그렇겠지만 흐릿한 정신과 해 보겠다는 각오에, 물론 정신과의 차이를 너희들은 어느 정도라고 대답 할 수 있겠느냐?

정신, 너희들의 맑은 정신 속에서 힘이 넘쳐 흐르고, 피퇴군도 쳐 부술 수 있는 강인한 대한의 남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누군가 공부는 후에 한다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은 어느 세대가 메꾸겠니?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지식 앞엔 그 어떤 무력도, 무릎을 꿇고 만단다. 너희들 입에 오른 그 반공이 과연 총칼을 들고서 공산당을 막는 것만 일까?

이 사회는 절름발이론 결코 지속될 수 없어. 농촌에서 쌀이 생산되어야 하고 공장에선 옷이 생산되어야 입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 아니겠냐.

벌거벗고 먹기만 한다고 살 수 있겠으며 먹지 못하고 옷만 입고 있는다면 모두는 곧 삶에서 이탈되고 말 것이다.

모두 총만 들고 공산당을 막겠다고 나선다면 그것도 크나 큰 사회의 절름발이 현상으로 지적 되어야겠지.

그러나 또 모두 총을 멀리 한다면 공산당에게 먹히고 말지. 그러기

에 우리 모든 국민은 싸우면서 건설 해야 하는거야.

한손엔 펜을 들고 한손엔 총을 든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한손엔 삽,
그물, 팽이를 들고 한손엔 총을 들어야 하는 농부, 어부, 광부...

그리고 한손으론 책장을 뒤적이고 한손으론 총을 감싸는 한국 학생들이
될때 그 어떤 오랑캐 녀석들이 우리에게 도전 해 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무에만 철저히 응한다면 그건 공산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야.

교련교육 강화 문제는 좋은 의견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아까도 내가 말 했지
만 나라에선 너희들보다 먼저 민족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
으니까.

너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 지는 임무에만 충실하면 되는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임무는 공부하며 총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단다. "

난 허공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내 조국 내 강산을 붉은 무리의 손아귀에 넘겨선 결코 안 될 것이
다. 우리 자신들의 의무, 자신들이 가져야 할 의무를 잊지 말아야겠다.'
민규가 날 툇 쳐 왔다. 선생님께서 벌써 저만큼 내려 가시고 계시는
것이였다. 난 생각에 잠겨 인사도 못 드린 것이였다. 내가 소리쳤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

"오냐 "

선생님께서서는 뒤를 돌아다 보시곤 웃으신다. 선생님께서 사라지신 후
우리는 나란히 국민학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 지금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텅빈 교실들 뿐이다. 지금쯤 코를 흘리며 엄마, 아빠에게 재롱
을 부리고 있을 그 어린 꼬마들에게 월남 꼬마와 같은 처절한 피 비린

내를 맛 보여선 결코 안 되리라.

민규와 난 서로를 마주 보며 웃고 있었다. 저녁 놀이 대지를 붉게 물들여 내려 왔다. 내일 또 만나자는듯 생긋히 미소하며 모습을 감추는 저 태양만은 우리 둘의 반공을, 아니 우리 삼천만 국민의 굳센 반공 정신을 아리라.

진실되고 굳센 우리의 멸공 정신을.....

고등부 가작

영아의 슬픔

박 순 이

(강원 춘천여고1)



바람이 차다.

호수 주변에 짙은 안개가 머물러 있다.

수면 위에 부서지는 무수한 불빛들.

영아의 슬픈 얼굴이 떠 오른다.

5교시 작문 시간이었다.

일주일애 단 한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재미있는 강의 때문에 모든 아 이들이 이 시간을 꼬박 기다린다.

"오늘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우리들은 맥이 빠져

"선생님보다 저희들이 더 잘압니다."

등등의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칠판에 커다랗게 '鮮于輝의 불꽃'이라 적으셨다. 그리고는 희게 포장된 책을 반쯤 열어 조용조용 읽기 시작하셨다.

아이들이 일시에 조용해졌다.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제나름대로 가만히 살겠다는 주인공 현이가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런지 모두 긴장하고 들었다.

현이와 잘 아는 조선생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매를 맞아 죽어가는 장면이 이르러 갑자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침 종이 울려 선생님은 모르고 나가셨지만 나는 그 울음이 분명 영아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영아는 일년이 다 가도록 아이들과 거의 말이 없는 아이다.

오후 늦게 교정으로 가득 떨어지는 낙조의 붉은 빛을 멍하니 보고 있으려면, 바람에 물려 다니는 낙엽의 무리들을 보고 있으려면 텅빈 교실에서 영아와 나는 몇 번인가 눈을 마주쳐 서로 멍적게 웃곤 하였다.

언젠가 '감초'라는 별명이 붙은 반 아이가

"영아야, 난 너의 우울을 알고 싶어.

모든 고민, 모든 슬픔을 너 혼자 지낸 것같은 네 표정은 나뿐아니라 주위의 아이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거든.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없겠니?"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건네자 다른 아이들도 동감이 있는지 손뼉을 치면서 웃어댔다.

하지만 영아는 '미안해' 했을 뿐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반아이들은 슬픈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여인이라 짓궂게 별명을 붙여버리고는 단념해 버렸다.

수업이 방금 끝났는데도 가을이 깊어진 뒤라 어둠은 곧 찾아왔다.

교실 창가에서 우두커니 한 들 교정을 나서는 아이들을 뒤쫓고 있으려니까 언제 내걸고 영아가 와 있었다.

"순이야 한바탕 뛰지 않을래, 이 쪽 현관에서 백합나무를 돌아 저 쪽 정구장까지 갔다가 오자."

왜지 영아의 이런 부탁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있는데 대답도 듣지 않고 영아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뛰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말이라고는 통 모르고 우리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영아가 그런 부탁을 해온 것도 신기하지만 언젠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정구장을 돌아서 목백합에 이르렀을 때 이미 캄캄해졌고 숨이 턱에 닿아 영아를 쫓아 갔다.

영아는 내 기척을 느꼈는지 뛰다 말고 내 곁으로 와서 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와 너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나의 자존심, 어쩔 너의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더구나.

혼자 우울을 겪고 있는 것만큼이나 자신을 슬프게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고 달리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고……

넌 내가 바보라고 생각 않니?

난 오늘처럼 작문 시간이 싫고 선생님이 밉고 내가 싫은 날은 없었어. 그것이 더욱 나를 슬프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처럼 자신을 싫증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영아의 차분하고 냉기가 서린 듯한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다.

" '불꽃' 을 모두 읽어 봤니 ?

남을 괴롭히지 않고 그저 저대로 살아가겠다던 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인간을 만든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

영아의 얼굴엔 공산주의자들을 비꼬는 냉소가 차게 흘렀다.

" 다만 어울리지 않는 생활양식을 거부하고 남으로 내려온 것 외에 아무런 반항도 피하지 않은 한 무력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 조선생의 아버지를 때려서 죽이는 무자비한 행동 "

책의 부분을 외우고 있음이 틀림없다. 울음소리는 분명 그 부분에서였다.

" 난 작문 선생님이 이 부분을 낭독하실 때는 나의 오빠 죽음을 보는 것 같았어.

오빠도 조선생의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수십 번은 들었거든.

그 덕분에 엄마는 머리가 이상해져 20년이 넘도록 방에서만 살으셔. 멀쩡한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맘대로 다닐 수 없는 가엾은 존재. 아버지도 그나마 그들에게 매를 맞아 날씨가 궂은 날이면 온 몸이 쭈신다고 불편해 하시는 불쌍한 분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집에 양녀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분들은 좋은 분들이서 아직 한번도 나의 친 어머니, 친 아버지임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 "

영아의 고통, 영아의 슬픔이 가슴 저 밑으로 흘러와 뜨거운 눈물이 목을 메게했다.

' 바보 울긴 ' 하면서 남의 일처럼 웃었다.

사람은 어느 때 냉정해질 수 있는 걸까 ?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갖는 그들에 대한 증오가 나의 증오이기도 해. 그렇다고 그들을 증오하는 감정이 나의 비참한 현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들을 마음 편하게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일어나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눌러왔던 분노와 증오가 나로 하여금 나를 이길 수 없는 미운 인간으로 만들어, 6.25도 겪어보지 못했을 나처럼 비참한 환경일 수도 없는 선생님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싫었어.

“ 순이야, 내 우울에 내가 짜증스러워 함부로 지껄이는 날 용서해 주겠니? ”

어떻게 그것을 우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숙직 선생님이 빨리 집에 가라는 소리에 추위를 온 몸에 느끼며 영아와 나는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나왔다.

내게는 영아의 슬픔을 지닌 운명을 바꾸어 줄 수는 없는 걸까?

공산주의자들의 행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새삼스레 끓어 오른다.

* 고등부 가작 *

어 머 니

이 은 옥

(충남 천안 북자여고2)

밤나무가 너무 많고 짹짹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을 밤나무골이라고 부른다.

이십여 가구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우리 마을은 언제나 조용 하며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곳이다.



대개 밤나무골 사람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에서 농사나 짓는 예가 많다.

구부러져간 늪다란 언덕 위의 빨간 초가집이 우리 집인데 동네사람들은 모두 과부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에 난 모난 데 없이 해맑게 커왔고 지금 내 하나 밖에 없는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내가 이렇게 크기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내게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궁금 속에서 저내면서도 내 머리속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라져갔다.

그런데 요 몇 달 전 갑작스런 오빠의 귀향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와 조국과 자유와 통일에 관한 것을.

"어머니"

막 잠아 들려고 하는 즈음이였다.

대문의 방울소리와 함께, 굵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마, 오빠야. 엄마, 오빠 왔어."

"뭐? 니 오빠가?"

어머니는 껌 매시던 양말을 집어 던지며 급히 마루로 나가시었다.

초록색의 낮은 생철 대문 위로 젊고 혈기있는 얼굴이 보였다.

"아니, 왜 일어나? 으응?"

대문에 들어서시는 오빠의 손목을 잡으며 바빠 물으셨다.

"아이, 어머니. 들어가서 이야기 해요. 숨이 차 죽겠는데……."

혜순아, 나 냉수 한 그릇만. 아! 목탄다."

오빠는 유쾌한 웃음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섰다.

"아니? 혜구야. 지금 방학도 아닌데 왜 일어나?"

너 혹시 데모 한 것은 아니겠지?"

어머니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었다.

"어머니. 때는 혁명시대입니다.

언론의 탄압과 대학 생활의 자유화를 위해 그리고 부조리한 정부의

새 시대를 위해 데모한 것이 뭐 큰 죄가 됩니까?

우린 용감히 일어선 것입니다."

오빠는 토박토박 말하며 도전하듯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먼 허공을 바라보셨다.

"혜구야. 젊음이 참 좋긴 하구나.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도 다만

젊다는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고 '청춘'이란 단어에 불가능이란 없

으니. 무엇이든지 혈기대로 처리하고 계산하는 그 불같은 행동이 지

성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일어설 때 그 용기는 참되지만 그 일이

일국의 혼란과 헛점을 보이는 것이라면 지성은 지성이기 전에 무모한

똑동일 뿐이다.

네가 보다시피 난 늙었고, 구시대를 살아왔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넌 집에 오자마자 이런 소리 하니까 엄마를 의아하게 생각하겠지?

난 이십여 년 동안 너희에게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혜구는 아주 간난 아기일 때 네 아버지를 보았을 테지만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거야.

네 아버지는 팔이 하나 없는, 그것도 반신불구로 몇 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 혼자 너희들을 키우면서 너희에게 아버지란 이름을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했지. 무심코 너희들이 아버지를 물으면 화를 내면서 입을 다물게 만들곤 했어.

너 혜구도 철이 들고 부터는 아버지에 대해 일체 묻지를 않더구나.

혜구야,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너희가 이렇게 크도록, 내 머리에 이렇게 흰 머리가 생기도록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난 더욱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좀 편안히 앉아서 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너희가 다 소화하리라 믿기에 난 우리의 과거를, 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알겠니?"

어느덧 어머니의 시선에는 비안개같은 서러움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다.

난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의 입에서 처음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 마음을 조이며 움직이려 하는 어머니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난 것은 사뵈 일 년 전 쯤이었다. 내 나이도, 아버지 나이도 어렸었다.

난 소학교를 졸업했지만 네 아버지는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일자

무식이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아마 이 엄마의 가난때문이었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다정하게 살았고 행복했지.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유월 이십오일, 그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난 것이지.

난 지금 육 이오를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그 피와 죽음의 암담함이란 너희는 상상도 못할 비극이었어.

그해. 팔월에 이 밤나무골에 피뢰군이 들어왔고 우습게도 운명의 장난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인민반장인가 하는 직책을 맡았다. 난 못하게 말리고 도망가자고 까지 해 보았으나 하지만……”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숙이셨다. 교뇌의 그림자가 가슴 내부에 가득 깔려 있는 것 같았다.

난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놀랐거니와 아버지께서 인민반장까지 지냈다는 몸서리쳐지는 사실에 가슴을 아프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민족에 대한 수치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다시 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날이 갈수록 네 아버지의 성격은 포악해 갔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쁘게 대했던 사람들을 이를 갈면서 미워했다. 이들은 무조건 총살이었고 그것보다도 더 악독한 방법으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선량한 사람조차 체포해 가고 고문을 하고, 아마 그 때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죽어갔을 것이다.

난 안절부절하며 지냈다. 너무나 쉽게 명예에 도취되어 버리는 네

아버지를 난 깨우쳐주고 싶었어.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 너의 아버지는 거의 미친듯이 사람들을 학대했지.

밤이면 밤마다 수없이 죽어간 영혼들이 내 꿈속에 나타나 울곤했지. 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 년을 보내는 것 만큼이나 지루했었다. 잠도 제대로 못 차고 몸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말라갔다. 더위가 지날 무렵, 벼란간 인민군은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지.

피뢰군을 등에 업고 무 차별한 살인을 저지른 네 아버지가 도망가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힌 거야. "

어머니의 뺨에 주룩 눈물이 내렸다.

언제나 처럼 얼굴에 보이던 안식과 평정이 오늘에야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넌 이런 아버지가 이 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수치스럽고 죄스럽지 않느냐?"

오빠는 눈을 들어 타 들어가는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가물거리는 등잔불 위에 솜처럼 가는 연기가 하늘을 향해 기어올라가고 있었다.

내 눈에 뜨끔히 액체가 다시 고여왔다. 그것이 민족에 대한 죄스러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눈물인지 난 구별해 내지 못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묵을 깨트리며 오빠가 물었다.

"몰매를 맞으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 흥분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향해 돌을 던지며 아우성이었지. 난 미친듯이 그들에게 매달려 울넌

서 빌었다. 그들의 흥분은 약간 가라앉았고 머뭇거리면서 사라져갔지
아마 내 물결이 불쌍해 보였던 게지. 정말 네 아버지는 말이 아니
였어. 병원에서도 안 받아 줄 정도였어.

그 고독함과 민족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너희들은 생각이니 해 봤니?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진짜 슬픔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희들의 슬픔
은 슬픔이 아냐. 다만 기쁨의 소산일 뿐이다.

진짜 슬픔은 내 영혼으로 다른 이의 영혼을 태울 수 없는 커다란
것이다.

팔 하나 없이 몇 달 방안에서 투병하시다가 네 아버진 가신거야.
마지막 유언이 그 말씀이셨다.

내가 진 죄를 다 어떻게 하나. 고.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냈어. 그러곤 이 밤나무끝에 내 모든
피땀을 바쳐 일해온 거야.

황무지를 맨손으로 일구고, 좋은 일,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동네 사
람들의 일을 내 일 같이 돌보며 널 고등학교까지, 또 해구 너를 대
학까지 보내잖니? 아버지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바로 너희에
게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해구야, 널 데모를 했다고 했지? 지금이 어느 때냐?

넌 어찌 최고 학부를 다니고 있는 녀석이 그렇게 지각이 없니?

지금 정세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 그래 데모를 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부패가 새로워졌니?

넌 젊음을 오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은 지금 죽어있지 않아.

엄연히 살아서 정부를 지켜보고 있어. 너희는 아직은 배워야 하잖니
정부에 대한 두분별한 비판은 바로 북괴에게 우리의 헛점을 보이는
것이야. 제발 바른 세계관 뚜렷한 가치관을 가져라.

그 비싼 등록금 주고 왜 휴강을 해서 낭비를 하니? 자원 절약은 말 뿐인 줄 아니? 이 답답한 녀석아."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 지금 나는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어서 자거라. 그리고 이 휴강기일 동안 마음의 안정과 산 지식을 가지고 올라가거라. 알겠니?"

어머니는 오빠를 슬픈 눈으로 보시었다. 잠자코만 있던 오빠가 말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밤나무 몽둥이가 하나 들려 있었다.

몽둥이를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손으로 받들어 놓고는 오빠는 종아리를 걸어올리며 속삭이듯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께 종아리 맞은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종아리가 터지도록 때려주십시오. 제 마음의 오만과 헛된 욕망과 자부심 모두를 어머니 매질로 다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일어나셨다. 그러나 매채를 잡은 손은 단단해 보였다.

이미 어머니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빛났다. 살을 에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안의 빈 곳을 채웠다.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오빠를 때리셨다.

딱, 딱딱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다. 그것은 점점 커어갔다. 어머니의 손은 더욱 힘이 있었다. 매질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엄마!"

참지 못하여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어머니 손목을 잡았다. 눈물이 방바닥에 굴렀다. 오빠가 털썩 주저앉으며,

"어머니!"

하면서 꺾꺾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참고 있었다. 문득 난 너무나 훌륭한 우리 어머니의 정신에 아버지는 벌써 용서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지붕 위로 건너갔다.

다음날 일찍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서울로 갔고, 어머니께서는 평온을 되찾으셨다.

한 달이 지나도록 편지도 그의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나는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가슴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아버지는 용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따금 어머니의 신념에 이유없이 반항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던 몇 일 전이었다. 소식이 없던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다.

참으로 오랫동안 어머니는 그윽하게 웃으셨다.

『저의 가장 강한 어머니.

오늘 학도 호국단의 발단식이 있었읍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도 호국단의 3중대 중대장이 되어 국기앞에 서 있을 때 어머니 생각을 했읍니다. 남루하게 매일 호미를 손에서 놓지 못하시던 어머니.

이십여 년 동안 오늘 우리의 성공, 조국의 통일을 위해 사신 어머니. 어머니의 성의와 신념과 노력은 정말 값진 것이었읍니다. 비록 우리의 아버님이 민족과 국가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어머니의 그

큰 뜻으로 하여 사면 되리라 믿습니다.

젊음을, 자유를 잘못 알았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이 되기에 전 너무나 부끄러운 녀석입니다. * 그 먼지와 잡초 속에서 바윗돌이라도 매만지며 황토를 농도로 바꾸어 놓으신 어머니의 신념은 곧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가슴이 뽀듯해 옵니다.

지금 태극기를 앞에 걸고 한반도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젊음으로 이 나라를 사수하겠습니다. 곧 집에 가게 됩니다. 하향하면 햇감자나 많이 삶아주십시오. 친구들과 함께입니다.

어머니, 혜순이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 월 ○ 일

『 아들 혜구 드림. 』

편지에서 눈을 떴는 엄마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그리고 난 보았다. 어머니의 입술이 '혜구야' 하고 움직이던 것을.

고등부 가작

샘 물

박 종 재

(강원 원주 대성고 2-5)

오늘 우리는 앙증스런 적화야육의 망상은 한낱 미친 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일성 도당에게 보여주기 위해 학도 호국단 발대식을 가졌고 그 후 시가 행진에 들어갔다.

나는 이렇게 학도 호국단의 단원이 됨으로써, 우리 조국을 북의 남침 시에는 목숨을 걸고 방위 하겠다는 결의를 다시한번 다짐하며, 옛날 나의 어린 시절에 본 북괴 공비의 인상을 간단히 피력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세살 나던 때이다.

그때 우리는 휴전선 부근의 조그만 산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찌나 산이 험하고 으스스한지 험상궂은 공비라도 불쑥 튀어 나올듯 싶었다.

그래서 산위에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인들이 망루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우리 옆집에는 나보다 한살 아래인 내 친구 순아가 살고 있었다.

봄철이 되어 동네 아낙들이나 아저씨들이 언덕에 펼쳐진 밭으로 호미를 들고 나가면 그나마도 작은 마을이 쓸쓸해지고 이럴때면 순아와 나는 물가 바위에 앉아 종일 재잘거리며 놀곤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고, 바빠서 허덕이던 일손도 뜸해지던 어느날.

흰뚨를 띄고 가던 구름마저 멈춰서고 6월의 공기가 무척 따스던 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재미있는 얘기를 소근거렸다.

발 밑을 흐르고 있는 물은 우리에게 이름모를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휴일을 맞아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듯 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재미나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러했다.

“우리 마을을 싸고도는 저 산위 어느곳에는 맑은 물이 평평 쏟아지는 샘물이 있어. 우리 발 밑을 흐르는 개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보러 다음주 휴일날 산위에 올라가 보자”는 것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한낱 동화이야기에 불과 하지만, 산골놈이었던 그때 나로서는 가슴 벅찬 결정이었다.

그리고 옛새 동안을 우리는 읍내 국민학교에 나가야 했는데, 나는 그때 들었던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으니……

그리고도 우리는 하루를 더 기다렸다.

그 이틀째 되던 날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 이른 아침, 나는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나를 부르는 것은 순아 였다.

불도 안 켜 차가운 방에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물론 아침도 번개처럼 푹딱 먹어치웠다.

사립문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던 순아가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 웃어 보였다. 물론 우리는 하루치의 식량 - 식량이라해야 겨우 밥덩어리 4개였다 - 과 배를 물리칠 굶고 모난 작대기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날. 모든 사건의 처음과 끝이 되어버린 그날. 우리는 마치 영원한 안식처의 길을 떠나려는 뱃사공이 돛을 다는듯 물

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재잘대는 물소리와 침묵으로 싸인 녹음의 숲은 극과 극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거리며 머리위로 떠올랐고 시장기가 돌아 우리는 바위에 걸터앉아 물의 흐름으로 엮어진 곡조에 맞추어 싸가져온 저녁밥을 먹었다.

그리고 한시간쯤 쉬었을 때였다. 나는 멀리서 먼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듯한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동네쪽이 아니었다.

그 반대인 산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산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사는데 그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이 물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였다.

나의 시선은 소리나는 쪽을 응시했다. 입을 꼭 다문채. 그렇게도 겁없던 순아도 무엇을 느꼈는지 집에 가자고 소근거렸다.

발소리가 점점 우리하고 좁아 진다고 생각한 우리는 그에따라 한발 두발 뒷걸음질 쳤다. 그래도 그 검은 그림자의 발걸음이 우리보다도 훨씬 빨랐는지 금방 우리와 가까와 졌고 나와 순아는 마을쪽을 향해 침범침범 마구 뛰기 시작했다.

무엇인가가 "획"하고 허공을 날아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나무에 푹박혀 버리는 것같았다.

"악"하고 순아의 찢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우연히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몰랐지만 모든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물론 새물을 찾으려 가는 두 모험가의 계획은 산산히 조각나 버렸다.

그후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무엇인가 내 머리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정신이었다. 깨어난 내정신은 내가 우리집에 뉘어져있고 할아버지가 여윈 손으로 내손을 꼭 쥐고있는 것을 알게했다. 내가 지쳐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본것이 파란하늘이었는데 그런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후로 나는 매우 심하게 앓았다. 그때 나는 식은 땀을 흘렸고 가위에 눌려 허덕거렸고 잠이 들면 무서운 꿈을 꾸며 해매던 것을 생각한다.

순아가 하늘에서 등불을 들때면 등불은 내게 밝은 빛을 던지고 그들은 무섭게 순아에게 달려드는 꿈도, 검은 손이 창백한 얼굴을 한 순아에게로 다가와서는 배에 태워 어둠속으로 노저어 데려가는 꿈도 모두 이때 꿈 이었다.

여러날 이렇게 아프다가 나는 정전되었던 불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가 건강해졌을때 나는 할아버지에게 나와는 이미 산속에서 그림자의 사나이로 인해 헤어져 버린 것만 같은 순아 소식을 물어 보았다.

"순아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썬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은 둘같아요. 그들은 석이네 아버지처럼 얼굴은 길고 검지만 우리동네 사람은 아냐요. 우리 국군들 같지도 않고 말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순아는?"

할아버지는 나직이 말씀하셨다.

"아주 슬픈일이 있었단다. 북쪽의 빨갱이 놈들은 털끝만큼의 인정도 메마른 녀석들이지."

"북쪽 사람들은 어느나라 사람들 인데요? 순아는 그사람들이 데려

"애야 이제 또 좀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얼마동안 눈을 꼭 감은채로 앉아 계셨는데, 볼을 타고 두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다음날부터 나는 산주위를 수시로 살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러한 나를 보면 불러서 나로서는 알아 듣지도 못할 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내 생각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서 인것 같았다.

나는 또 순아가 나와 놀던 그리고 결과 이상하게 되어버린 모험을 결정했던 물가에도 자주 가 보았다.

가재는 항상 물 밑을 기고 있었지만 순아는 그곳에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도 동네아저씨도 "순아는 어디에 있잖니" 라고 한마디 해주지 않고 꺼리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해 여름에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로 부터 보내온 낡은 동화책이나, 존경하는 분들의 전기를 읽게 된 것뿐 아니라, 하늘이야기, 바다이야기며, 공산당이라는 확실한 개념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순아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얼굴에 누굴 원망하는 듯한 빛을 지었다간 이내 괴로운 표정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누가, 왜 순아를 데리고 가버렸을까?

나는 테판타사막을 건너 미지의 거인에게 잡혀간 공주를 찾으려가는 조링말탄 왕자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추석을 하루앞둔 9월 어느날 엷은 안개가 산을 덮고있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날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후로 다시는 가기가 싫었던 물가에 가보기로 했다.

혼자 물을 따라 올라가자니 마치 버려진 세계에 놓여진것 같았다.

물가엔 나무등걸이 쓰러져 하얗게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그위를 덩불이며 나무뿌리들이 마치 목졸라 죽이기라도 하듯 휘감아 조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지난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었다.

나는 또 왜 검은 그림자의 사나이는 순아를 데려갔고, 그 사나이는 누구인지 곰곰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물가를 오르다가 어느덧 나는 전에 순아와 주먹밥을 먹던 곳까지 왔다.

그때 까지도 안개는 걸히지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푸른하늘은 맑게 보였다.

내가 지난일을 생각하며 이곳 저곳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을때, 나는 고목나무 등걸에 못 박아 놓은 듯한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공비 조심"

나는 뒤로 돌아 내려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사나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집을 향했다. 물 밑에 밟히는 돌이 부스럭거렸고 종아리에 닿는 풀들이 자슬거렸다.

그후로 작은새는 순아를 데려간 자들에 대한 저주와 원망으로 즐겁게 지저귀지 않았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 고등부 가작 *

은 빛 목 걸 이

이 홍 근

(부산 배정고 2-4)

작년 여름 어느 날.

오후도 늦은 오후, 늦여름의 햇살이 아직은 따가운데 축 늘어진 몸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왔다.

이제 방학도 교비에 접어들어 보름 가량을 남겨놓은 채 아직도 바닷가를 떠나기 싫은 마음이라 넘어가는 달력장만을 쳐다보며 떠날 날을 정해보고 있었다.

자갈이 깔린 해변가를 지나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백사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아를 발견했다.

며칠간의 휴식이라는 명목아래 집을 떠나 남해의 조그마한 섬으로 온 지 벌써 8 일째, 해 뜨는 아침의 백사장에서나 뜨거운 오후의 부둣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까만 얼굴의 귀염성있어 보이는 소녀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흰 원피스차림의 순아는 큼직한 바위위에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조그만 고깃배가 지나가는 수평선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순아의 등 뒤에서 소녀의 눈을 가렸다.

"누구야?"

"알아 맞춰봐."

"응..... 순덕이 오빠?"

"아니"

"그럼 아! 캠핑 온 아저씨!"

"에이, 또 아저씨다."

난 순아의 아저씨 소리에 멧적어 손을 내렸다.

그렇게 아저씨라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막무가내로 순아는 나에게 아저씨라 불러댄다.

"오빠라고 불러랬지 그래도 아저씨야?"

"쿵쿵"

순아는 귀엽게 웃으며 바위 위에서 일어선다. 그리곤 물에 담겨져 하얗게 된 발을 털고 맨발로 바위를 뛰어내려 저쪽 쪽으로 달려간다.

순아는 이 섬의 분교에 다니는 국민학교 3학년생이다. - 3학년 이래도 10명 안팎이지만 - 내가 이곳으로 오던 날 물이 들어온 바위 위에서 어쩔 줄을 몰라 어물거리는 걸 손을 잡아 건네준 인연으로 사귄 차분하고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는 계집애이다.

"고맙습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만을 남긴 채 뛰어가 버린 그 뒷날, 다시 그 바위 위에서 만나 우연이라고 생각해버린 내가, 한 봉지의 사탕을 나눠 먹으면서 사귄 친구이다.

다시 며칠이 지나감에 따라 난 언제나 그 바위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순아를 보게 되었고 며칠 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게 된 것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내가 묵고있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였다.

"학생, 바닷가에 갔다 오는구먼."

"예."

"저녁밥이' 식을텐데 빨리 와서 먹지않고."

"아, 예 감사합니다.

참! 아주머니 순아라는 애 집이 어디 있습니까?"

"순아? 아하, 요 뒷집의 순아 말하는구먼, 그애는 할머니와 함께 있
다오. 생각하면 불쌍한 애지."

"왜요?"

"3년 전에 요 앞 바다에서 3명의 무장 간첩이 나타났을 때 순아
아버지가 그놈들의 총에 맞아 분하게 돌아가시고, 그 후로 순아 어머
니는 물으로 돈벌이를 나가신 며칠에 한 번씩 들어 온다오.

그애가 조그만게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면 친구도 없이 매일 바닷가에
나가 바다만 보고 앉아있겠오.

흉악한 무장 간첩을 보낸 김일성이 놈도 편히 죽지는 못할거야.

착한 어린애 가슴에 저토록 못을 박아놓고."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순아가 늘 혼자 바다만 보고 있군요. 난 그런줄도 모르고
그냥 심심해서 혼자 나와 노는 줄만 알았군요."

"제 아버지 생각을 하는지 아님 돈벌러간 제 어머니를 기다리는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저렇게 늘 바다만 보고있다오.

쫓쫓, 불쌍한 녀석."

"순아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날따라 이상스레 코끝을 간지럽히는 조개국의 야릇한 냄새를 느끼며
물자, 아주머니는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이야기를 꺼내셨다.

"3년전 여름에, 그해는 유난히도 더웠다오.

그때도 서울에서 온 학생 몇명이 묵고 있었다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않아 내가 학생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학생들이 묵고있는 방으로 갔지요.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교회당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지 않겠소.

그러자,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과 예비군들이 총을 들고 들어오더니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문을 꼭 잠그고 불을 끄라고 이르고선 나가지 않겠소.

우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모두 불을 끄고 소리를 죽였다오.

그러자, 조금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뒤이어 고향소리가 온 동네를 흔들지 않겠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예감과 아울러 우리 모두는 창밖에 귀를 기울리며 긴장과 불안으로 가슴을 태웠다오.

참을 수 없는 긴장과 불안에 몇시간이 흘렀는지 사방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기에 막 문을 열고 열려진 문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찬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크게 숨을 들이키는데 어디선가 애꿎은 여자의 울음 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소. 가만히 들어보니 뒷집 순아네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분명한 것 같기에 허둥지둥 달려갔지요.

막 대문을 들어서니 2명의 경관과 예비군이 서 있었고 그 주위를 벌써 몇명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서 웅성거리고 있지않아요. "

"강도가 들어 왔는가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 봐요. 동네 아주머니 가운데 저 쪽 큰 대문집에 사는 이씨 부인이 순아 아버지가 총을 맞고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아요. "

"어떻게 총을 맞았는가요?"

나는 조바심이 나서 들었던 수저를 놓고 물었다.

"무장 간첩이 세명이나 나타나서 순아 아버지가 수색작전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

"순아 아버지만요? "

"아니. 그놈들은 저 등성이에 사는 할머니와 어린 손녀를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 쳐져요. "

"아니,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일까요? "

"그놈들이 사람인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

난 눈앞에 할머니와 손녀의 피투성이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저, 순아 아버지는 예비군이었던가요. "

"그랬지. 중대장이었다요. 이 섬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힘 쓴 훌륭한 분이었지요. 이 앞의 넓은 길도 그분의 힘이었어요. "

"저, 순아 아버지께서 어떻게 싸우다 돌아 가신지 상세하게 알 수 없어요? "

"길 건너 큰 대문집 이씨라는 분이 그때 같이 수색하러 갔으니 잘 알거요. "

나는 밥상을 물리고 일어섰다.

"왜 그러우? "

"바람이나 좀 썰가 해서요. "

"이씨 아저씨한테 가려고 그러우. "

"..... 예. "

"학생은 고향이 이북인가요? "

"아닙니다. "

"그런데, "

"북괴의 잔악성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 그들은 말로만 평화, 평화 하면서 실지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많은 무장 간첩을 남파하고 있지 않아요. "

나는 곧 바로 집을 나와 근방의 조그만 가게집에 들러 과자를 사들고 아주머니께서 가르쳐 준 이씨 아저씨의 집을 찾았다.

넓은 마당의 양 쪽에는 꽃들이 피어있고 그 중간에 나무 침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곳에 누워 계신 분이 아까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한 이씨 아저씨임을 직감으로 알아 차렸다.

나는 여기에 온 이유를 자초지종 말씀 드리고 그 당시의 순아 아버지의 활약에 대한 것을 물었다.

묵묵히 땅만 쳐다보시다가 나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내뱉듯이
"나쁜 녀석들"

하시며 두 주먹을 쥐시더니 차근차근 그 당시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날 밤은 유난히 후덥지근한 날씨였지. 섬에서 그렇게 덥기로는 난생 처음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야."

무장 간첩 셋이는 야간을 이용하여 등 너머 사람들이 살지않는 곳에 배를 대어 내려서 이 동네로 넘어 오다가 배가 고파서 동네에서 좀 떨어진 할머니와 손녀만이 사는 집의 부엌에 들어가 밥을 훔쳐 먹다가 할머니에게 발각되자 아무런 힘도 없는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칼로 죽였고, 놀라움에 떨고 있는 어린 손녀마저 들로 찍어 죽였다는 이야기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끈 지어졌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자, 할머니의 비명과 어린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순아 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그들이 산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장 간첩들이 침입한 것을 알고 비상종을 울려 경찰과 예비군들이 추격하였는데, 순아 아버지의 활약으로 그들 중 2명을 산허리에서 생포하고 나머지 한명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수류탄을 던졌는데 순아 아버지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던진 마지막 수류탄에 그만 순아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단다.

이야기를 하시던 아저씨의 눈엔 눈물이 고였으며,

“이 원수를 언젠가는 내가 갚고야 말겠다.”

는 이야기에서는 나의 손을 꼭꼭 잡으시면서 두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날이었는데 내 시야에는 모든 것이 흐르게 보였다.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피로와 하시는 아저씨에게 미안한 마음이들어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문 밖으로 나왔다.

파도 소리가 내 귓가를 때린다.

천천히 백사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온 사방이 달빛에 젖어 환하다.

조용하고 아늑한 이 섬마을에 그런 천인공로할 꿈직한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할머니와 손녀가 그리고 장렬하게 돌아가신 순아 아버지가 은빛이 반짝이는 밤바다 위에서 아른거리는 것 같다.

낮에 저 바위 위에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던 순아가 지금도 서 있을것만 같아 그곳으로 가 보았다.

그러나 바위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위를 돌아나오다 난 순아의 빠알간 신발이 있어 좃으려다 그만 두었다.

내일도 나오겠지.

밤에 들어와 잠을 청해도 정신은 자꾸 또렷해진다. 후덥지근한 더위 때문도 아니요 '윙윙' 거리는 모기때문만도 아니다.

무얼 생각하다 잠이 들었는지 아주머니가 닭장에서 모이 주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해가 중천에 떴다.

나는 황급히 방에서 나왔다.

" 학생, 오늘은 늦구먼. 마루에 있는 아침 먹어요. "

" 예 "

밥상을 대한 나는 별로 먹고싶지 않았으나 아주머니가 섭섭히 생각하
실까봐 억지로 몇순갈 들고 바닷가로 나왔다.

언제 왔는지 순아는 바위 위에 앉아 두 손을 각지 끼고 바다를 바
라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옆에 앉아 수심에 젖은 순아의 초롱한 눈을 엿보았을때
난 가슴 속에 찡한 무엇을 느꼈다.

순아는 살짝 옆에 앉아있는 나를 한참 후에야 알아채고 깜짝 놀라더
니 귀엽게 웃는다.

우린 한참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 내일은 집에 가야겠다. "

막상 말을 해놓고 순아의 얼굴을 보니 그는 무척이나 놀라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 벌써 가실려구요. "

" 벌써라니 여기온지도 9일째인데. "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 이제 집에 가서 방학숙제도 해야겠고, 엄마도 보고 싶고..... "

엄마가 보고싶다는 소리에 순아의 얼굴빛이 약간 변하는 걸 보고서
난 '아차 말을 잘못했구나' 하고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 참 동생이 조개점질을 채집해 달랬는데 노느라고 이제까지 깜박 잊
고 있었군.

할 수 없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 하는 수밖에. "

나는 순아의 눈에 어리는 슬픈 빛을 보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바위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왔다.

길 모퉁이에서 뒤돌아 보니 순아는 그때까지 바다를 향해 있었다.

'아마 울고 있을거야'

짐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울고있을 순아의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려
몇번이나 짐을 팽개쳤는지 모른다.

그동안 깊은 정을 느낀 이유도 있겠지만 순아의 슬픔이 결코 순아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며, 이제 폐가가 되다 시피한 산허리의 비참한 비
극을 남긴 할머니와 그 손녀의 영혼은 그 누가 달래 줄 것인가.

딱 쉰 주먹에 힘이 더 가해진다.

뜬 눈으로 밥을 새우고 우물가에 가서 무거운 머리에 찬 물을 끼얹
었다. 아주머니도 못내 서운한 얼굴로 아침 밥을 갖다 놓고 말없이
마당 가에 서성거린다.

울타리 밖 포프라 나무에서 울어대는 매미 울음 소리가 한층더 마음
을 무겁게 한다.

포구까지 걸어나오자 내가 올때 타고 온 여객선이 파아란 하늘에 연
기를 품으며 떠 있었다.

언제 뒤편 오셨는지 아주머니와 이씨 아저씨가 선창에 서서 웃음을
보내고 있다.

나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배 위에 오를려고 발을 떼는데 저쪽에서
순아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온 순아의 얼굴을 보니 눈두덩이가 부었다.

'밤새 울었구나.'

순아는 말없이 나에게 하얀 도화지에 예쁘게생긴 조개껍질을 붙여 놓
은 조그만 상자를 주었다.

내가 머뭇거리자 순아는 환하게 웃으며

"어제 동생 숙제 걱정했잖아요? 자. 오빠"

나는 순아에게 처음으로 '오빠' 소리를 듣자 정감에 찬 웃음을 보내면서

"고맙다"

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때 난 무엇 때문인지 순아에게 무어라도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난 국민학교 졸업식때 아버지로 부터 받았던 예쁜 만년필 - 내가 가장 아끼며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만지지 못하게 하였던 - 을 꺼내 순아에게 전해주었다.

"자, 이거 받아라 오빠가 주는 것이니....."

머뭇거리던 순아는 미소를 띄며 만년필을 받아든 후 한참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자기 목에 걸고 있던 전에 보지 못했던 조그만 목걸이를 풀어서 나에게 내민다

은빛 쇠줄에 들국화가 예쁘게 그려진 동전 크기의 참한 목걸이었다.

"아빠가 나 줄려고 사신거래요. 생일날 걸어줄려고 그러다....."

순아의 눈에는 또 눈물이 고였다.

난 매우 망설이다 이런 순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가 싫어 받았다.

목걸이의 매끄러운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순아의 생일을 축하하며 아빠가 19××년 8월 ×일'

"그럼 잘 있어 다음 여름방학에 꼭 오마"

난 간신히 이 말을 던진 후 배위로 올라갔다.

슬퍼지는 마음에 울음이라도 터질까 난 저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배가 길게 기적을 두번 울린다. 그리곤 서서히 하이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포구를 떠난다. 배와 포구의 사이가 자꾸 멀어진다.

손을 흔드는 순아의 모습이 차츰 작아진다.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순아가 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꼼꼼히 생각에 잠긴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

'조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이제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새삼 깨달아진다.

저만 살겠다고, 저만 잘 되겠다고 외국의 은행에 재산을 예금시키고, 귀중한 달러를 유출시키고, 위장이민을 가려고 악을 써고…….

과연 우리 국민이 이런 짓을 해야만 할까?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보고 계실 하늘 아래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어지러운 정세에 모두 힘을 합쳐 오천 년 내려오는 조국을 위해 우리의 후세에 부끄럼없는 국민이 되기 위해 저만 살겠다는 극히 이기주의적 비민족적 행위를 배척하고 모두 믿고 뭉치는 것만이 순아의 슬픔을, 섬 마을의 비극을 아니 조국의 분단을 없애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요사이 습관처럼 책상 벽에 걸어 놓은 목걸이를 볼 때마다 조국의 통일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걸상을 끌어당겨 책장을 넘긴다.

청소년의 통일외식

— 제6회 통일에 관한작품 현상모집 당선작품 —

1975년 11월 30일 인쇄

1975년 12월 1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인쇄처 : 주식 배문사 ☎ 0234~5
☎ 0234·8525

국통제 75-7-66 <비매품>